

이 책은 제목그대로 개념과 신학이다. 실제나 현장 같은 것은 이 책 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런 것은 향후에 다시 정리하고 싶다(평신도목회실천론)
-저자 서문에서-

평신도목회 의

Professor Byeongchea's sincerity and application shine through the pages of this book.
Vincent Strudwick (Oxford University)

개념과 신학

평신도목회라고 하면 엡4:11-12에서 유출되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목회자는 구비시키는 자(equipper)가 되고, 성도는 사역자(minist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병 채 지음
Vincent Strudwick (Oxford Univ.) 추천

평신도목회의
개념과 신학

서 병 채 지음

Vincent Strudwick (Oxford) 추천

추천사

'Professor Byeongchea is a man with a vision of empowering the whole church membership to be the church better, and this book sets out his vision and the way he thinks it should be implemented in his home country of Korea.

Its strength lies in the fact that while his studies have taken him to Europe and America, it is in his own country that he has attempted to put into practice and test out his educational ideas and his understanding of formation, for the missionary task that belongs to all Christians.

Professor Byeongchea's sincerity and application shine through the pages of this book.

The Revd Professor Vincent Strudwick
Oxford University Kellogg College UK

저 자 감사의 글

이 책이 나오기까지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우선 평신도목회에 대한 사역을 전개하도록 출발점을 던져주고, 동기부여를 해준 멜빈목사님께는 더 할 나위 없이 감사하는데, 특히 그분께서 개발하신 자료와 또 그분의 헌신에 대해서는 자연히 고개가 숙여진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헌신된 분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국내에서 이런 사역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끝없이 격려해주신 할렐루야교회의 김상복목사님이신데, 제1차 컨퍼런스(2001년)부터 헌신적인 마음으로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또 방향제시를 해주셨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한국교회에 전개해나가도록 한 연구소 스텝들이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런 사역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비전을 잃지 않기 위해 서로가 계속적으로 격려하며 몇 년을 헌신한, 그야말로 사역의 동역자들이다.

두분의 교수께도 감사드리는데, 영국 옥스퍼드의 빈센트(Vincent Strudwick)와 미국 예일의 폴(Paul Stuehrenberg) 교수님이시다. 이 두분은 나의 평신도목회에 대한 신학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준 분들이다. 빈센트교수님은 내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계속하여 가르쳐주시고, 또 학위논문(Ph.D)을 이 방면으로 쓰는데 무리없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까지 해주신 분이다. 예일의 폴교수님은 내가

Post-doctorate에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방면으로 계속 연구하도록 지도 해주신 분이다. 두분의 지도를 통해 평신도목회의 신학이 정립되어 왔다고도 본다.

그 이후 좀 더 시간을 작고 생각해보면서 재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 옥스포드의 로빈교수께 감사드리며(postdoc. 지도교수), 이곳에 와서 이 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시간적인 배려도 해주심에 고맙게 생각한다.

그리고 지면을 통해 학교설립과 건축에 온통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고 계시 손동식이사장님과 계속적으로 책을 출간해주는 광명기획의 최재구 대표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그 외에 거론 안 된 분들은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드린다.

2011년 7월
영국 Oxford University
Rewley House에서
서병채

서 언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개념과 신학이다. 실제나 현장 같은 것은 이 책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런 것은 향후에 다시 정리하고 싶다(평신도목회실천론, 교회성장 등등). 그러므로 이 책은 평신도목회에 대한 [개념과 신학]만을 전달한다.

이것에 대해 고민하며 글을 준비한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구소가 1999년 7월1일자로 시작되면서, 교회연합신문에 평신도목회라는 제하로 3년간 연재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 하버드, 영국 세인트앤드류에서 공부한 전광성목사(당시 신문사에서 아르바이트)의 전적인 배려였다. 둘째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사역을 해오면서, 그리고 학위논문 준비를 하면서 정리한 개념들이다.

학위논문을 마치고 한번 더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예일대학에 가서 다시 보충하고, 지난 몇년간 더 생각하다가 이번에 옥스포드에 와서 마무리짓게 되었다. 몇 단계를 거친 것인데 비해 내용은 매 부실함을 인정한다. 전반적인 이론적 개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평신도목회라고 하면 엡4:11-12에서 유출되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목회자는 구비시키는 자(equipper)가 되고, 성도는 사역자(minist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는 이 두 가지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개념과 신학을 다루었다.

이 책에는 foot-note나 end-note를 달지 않았다. 그 이유는 특별한 포맷 없이 평이하게 써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필요시에는 시카고스타일로 본문 끝 괄호 속에 바로 명기하였다.

바라기는 이 책이 평신도목회에 대해 개념적, 신학적으로 정리가 미진한 한국교회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신학자들이 미래에 계속적으로 보충하여 소개하리라 본다.

저자 서병채

목 차

저자 감사의 글

서언

서론

 평신도목회 개요-----1

1 배경(7)

 제1장 : 교회사적, 역사적 배경-----7

 제2장 : 성서적 근거-----10

 제3장 용어-----13

2 교회(19)

 제4장 : 신약성서의 교회-----23

 제5장 : 교회정체-----29

 제6장 : 시스템이론-----34

3 평신도(44)

 제7장 : 평신도의 신학적 위치-----46

 제8장 : 평신도의 잠재력-----49

4 변화(53)

 제9장 : 역할의 변화-----55

 제10장: 전환의 시대-----70

 제11장: 패러다임전환-----77

5 평신도목회(81)

- 제12장 : 평신도목회의 현주소-----83
제13장 : 평신도목회에서 우선권-----91

6 평신도목회 모델(95)

- 제14장 : 존웨슬레의 평신도목회 -----95
제15장 : 폴스티븐스 평신도 목회-----101
제16장 : 그레그옥덴의 평신도목회-----102
제17장 : 멜빈스타인브런의 평신도목회-----104
제18장 : 바울과 베드로의 평신도목회-----111

7 구비(119)

- 제19장 : 구비시키는 사역-----120
제20장 : 구비사역에 대한 오해 -----127

8 사역자(130)

- 제21장 : 사역으로 부름-----130
제22장 : 동역자 -----139
제23장 : 평신도와 목회자의 동역-----142

9 은사(154)

- 제24장 : 은사의 발견-----155
제25장 : 은사에 관련되는 유의점-----157

10 훈련(161)

- 제26장 : 훈련에서 어려움-----164
제27장 : 훈련에서 동역자-----171
제28장 : 알맞은 사역발견하기-----175

결론-----178

부록 I: 평신도리더십-----180

부록 II: 평신도목회 성공전략-----187

서론

평신도목회개요

평신도목회 운동은 목회자가 자신이 받은 목회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평신도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그들을 돕고 훈련하여 그들이 스스로 전임 목회자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평신도목회자들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평신도들의 엄청난 자원과 자질들이 단지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일차원적 수준에 묶여 있음으로 사장되고 있다는 현실을 오래 전부터 보았다.

때로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고유영역인 목회적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위협으로 생각하기도 해왔다. 가능한 한 성도들은 목회자가 시키는 심부름 정도를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 너무 많이 알거나 능력이 확대되면 될수록 목회자에게는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끔 아는 척하는 평신도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교인들이 목회자처럼 훈련받으면 목회하기에 더 힘이 든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다. 일반 성도들은 그저 공식예배나 잘 참석하고 십일조 헌금이나 정확하게 드리고 가끔 제직회나 참석해 주고 주보나 나눠주고 헌금위원이나 하고 부업에서 국수나 잘 끓이는 정도 외에 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당회의 장로들마저도 회의하고 안건이 있으면 토론해서 정책적 결정이나 하면 장로의 책임을 다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평신도목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은 달랐다. 교회에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이 너무도 많다. 많은 정도가 아니고 전부이다. 모두가 누군가의 돌봄을 기다리고 있다. 시편 기자도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시 142:4)고 탄식한 적이 있다. 꽤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거나 이 교회 저 교회로 전전하고 있지 않은가? 주일 오전예배 정도 참석하고 영적인 생활의 명맥을 겨우 유지해가는 성도들도 소수가 아니다. 교회 안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돌봄을 기다리다 지쳐 떠난 사람들의 수가 한 두 명인가?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요한 21:16)고 명령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라"(Tend the flock of God)(벧전 5:2)고 하셨다. 그러나 교회는 양 무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 왜? 양 무리를 돌보는 목회적사역은 목회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해 소수의 목회자들이 다수의 양 무리를 혼자서 감당하려다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손이 미쳐 닿지 못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평신도가 훈련받아 목회자화되어 그들이 목회적 사역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엡 4:11-16).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구비하여 봉사의 일(the work of ministry)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11-12절). 단순한 봉사가 아니다. "목회의 사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선생과 훈련받은 평신도목회자들이 사역한다는 것이다. 목사는 선생이고 훈련자요 성도는 훈련받아 성숙해지고 있는 평신도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사도 바울의 목회철학이다.

목사는 성도를 교실에서, 목회현장에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 개인적 신앙과 목회적 사역을 가르친다. 사도 바울 이후 이 목회관을 기독교는 거의 2천년 동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사역은 전임목회자들만의 고유한 몫이고 교인들은 목회자들의 연기를 일주일에 한번씩 성실하게 구경하고 칭찬이나 박수를 보내주는 정도면 된다는 식이었다.(김상복)

평신도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역은 20세기 중반 1960년대에 와서야 사도 바울의 목회관을 재발견하면서 평신도목회자화운동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목회관은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보았고 체계화되었으며 오늘에 와서는 신학자들과 목회연구자들의 많은 저서들을 통해서 21세기의 목회철학이라 확언을 하고 있다.

'평신도목회'에 대한 용어설명 및 개념정리를 해보자. '평신도목회'라고 하면 영어로 'lay ministry'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평신도사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주로 평신도목회 라고 명기하겠다.

이 용어의 뜻은 평신도가 목회(또는 사역)에 포함되어 동역한다는 것이리라 본다. '동역'에 대하여는 짐 갈로우(James Garlow)의 [목회에서 동역자]라는 책이 유명한데, 내가(서목사) 번역하였다. 이 책에서 짐 갈로우는 존 웨슬레의 평신도훈련과정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a)부름, b)은사, c)훈련, 그리고 d)파송 순서이다. 물론 목회에 동참하느냐 아니면 사역에 동참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또한 목회는 무엇이며 사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개념차이도 재고해 볼 문제라고 본다. 아무튼 '목회'이든 '사역'이든 평신도가 주의 일에 동참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왜 이런 용어와 개념이 필요하며 또 새삼 다룰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평신도'라는 용어가 '평신도목회(lay ministry)'라는 측면에서 보편화, 또는 편만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리라. 다르게 말하면 '평신도의 중요성'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것이다. 물론 유럽과 북미에서는 수십년전부터 개념화되었지만 한국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 평신도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함을 느낀다는 얘기이다. '평신도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헨리 크레머가 글을 쓴

것(1958년)을 기점으로 이 분야가 개발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것은 옥한흠목사님의 책 [평신도를 깨운다, 2000. 1.9, p.17]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왜 이런 용어가 또 부각됨이 필요한가 하면 평신도와 목회자의 갭(gap)이 너무 커서, 다시말하면 목회자는 일을 많이 하고 평신도는 적게 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목회자는 주고(giver), 평신도는 그것을 받는다(recipient)는 의미에서 피동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2000년 6월 27-28일 양일간 분당 할렐루야교회(담임 김상복목사)에서 제1차 [평신도목회자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데, 주 강사였던 옥한흠목사도 이것을 지적했으며, 머린 윌슨은 그의 책, [평신도목회에서 모빌라이제이션-서목사번역]에서 'pew-sitter(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라는 표현을, 이동원목사는 방송설교를 통해 '의자만 데우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피동적이 될 경우에 생겨지는 결과는 가히 치명적이다. 우선 목회자는 탈진(burn-out) 될 것이고, 평신도는 신앙생활의 의미와 보람을 덜 느끼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성서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은 체사장'이라는 개혁신앙고백(옥한흠목사, *같은 책*, pp. 49, 110)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또 한국교회에 불어오고 있는 목회방향은 어떻게 평신도를 동원(mobilize)시켜서 주의 일에 동참케 하는 문제이다. 작금의 모든 현상이나 목회패러다임을 주도해가고 있는 연구기관들의 발표도 결국 이런 측면으로 어떻게 평신도사역자(또는 평신도목회자)를 구비시켜(equipping) 가느냐, 또 그리하여 바울의 표현대로 주의 선한 군사(good soldier)로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다. 구비시킨다는 용어는 엡4:12절을 중심으로 성경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는 개념인데, 홀리신학교의 목회학박사과정 교수인 그레그 옥텐과, 캐나다 밴쿠버 리젠트대학의 폴 스티븐스 교수가 강조하며 즐겨쓰는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김상복목사님과 옥한흠목사가 강조한 바이기도 하다.

그러면 평신도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 하는데 우선 어원적(개념)으로 살펴봄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면에서 '평신도'란 설교자가 아닌

자, 신학공부를 하지 않은 자, 성직자가 아닌 자라고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부적당한 것 같다. 뭔가를 정의할 때, '---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별로 합당치 않다. 오히려 우리는 '---이다'라고 보는 것이 나올 것이다. 우선 헬라어로 '평신도'를 살펴보자. 우선 평신도라고 부르는 용어는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라이코스(laikos),' 다른 하나는 '라오스(laos)'이다. 라이코스는 교육받지 않은 군중, 전문가가 아닌 사람, 어떤 주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평신도를 의미한다. 할렐루야교회 평신도목회연구원의 학감이었으며, 현재는 죽전의 선한교회 담임, 그리고 한국평신도목회연구소 사무총장인 김종태목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마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한 시점(AD 313년)을 전후하여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자 기독교는 제도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위 성직자와 일반 신자를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칼타고의 감독인 키프리안(Thascius Caecilius Cyprianus, AD 200-258)이 처음으로 성직자와 일반 신자를 구분하는 뜻으로 ‘평신도(leikos)’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단어를 사용할 당시의 헬라어 의미는 '무식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다.” 신약성서에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the people of God)"을 의미한다. 라이코스(교육받지 않은 군중)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반대로 신약성서는 계속적으로 라오스('하나님의 사람들')라는 말을 사용한다.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나는 단지 평신도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중의 하나이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는 뭔가 부정적이고 공허한 것으로부터 평신도의 의미를 뭔가 성서적 그리고 역사적인 이해의 풍성함으로 바꾸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중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며 격찬할 일인가?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라오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 부분인 것이다. 다음부터 '나는 평신도입니다'라고 어떤이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중의 하나가 된다는 놀라운 명예스러움으로 그를 축하해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는 '이데오테스(ideotes)'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학문없는 범인이란 뜻이다. 이 말도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용어로서 교회 밖에서 사용되던 단어이다. 이와 같이 그 당시에 비판적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세속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를 목회나 신학적인 여과과정이 없이 교회안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회안에는 성직자와 일반성도들 사이를,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일반성도들 사이를 출생적으로 구분하는 것과 같이 취급하는 구약시대로의 회귀경향이 교회안에 나타나, 교회 안에 성직자와 일반 신자라는 두 계급이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고, 일반 신자들은 성직자에 비해 비전문적인 사람, 아마추어, 주변적인 사람, 부수적인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의 의미로 전락하고 말았다. 요컨대 '평신도'라는 용어의 태생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안에서 이런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용어 사용이 너무나 오래된 관행이고 보편화 내지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입장으로서는 대치할만한 용어가 없기 때문이다. 일산에 있는 한 통합측 목사님은 '성도 목회'가 어떻냐고 제안한 적도 있다.(류영모)

배경(background)

제1장: 교회사적, 역사적 배경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300년간은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구별이 심하지 않았다. 베드로 사도가 기독교인 전부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 불렀다 (벧전 2:9). 목회자들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그러나 4세기에 들어와 로마제국을 콘스탄틴 대제가 통일을 하고 기독교가 국교화하면서 목회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시작되었고 심화되었다. 목회자의 옷도 구별하여 입기 시작했고 어두운 중세시대가 시작되며 성직자의 세력을 치솟아 갔다. 성직자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리인"(the Vicar of Christ)이 되어 성찬의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면 그 즉석에서 예수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는 화체설도 나타난다. 성경도 평신도가 보면 안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리인"이 읽어주고 해석해 주어서 성경을 평신도로부터 빼앗아 갔다. 성찬도 평신도들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천주교에서는 신도가 무릎을 꿇고 입을 열면 사제가 떡을 입에 넣어주고, 잔은 아예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관이 16세기 종교개혁에 이르러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을 통해 "만인제사장설"을 선포하며 모든 신자들은 다 제사장이라는 신학적 입장을 주장하고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다시 돌려주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개혁 직전에도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해 준 에라스무스는 "성직자는 마땅히 평신도의 신앙 이해를 도와야 하는데,

성직자가 평신도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글을 쓰며 평신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성직자보다 평신도에 의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로 인해 종교개혁 전부터 에라스무스의 영향 하에 소위 "대중종교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였다"(김재성,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 23-24).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 대각성운동 과정 속에서 평신도를 소그룹으로 조직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함으로써 평신도를 해방시켜 목회자화한 접근을 통해 감리교의 성장과 소그룹 목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신도목회는 진젠도르프, 스펀전, 무디, 찰스 피니, 스코필드, 빌리 선데이 등과 같은 평신도 사역의 거장들이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사도행전 때에서부터 3세기까지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큰 구별이 없었다. 그러나 4세기에 로마제국이 통일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별하고 옷도 다르게 입기 시작했다. 목회자에게 명예와 부와 권력이 주어졌다. 목회자의 힘을 점차 강해져 로마황제가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맨발로 눈 위를 걸으며 용서를 구하는 일들까지 생기며 목회자의 위치는 독보적이 되었다. 최고위의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대리인(The Vicar of Christ)이어서 세상 왕국의 통치자인 왕이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 때부터 교회는 평신도의 영적 힘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 상태는 종교개혁까지 1,000년 이상 지속되었고 목회자의 세력은 절대적이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평신도를 일깨웠다.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쥐어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목회자가 없이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만민제사장설이 부각되어 목회자와 평신도가 공히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의 가르침으로 평신도들의 사역을 일으키려 했으나 종교개혁자들도 오랫동안 내려온, 중세시대의 목회자와 평신도를 분명히 구분해온 시대적 문화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아직도 목회자와 평신도의 거리는 계속 좁혀지지 않았다. 소위 평신도를 목회자들의 집전을 구경이나 하는 구경꾼 정도로 만들기 시작했다. 4세기에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준 암브로우스 도지사가 목회자들이 모여 회의하다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군대를 이끌고 현장에 나와 싸우지 말라는 명연설을 했다가 그

연설에 감동 받은 목회자들이 그를 그 자리에서 감독으로 세워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평신도목회운동은 목회자가 영적인 사역을 하면 목회이고 평신도가 동일한 영적인 사역을 하면 봉사나 사역이라는 인위적인 차별을 없애자는 새로운 운동이다. 평신도들이 영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는 뜻을 깨우치기 위해 일부러 계획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평신도는 [봉사]하고 목사는 [목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전임목사에게 영적인 사역을 다 맡겨 놓고 그들은 사례비나 지급하고 후보나 나눠주고 식당에 내려가서 국수나 끄러 주고 헌금이나 거두거나 집계하고 차량안내나 하면 자기 봉사는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목회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평신도들이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해방시키면서 목회적 훈련을 하여야 한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평신도목회 철학은 21세기의 "새로운 종교개혁"으로 불려지고 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고 평신도의 "만인제사장" 의식을 찾아주었다. 21세기의 새 종교개혁에서는 평신도들에게 목회적 사역을 돌려주고 있다. 이 새로운 목회철학은 칼빈주의에서 꽃을 피웠고 도이베르와 아브라함 카이퍼에게서 문화적 사명이란 칼빈의 신학적 개념을 모든 신자들의 모든 영역이 바로 영적인 사역이란 폭넓은 해석을 함으로서 평신도 사역에 큰 공헌을 했다. 웨슬리의 영적, 사회적 갱신운동은 조직적인 소그룹 평신도목회운동으로 감리교의 창설과 강력한 확장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20세기 중반기부터 평신도목회 철학은 더 구체화되기 시작하며 새 시대를 열었다. 헨드릭 크레이머의 "평신도신학," 랄프 몰튼의 "동결된 평신도," 폴 스티븐슨의 "평신도해방," 멜빈 스타인브론의 "평신도목회," 데일 갤러웨이의 "평신도목회자와 소그룹의 결합," 릭 위렌의 "평신도사역자"와 조용기의 "셀그룹사역," 옥한음의 "평신도를 깨운다," 김상복의 평신도목회연구원, 칼 죠지의 "메타교회," 중국의 가정교회 등을 통하여 평신도목회 시대가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나 그레그 옥든의 "새종교개혁"에서 분

명히 말한 것처럼 평신도목회는 성령께서 제시해 주시는 21세기의 목회 철학임에는 틀림없다. 평신도목회 철학은 평신도목회를 주장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낸 개념이 아니고 20세기 후반에 와서 새롭게 발견됨을 따름이다. 교회사에서 그랬던 것과 같이 성령께서 시대마다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진리들이 있다. 초대교부 시대에는 기독교론, 종교개혁 시대에는 구원론과 교회론, 웨슬리 시대에는 전도와 선교, 20세기에는 성서론, 성령론, 종말론, 그리고 평신도목회론이 새롭게 솟아 올랐다.

제2장: 성서적인 근거

평신도는 뭔가 특별한 존재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 왕국의 성장에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었으므로 평신도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 대부분에게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신도라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미국 또는 한국의 어느 교회이고 간에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평신도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할 일이 없다(실업자)-즉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95%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평신도가 종종 교회의 실업자(무직자)로서 정의되어온 이런 상황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교회 시대의 방법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가지고 있다. 에베소서 4: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은 성취해야 할 흥미진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12절에서 설명되어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가지 일이다. 그 일은 무엇인가? 그 일은 [목회의 사역]을 위해 모든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비(equip)시키는 것이다. 그들(평신도들)의 사역은 교회를 강화한다.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교회에 주어진 사역들은 공통목표를 가지고 있다-'

목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 목사이든지, 전도자이든지, 또는 교사이든지 일차적으로 할 일은 목회를 나누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구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짐 갈로우 목사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다. 목사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할 일은 그들(평신도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사역을 위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우리(목사)는 구비시키는 자(equipper)가 되는 것이다. 신학교의 주요 할 일은 단지 전문적인 목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평신도들)의 사역들을 위해 그들(평신도들)을 구비/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들(목사)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에베소서4:12절에 대한 어떤 번역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만드는 콤마를 "성도"라는 단어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다: "성도의 온전을 위해, 목회의 사역을 위해,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KJV). 이런 세 가지 단계는 그 다음에 목사, 교사 또는 선지자의 세 가지 다른 임무들을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2)목회의 사역을 하려고, (3)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즉, 목사는 세 가지 임무들을 가지고 있다: 1. 성도를 온전; 2. 목회의 사역; 3.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들은 그런가?

간단히 말해서 "할 수 있게 하는 자(enabler)"는 한가지 일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봉사/목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비시키는 것.

많은 번역들이 "성도들(saints)"과 "---을 위해(for)" 라는 단어사이에 콤마(,)를 두지 않고 있다. 이런 콤마들은 그 구절의 의미를 바꾸게 된다. 한스 류디웨버(Hans-Ruedi Weber)는 이 쉼표를 "치명적인 콤마"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 구절의 의지(의향)를 상당히 바꾸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우리가 12절에서 콤마를 유지한다면, 그 목회는 목사, 교사 그리고 등등에 의해 뭔가 이루어야 할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런 배제적인 목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목회를 선택된 몇 명에게 제한하는 것이다. 이 본문은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목회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포함인데 예수그리스도 교회에서 성장을 생산하는 것이다.

평신도목회의 성경적근거는 '엡 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다. 평신도 목회는 에베소서 4:11-12(16절까지 연장도 가능) 사이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여러 가지 인적 은사를 주셨다. 여기에 나열된 사역자들이 전부는 아니나 대표적으로 첫째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전도자, 넷째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사도와 선지자는 성경시대가 끝나자 없어졌고 지금은 전도자와 목사/교사가 있다. 전도자는 단순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능력을 받아 전도사역에 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예, 빌리 그레함). 다음에 나타나는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이다. 목사와 교사 앞에 원문에 의하면 정관사 하나가 붙어 있어 목사 선생이라는 의미이다. 즉 목사는 교사, 즉 가르치는 사역자라는 뜻이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다른 수 많은 일들도 있지만 말씀 선포와 말씀 교육이다. 목사 선생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역을 맡아 있다. 이 때 "온전케 한다"는 의미는 훈련한다는 뜻이다 (equipping). 즉 군인에게 전쟁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다. 어떤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여 적을 무찌르나를 이론과 실제로 가르쳐 훈련하여 전쟁에서 적을 이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목사 선생도 마찬가지이다. 성도들 영적으로 훈련하여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 "봉사의 일"이란 뜻은 "목회의 일"(the work of ministry)이다.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봉사 정도가 아니다.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 목회적 사역이라는 것이다. Ministry를 하는 사람을 minister라고 한다. Minister는 우리말로 목사라고 번역한다. 여기에서 평신도 목회라는 말이 만들어 진 것이다.

제3장: '평신도목회자' 용어 정의

"평신도목회자(Lay Pastors)"라는 용어는 미국 평신도목회협회(Lay Pastors Ministry, Inc)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1997년 7월 1일부로 한국에 지부가 세워지면서 이 용어, 즉 '평신도목회자'라는 말을 그대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평목으로 줄여서 평이하게 쓰고 있다.

또 다른 용어는 평신도사역자(Lay Ministers)이다. 평신도사역자라는 말은 많은 이들이 쓰고 있지만 특히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며(Ph.D in ICS) 한국에 와서 세차레(부산, 서울, 광주)세미나를 인도한 김점옥목사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 공식명칭을 '평신도사역자목회'라고 부른다. 아무튼 김목사는 2000년 6월의 할렐루야교회 대회에서 나와 함께 강의한바 있고, 또 광주 세미나때에 참석하여 잠시 얘기한 바도 있다. 그는 평신도사역자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한국 LPM 연구소에서는 미국 협회에서 명명한 공식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또 더 나아가 설립자이며 총재인 멜빈목사님의 자료를 그대로 인수하여(ownership) 연구하는 입장에, 그리고 한국에 소개하는 입장에서 명칭과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그분과 미국 협회에 대한 예외와 존경심의 표현이며, 또한 연구소가 사역하고 있는 것의 정확한 개념(concept)을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고 생각한다. '이름'이 정확해야 '개념'이 정확히 전달되고, 개념이 정확해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평신도목회에 대표적인 인물은 김상복목사님이시다. 이런 용어를 처음 사용하시며 개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평신도목회자컨퍼런스, 2000년 6월 27-28), '평신도목회자란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그분의 모습을 닮아 가는 평신도로서 소정의 목회훈련을 받으며 일생동안 목회적소명과 헌신으로 교회나 선교나 사회에서 목회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또한 평신도목회자를 6가지로 분류하고(사실은 평신도사역자를 분류한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도 같다[멜빈목사님의 개념에 의하면]-필자 주)있는데; 가)평신도목회자, 나)평신도전도자, 다)평신도상담자, 라)평신도성경교사, 마)평신도선교사, 바)평신도찬

양사역자라고 한다.

그래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 2001. 6. 3일 멜빈목사님께 한번 더 문의하였더니 아래와 같은 회신이 팩스로 도착한바 있다. 그대로 번역하고 원문도 아래에 실는다. 영어에 편리하신 분은 참고 바란다:

"사랑하는 서병채목사께,
전화, 팩스를 통해서 한국에서의 사역진행을 알려주어 고맙습니다.
당신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신도사역'.....평신도사역자; '평신도목회자사역'.....평신도목회자.

지너스(genus: 일반적인 그룹)는 '사역'입니다; 스피시스(species: 특수하며 다양한 것)는 '평신도목회'입니다. 예를들어;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은 지너스이고, '암소', '말', '원숭이'등은 스피시스입니다.

"사역"은 전도, 가르침, 선교, 행정, 목양 등이 포함됩니다. 전도자는 사역자입니다; 교사도 사역자; 설교자도 사역자; 선교사도 사역자; 목사도 사역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신도사역자'라는 용어를 사용할때는 "--하는 평신도사역자?"라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평신도사역자; 전도의 평신도사역자; 목양의 평신도사역자 등등이 있습니다.

'평신도목회자'라는 표현은 목양돌봄(pastoral care)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평신도전도자'는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11-12절에는 사역(지너스)을 위해 훈련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6-8절에도 특수한 목회들을 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그 특수한 것이란 예언하는 것, 봉사하는 것, 가르치는 것

등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의 평신도목양(lay pastoral care)모델을 채택하였지만 '평신도목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큰 교회들 중의 하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신도사역자'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교회들은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교회는 알라바마 몽고메리에 있는 프레즈감리교회입니다. 당신도 앤드류와 팔머를 알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협회의 이사이며 수년동안 나와 친구사이입니다. 용어가 불분명하지만 았다면 '평신도사역자'라고 불려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당신을 남자, 당신의 아내를 여자, 아들을 남성으로 부르는 대신, 당신을 '인간'으로, 당신의 아내를 '인간'으로,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만약 내가 당신을 세인트루이스(2000년 4월)에서 만난 적이 없다면 당신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어떤 사람이 '평신도사역자'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가 전도자인지, 교사인지, 행정가인지, 예배인도자인지, 목사인지, 목사-교사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네아폴리스에서 멜빈 스타인브런

[영어원문]

"Dear ByeongChea,

Thank you for the phone calls and faxes. They keep me close to you and all you are doing. The info helps me pray for you with specifics.

"Lay Ministry"....."Lay Pastors Ministry"

"Lay Ministers"....."Lay Pastors"

The genus(general group) is "Ministry;" the species(specific, variety) is "Lay Pastor." Example: In the animal world "Animal" is genus; "Cow," "Horse," "Monkey" are the species.

"Ministry" includes evangelism, teaching, missions, administration, pastoring, etc. An evangelist is a minister; a teacher is a minister; a preacher is a minister; a missionary is a minister; a pastor is a minister. If you use the term "Lay Minister" you have to ask, "Lay Minister of what?" So, there are Lay Ministers of Teaching; Lay Ministers of Evangelism; Lay Ministers of Pastoral Care, etc.

The designation, "Lay Pastor" identifies one whose ministry is pastoral care; "Lay evangelist" identifies one whose ministry is evangelism; etc.

Eph. 4:11-12 speaks about training people for ministry(the genus); Rom. 12:2-8 speaks about doing specific ministries(the species, such as prophesying, serving, teaching, etc.)

The problem arises from one of our large churches adopting our model of lay pastoral care but not the designation, "Lay Pastor." They used the general term, "Lay Minister." Churches which have been influenced by them use that designation. That church is Frazer Memorial UMC in Montgomery, Alabama. You recognize the names, Earl Andrews and Marie Parma. They are on our board and have been personal friends for years. There is

no problem calling laity, Lay Minister, except that the term is not clear.

It is like speaking of you as a human, your wife as a human, your son as a human, rather than speaking of you as a man, your wife as a woman and your son as a male. If I had not met you in St. Louis, I would think of you as a human but wouldn't know if you were a man or a woman. Likewise if a person is a "Lay Minister," you don't know whether he is evangelist, a teacher, an administrator, a worship leader, a pastor, a pastor-teacher, etc.

Melvin Steinbron

이제 교회에 대해 얘기해 보려한다.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적어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적을 것인가? 울겐, 피아노, 강단, 의자, 스테인 유리의 창문, 큰 십자가, 헌금통 등등.

중세시대에,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종종 있었다. 그때에 신학자들중에 어떤이는 교회는 계급조직 또는 성직제도였다고 대답했다. 1500년대에 마틴루터는 그런 정의에 반대했다. 확실히 성직제도는 교회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교회를 가지기 위해 루터는 다음의 것들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믿었다: (1) 올바르게 설교되는 말씀, 그리고 (2) 올바르게 시행되는 성례전. 루터보다 좀 이후에 쓴 존칼빈은 여기에 세번째를 덧붙였다. 그는 강조하기를 크리스찬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시행할뿐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가지기 위해 [훈련]을 가져야한다고...

역사를 통해 다른 것들이 그 리스트에 덧붙여졌다. 우리는 교회를 가지기 위해 몇가지를 더 생각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상호목회(mutual ministry)를 덧붙일 필요가 있다.

"교회"를 가지기 위해 우리는 다음을 가져야한다: 1. 설교; 2. 성례전; 3. 훈련; 4. 상호목회

다른말로, 진실한 교회의 표시는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전을 잘 시행하고,

훈련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이다. 목회에 대해 우리가 의미하는 바는 몸 안에서 또는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헨드릭 크레머는 이렇게 썼다: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목회나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has) 있는가가 아니라, 근본이 목회이어야(is) 한다."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신약성서에서 서술하는 교회는 바로 목회(ministry)이다.

교회의 역할을 잘 설명하는 신학의 분야는 교회론, 또는 교회의 교리이다. 만약 우리가 평신도를 포함하여 알맞은 신학적인 시스템을 가지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론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텐데 종종 위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평신도의 엄청난 중요성인데 그들은 그 자체에 대한 교회의 생활속에 결코 실제로 신학적으로 적절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평신도목회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 즈음에, 우리는 동시에 새로운 교회론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평신도에 대한 우리의 신학이 맞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목회이며, 그리고 제대로 이해된다면, 교회의 놀라운 표시 중의 하나는 그 자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목회이다—그것의 멤버들에 의해서(by)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for).

교회는 어디로부터 목회를 유출해내는가? 그것은 누구로부터 이런 중요한 소명을 받았는가? 목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이 생겨진다. 신약성서속에서 목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 리차드 헤링턴(Richard Harington)은 이렇게 썼다: "교회는 목회이다; 사실, 교회가 예수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은 목회가 되어야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아니라 목회를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목회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하게 말했다. 그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왔다"(막10:45). 우리가 알고있는 "목회라는 단어의 희랍어가 디아코니아(diakonia), 즉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예수님이 말씀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6-27). 간단히 말하면, 목회(ministry)란 종(servant)이 되는 것이다.

켄 메드나(Ken Medena)가 쓴 더 게더링(The gathering)이라는 노래 제목으로 쓴 음악의 글귀를 보자:

교회가 교회일 때에 그것은 그의(His)사람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임재보다도 많지도 적지도, 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은혜의 의미의 한 부분은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안에 있는 그리스도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제사장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

만약 우리가 교회라면, 내가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내가 그런 것처럼 당신은 나의 눈물, 나의 분노, 나의 죄를 이해할 것을 알고, 뭔가 그리스도는 당신의 눈으로서 볼 것이고, 당신의 손으로서 나를 터치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치료할 것을 믿는다.

만약 우리가 오늘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분의(His) 대리자들이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을 계속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목회를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아야한다. 사실, 우리는 거울을 통해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계속되는 이런 목회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닿으려고 다가 갈 때에 우리는 우리자신이 첫째 교회안에서 다가가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교제의 한 부분인 그들에게 특별하게 닿는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아주 알맞은 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제사장"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에게 "제사장"이다. 우리는 서로가 제사장들로서 기능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목회를 계속하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닿게되는 두 번째 방향이 있다. 우리는 단지 교회안에서 만 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속으로 닿게 된다. 수년전에 유행가 가사가 이런 것이 있었다: "어떤 다른 사람의 손에 닿아서 터치하라;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을 더 낮게 만들라."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는 그런 말을 약간 바꾸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다른 사람의 손에 닿아서 터치하라./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 예, 그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닿는가? 우리가 한다. 그러나 그 삶에 실제로 누가 터치하는가? 그분이 한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터치한다.

영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돌봄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 그것이 바로 평신도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 그것이 바로 로저 코펠랜드(Roger Copeland)가 "당신의 이웃에게 다가가라"라는 제목의 노랫말에서 쓴 것이다.

당신의 이웃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정말로 돌보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그가 외로울 때에 다가가서,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라. 구름이 그의 앞을 가리 울 때에 그의 어두움 안에 다가가라. 그와 함께 걷고, 그와 함께 말하라.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는 모델은, 비록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여 질지라도 영향력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약점은 평신도로 하여금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들의 삶이나 교회의 선교에 있어 참여자이기보다는 방관자로 있게 한다. 이것은 교회가 축구경기처럼 되는 것과 같다. 운동장의 22명은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하고, 스탠드에 있는 7만명은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한 것과 같다.

21세기와 다음세기의 효과적인 회중을 위해서는 새로운 실질적인 축구경기가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평신도는 필드에서 선수로써 뛰어야겠고 목회자나 교회관계자는 코치로써 경계선(sideline)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순간, 평신도들은 자신에게 묻는다. 내가 사역팀

과 함께 필드에서 뛰는 것이 적당하겠는지, 과연 나를 믿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교인들이 내가 흠어진 교회의 일원으로써 예수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과연 나를 지지하는지를 말이다.

제4장: 신약성서의 교회

목사의 직위(office)는 교회안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인식은 불행한 생각인데, 이유는 그 생각은 크리스찬들을 두 계급으로 만들면서 양분시키고 말기 때문이다: 즉, 평신도와 성직자.

이런 잘못된 근원은 교회가 신약성서 "몸(body)"의 모델에 머무르는 대신에 로마제국의 군주적인(hierarchical)구조를 채택한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개발들은 어떻게 세속적인 문화가 크리스찬 문화를 묶어 매느냐하는 것을 입증해준다. 이 묶어 매는 것이 가끔은 축복일수도 있지만, 또 종종 저주가 되는 것 이기도하다. 이런 경우에 그것은 저주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군주적인 모델이 "몸(body)"의 모델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몸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데에 대한 다음의 서술은 처음에는 강조되었지만,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강조되면서도 또한 약해졌다.

"이뿐 아니라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 하사 몸 가운데에서 부정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데에 여러 가지 계급(multi-level)의 '군주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모든 성도가 동등(every-member-equal)한 "몸"의 방법으로 대치하

면서, 그런 군주적인 묶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통적인 교회는 이런 두가지 계급(two-class)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왜곡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봉사하기 원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교회)를 떠나서 신학교에 가서 안수 받고 개 교회들의 담임목사들이 되도록 잘못 인도하는 실수를 하고 있다.

1950년대에 와서야 교회는 하나님의 일(God's business)을 하는 데에 더 나은 방법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것은 목회에 대한 성서적 모델을 다시 발견하면서부터였다. 에베소서4:11-12절은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데에 목사들이 참여함에 대해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상황과 다른 성서들이 그것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데, 모든 크리스찬은 사역자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단들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재발견에 참여하는데 그 결과는 적어도 두 번째 종교개혁 이상이다.

첫 번째 종교개혁에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었다. 두 번째 종교개혁에서 교회는 사역을 사람들에게 준다. 교회는 다시 계급이 없는(classless) 교회가 되는 것이다 평신도와 성직자의 불평등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laos)의 동격(parity)에 의해 대치되는 것이다.

우리가 전수받은 교회가 어떻게 성직자와 평신도와 군주 사이의 이런 분리에 도착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발자국들을 다시 따라가 보는 것(retracing)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여정을 수정하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답은 구약성서에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만든 다섯가지 원인을 추적하여 봄으로서이다(멜빈,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

제사장들의 특별한 직책(order).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적인 직책(직위)은 제사장들을 나머지 성도들과 분리 시켰다. 그들은 의식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을 대표했으며, 그리고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들을 위해 사람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은

제사장들이다. 신약성서는 제사장들의 직책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런 직책을 끝냈다(히:4-5장을 보라).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벧전2:9). 모든 크리스천은 목회를 위해 은사가 주어졌다.

한 직책, 많은 기능들. 평신도와 목사 사이에 차이점들은 직책(order)이 아니라 기능(function)이다. 교회에 대한 베드로의 정의-"왕같은 제사장직"-는 단지 한 가지 직책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직책은 제사장(또는 목회자)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다양한 기능들에서 그것을 주셨다.

새로운 직책, 성직자. 불행하게도 두 직책의 변화(change)는 교회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들 중에 하나인 A.D. 312년에 있는 콘스탄틴의 칙령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때까지 교회는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 받아왔다. 그러나 A.D. 312년 10월 28일 꿈을 꾸는 동안에 황제 콘스탄틴은 "이 표로 정복하라"라는 말과 함께 하늘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다. 그래서 그는 정복했다.

믿는자들의 제사장직에 대한 재발견. 가끔 교회는 군주적인 것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부터 그 자체가 자유로워지려고 애쓰기도 한다. 마틴루터에 의해 인도된 16세기의 종교 개혁은 단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재 발견한 것이 아니라, 또한 '믿는자들의 제사장직'도 재발견 하였다. '제사장직'이란 두가지 역할들을 포함한다: 1)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리고, 2)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목회자'.

신약성서시대에는 전임목회(full-time ministry)에서 성직자(또는 크레로스)와 평신도(또는 라오스) 사이에 구별이 없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들 자신이 사역자요 그리고 구세주(Savior)를 위한 증인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언제인가, 어디서부터인가 사람들은 성서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규율과 구별을 두기 시작했다. 많은 지도자들이 어떤 모델로 결과를 가져오는 새로운 규율을 채택하였는데, 오늘날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보는바 평신도는 돈 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

중하고그러나 다른 것에서는 별로 하지 않는 것이 기대되어 왔다. " 모든 믿는 자는 사역자(목회자)"라는 개념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하려고 기대하며 목회에 임하는 많은 교역자들에게는 새로운 것이다.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주의 일을 해야 하고 평신도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합법적인 이유는 없다.

우리가 믿기로 교역자가 이런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세워주는 자(촉진자: facilitator)가 된다면, 그동안 많은 일은 교역자의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평신도를 훈련시키는데 한층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양쪽이 결코 과거에 해오던 같은 방법으로 결코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16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목회에서 그를 도운 다양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중의 많은 이들이 비록 그들이 교회안에서 능동적이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오늘날 교회안에 있는 평신도로 분류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그들이 평신도였는지 "목회자"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신약성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다른 분류들이 눈에 띄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목회은사를 주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은사를 활용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고전 12장에 보면 우리는 다양한 은사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 이 은사들은 지혜, 지식의 말씀, 믿음, 치유, 기적, 예언, 영 분별,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은사들뿐만 아니라 같은 성령이 이런 모든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더 나아가 은사의 활용과 작용은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은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몸 전체에 퍼져있는데, 우리는 전체 몸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면서 서로가 동역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허락해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몸의 개선을 위해 우리의 독특한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려(exercise) 하지 않는다면 몸은 고

통을 받는다. 이것이 소위 바디 모델(body model/지체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들어, 만약 발 중의 하나가 걷기를 거부한다든지, 손이 무엇을 잡는 것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입이 열리는 것을 거부했다면 신체의 몸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몸은 어떤 작은 것이라도 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님께서 의도한대로 몸 안에서 성도들이 그들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 평신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God-ordained) 은사를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to release)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에베소서 4: 6, 7절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다음에 8절을 보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이 이하의 본문에서 그런 은사들은 그가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목회은사라고 불리는 이런 은사들은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주어진 각 은사가 혹은(some) 이라는 말로 시작된 것에 주목하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은사들은 몸 전체사이에 나누어져 있으며, 어느 누구도 그들 모두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교회가 현재와 미래에 단지 살아남기가 아니라 번영(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도록 풀어주는(to release)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은 에베소서 4:12-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설명해준다. 근본내용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몸을 "온전케 하거나" 또는 훈련시키도록 목회은사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교리에 굳건히 설 때에 성숙하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에야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동역(working together)할 수 있으며, 각 멤버는 전체 몸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교회가 신약성서 모델로 돌아가서 목회를 위해 전체 성도를 준비시키는 그런 교회를 상상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회할 수 있게 되겠는가? 대답은 '무제한'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들에 부응하고 싶어하는 사역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목사와 평신도가 목회에서 동역하는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있다.

제5장: 교회 정체

평신도 사역의 분야에는 왜 좀처럼 진보가 없는 것일까? 지난 5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구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을 강조하는 책들과 다른 자료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책이나 자료 외에도 이 주제에 관한 세미나, 비디오, 강의 테이프,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목회자들에게 평신도 세우기를 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모든 성도들이 사역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성경의 진리가 생명을 잃게 되며, 비 전략적인 리더십 배치와 아울러 자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버리게 되며, 그 결과 세계 복음화는 여전히 달성되지 못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비하면 실제 교회에 미친 영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 같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목회자들은 평신도를 세우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성경 진리로 인해 가슴이 뜨거워진 평신도들 역시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하지만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평신도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분주한 일들을 보면서 자신은 半(반)실업자라고 느끼고 있는 반면, 목회자들은 혼자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한다고 느끼고 있다.

사역에 참여하는 기회가 적은 평신도들과 반면에 많은 사역으로 인해 지쳐 있는 목회자들이 동역 하는 것이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성도들을 교회 사역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아무 일이나 무조건 맡긴다고 되지 않는다. 모든 평신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들이 있다. 김스와 모턴에 의하면 이미 정체되어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두 가지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그 변화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한다. 정체된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열거된 것과 같이 시스템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선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다.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 구상에서부터 밤에 교회 문을 잠그는 것까지 이 모든 일들 때문에 자신들이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다. 동기 부여가 안된 평신도이다. 목회자가 평신도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는 하지만 동기까지 부여할 수는 없다. 평신도들은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이어서 여전히 자기들 스스로 사역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목회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리더십의 소진이다. 목회자들은 자신이 소진하게 될 때 자책감에 빠진다. 성도들 역시 목회자들을 책임 추궁하지만 사실 실의에 빠진 목회자의 모습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결국 목회자의 의욕 상실은 교회 내에 있는 뿌리깊은 문제가 표면화 되어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반복되는 문제들이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무대에는 배우들이 바뀌며 새로운 무대가 설치되지만 문제들은 반복해서 끊임없이 나타난다. 교회의 분열은 멈출 줄 모른다.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끼친 부정적인 사고와 분위기는 그들이 떠나거나 죽은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내부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시야가 안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선교보다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선교를 헌신된 자세가 투철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국한된 사명이라고 본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 성도들의 은사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목회를 성역으로 만들어 놓고 성도들이 침범하

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평신도의 역할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교회 제도가 평신도들이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으로 물러나 있게 만들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평신도 사역을(엡 4:11-12) 소홀히 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들간의 아름다운 동역이 필요하다. 교회는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는 유기체적인 변화이다. 그러면 유기체적인 교회를 살펴보자. 유기체적인 성격을 가진 교회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전체성(wholeness), 공동상승효과(synergy), 유질동상의 원리(isomorphism) 들이다.

전체성 원리는 시스템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체성 원리(wholeness)가 말하는 것은 부분들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로 합쳐 질 때 살아 있는 유기체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 가정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유머가 있는 가정이라든지 혹은 진지한 가정, 열심히 일하는 가정, 잘 놀 줄 아는 가정 등으로 설명된다. 교회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자유스러운 분위기라든지, 경직되어 있다든지, 상한 교회라든지 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지도자들은 멤버들이 해야 할 것을 말로 하기보다는 그들이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관찰한 것 중의 하나는 '한 사람 중심의 리더십 스타일'은 평신도를 세우는 다른 리더십 스타일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 안에서든지 목회자와 성도들의 조화가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언급하겠지만 목회적 만남에 관한 것은 시스템 이론으로 설명된다.

일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른다. 불화 중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이다. 불화의 불씨는 교회 시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몇몇 가정은 이미 교회를 떠났고 다

른 가정들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의 목사님은 그 교회에 온 지 2년이 채 안된 상태였고 이 기간 동안 교회의 평화스런 분위기가 산산조각이 나 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분열 상태에 이른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교회를 관찰하면서 분열의 원인을 감지 할 수 있었다. 분쟁의 주된 원인은 목사님의 지도력에 있었다. 양분된 교회에서 한쪽은 목사님을 지지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목사님께 반발하고 있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편 의견은 들어보면 이들은 목사님이 열심히 일하고 비전이 있고 민감하다고 칭찬하였다. 반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목사님이 독재자인 양 군림하고 성도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권력에만 목말라 하고, 둔하고, 자기 중심적이라고 불평하였다. 같은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목회자를 놓고 이렇게 천차만별의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이 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과거 목회 경력을 살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이 교회에 부임해 오기 전에 세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오래 머무른 편이었고 성도들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였다. 문제는 이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의 스타일을 바꾸지 못하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자신의 목회 스타일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과거 오랫동안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의 스타일이 새로운 교인들은 많이 끌어 들였지만, 그동안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겨 온 성도들과 새로운 교인들 가운데 충돌의 불씨가 싹트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의 스타일에 불만을 품고 반발하게 되었다.

이 목사님의 실수는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가 전에 섬겼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목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 경험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시스템이론에서 볼 때 이 교회와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는 이런 실제적인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리더십 스타일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알고 있으면 유능한 리더와 목회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다. 지도력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의 상황에 따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문제에 빠져 고민하는 목회자들이나 평신도 지도자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복미 개신교 목사 중 58%가 그들의 사역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때로 헛수고라고 느낀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목회자나, 혹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모임에 참석해 보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사실은 [신학교 연합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목회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12%이상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맡겨 주신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외의 것에서 더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솔직히 인정하였다. 교회는 정체되었으며, 교회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이 정체되었음을 느끼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목회자나 장로 혹은 당회 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회의 시스템과 연관된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제6장: 시스템 이론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전체는 각 부분의 합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 인간의 신체야말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신체 기관과 각 부위는 서로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어서 상호 의존적이며 한 기관의 건강 상태는 다른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장병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신체는 제 각각의 기능을 가진 부분들의 집합이라기보다 그 이상의 일을 하는 신비스러운 유기체이다.

시스템 이론가들은 가정이나 사회 집단이 부분의 합 이상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전체성(wholism)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가정 치료사들은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일어난 문제는 가족 전체의 문제라고 보면서 가족 전체를 치료 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목회자들도 성도 개인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보아야 한다. 현재 서구 사회의 주장과는 반대로,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이다. 목회자들은 종종 성도들의 이름을 성도 명부에서 찾아가며 성도 각 개인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컴퓨터로 인쇄되어 나온 목록만 가지고는 성도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는 이 명제는 수 십 세기 전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주창되었지만, 이제 이것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이론이 목회 사역에 대하여 시사하여 주는 바는 '목회자는 단지 개인만을 다루기보다 교회의 문화와 시스템적인 조직으로 보면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고 나이든 목사가 가까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젊은 목사에게 물어 본 적이 있다. 그때 그는 그의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낙심하여 조언을 구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늘어 놓으며 불평을 했다. 특히 그는 성도들이 헌신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중요한 일을 맡았던 성도들도 이미 교회를 떠나 버렸고, 교회 밖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이 질문은 4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겨 온 목회자에게 묻기에는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린다. 그러나 그보다 목회 경험이 많은 목사로서 그의 교회에 대하여는 그 목사님보다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예,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 "만일 당신이 당신 교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면, 당신 교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문화(culture)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단지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시스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길 건너 있는 교회와 다른 점은 무엇이고 당신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는 그 교회가 가진 장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교회에 대하여 낙심하고 있었지만, 비교적 만족하고 있는 편이었다. 그런데

그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 보았다. "한마디로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헌신 부족이지요"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는 다시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볼 때 당신 교회는 상처 입은 교회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세심하게 돌봐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헌신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를 상처 입은 교회로 볼 수 있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교인들에게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시스템의 변화 없이 개인에게 변화를 준다는 것은 어렵다.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조직의 구성원들은 상호 의존해야 한다. 공동 상승 작용(synergy)라는 용어로 풀이되는 이 공동 상승 작용은 개인이 혼자 일을 할 때보다 조직 속에서 일을 하게 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 상승 작용은 두 가지 약품을 함께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이다. 이것은 치료에 치명적인 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효능을 몇 배 상승시키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 상승 작용은 조직이 함께 작용할 때 그 구성원들에게 몇 배의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현상을 잘 설명해준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상인 것이라는 결론을 얻어내게 된다!

가장 가까운 예로 결혼을 들 수 있다. 얼마 전 한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신랑 신부가 그들의 정체성을 붙어 없애 버리려는 것을 보았다. 신랑 신부는 각자 자기 초를 붙잡고 다른 초에 불을 붙였다(결혼 관계를 상징함).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초가 타도록 놓아두는 대신에, 자기들의 초를 꺼버림으로서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표현하였다. 일어나서 소리지르고 싶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끄지 마십시오! 둘이 합쳐서 전체를 이루게 될 때 더 나은 '당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침묵하고 있었다. 그러나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 지어다" 라는 말을 들은 후로 그 한마디가 내 속에서 가만있지 않고 내게 물어왔다. '어느 쪽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스템과 연관

된 질문이다.

가정과 교회는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아상을 찾지 못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가정에서 독립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아상을 세우지 못한 사람) 교회에서도 적응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성을 잘 맺지 못하여 주변인이 되며 정도가 심해지면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게 된다. 어떤 목회자는 계속된 방향으로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닌다. 그들의 변명에 따르면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나 교회 내의 권력 다툼 심지어 "하나님의 인도"로 자주 옮기어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교회의 조직에서 자신의 기능을 감당하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데 있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교회를 옮긴다. 왜냐하면 교회에 계속 남아 있으려면 가정에서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우리 중에 "아픈 발"이 있다고 신호를 보낼 때 평신도와 목회자는 건강한 지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역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스템 이론의 또 다른 측면을 보자. 유질 동상이라는 용어로 불리는 현상은 본질적인 성격은 다르지만 같은 행동 양식을 보이거나 구조적 유사성을 보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 유사한 목표, 동기, 신앙, 행동 양식을 가진 가정과 같은 소 조직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소규모 모임이나 하위 조직은 (소그룹, 동기 모임, 교회 내의 가정) 두드러진 공통점을 보인다. 이러한 조직들은 마치 배가 심한 타격을 받은 후에 다시 제 위치에 돌아오는 현상처럼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항상성)11)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은 예배의 순서를 바꾸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 했다. 이에 대한 노력 중 한가지는 미리 준비된 기도와 즉석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순서를 만들어서 성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한달 동안 휴가를 간 사이에 장로들은 다시 예전 방식으로 예배를 인도하였다. 다시 배가 제자리로 돌아 온 것이다! 이 예화에서 볼 수 있듯 깊게 자리잡은 오래된 관습 때문에 교회는 다시 편안하고 안일하게 돌아오게 된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목사님에게 폐회 기도를 부탁 받은 한 집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목사님께서서는 이런 일을 하시라고 사례비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 교회, 집단의 환경이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그 조직이나 지체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조직 내에서의 변화를 주기 위한 운동이나 캠페인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장 잘 쓰인다.

시스템 가족 이론에 따르면 현대 가정 문제는 지나간 세대에서 풀리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와 종종 관련되어 있다. 이점은 교회 내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를 떠날 때 제대로 이별의 아쉬움을 느끼지 못했던 목사님의 '유령'이 불쑥 나타나거나, 30년 전에 일어났던 교회 내의 불화가 갑자기 표면화되어 교회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우선 20세기에 들어서 시스템 이론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 이론의 발전 과정을 보면 우리가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알 수 있다.

1920년대 생물학에 종사하고 있던 루드위그 본 버탈란피(Ludwig von Bertalanffy)는 살아 있는 유기물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적인 방법을 가지고 연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생물학적으로 유기물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으로 받아 들여져 왔던 뉴턴의 접근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뉴턴식의 과학적인 사고에 의하면 물체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의 합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뉴턴의 가설에 따르면 전체는 부분의 합이므로 부분만 보아서라도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버탈란피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유기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결론짓게 되었다. 그의 업적은 수세기 동안 계속 연구되었지만 틀이 잡히지 않았던 시스템 이론을 체계적으로 세워 놓았다는 것이다. 이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전체나 혹은 부분을 볼 때 [서로의 상호

연관성을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고는] 둘 다 제대로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체가 부분들을 모아 놓은 집합이라고 보는 뉴튼식의 사고에서 전환하여 이제는 부분의 합보다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유기체는 복잡한 성격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설명하면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버탈란피는 1940년대 중반부터 발전한 이 시스템 이론은 매우 수학적이고, 현대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매우 정교한 이론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현실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 이론은 최근 들어서 교통 문제, 국가 경제 문제, 우주 개발 문제, 경영,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이 이론은 이미 과학 분야에도 널리 보급되어 있어서 대단위 유기체와 같은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최상의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타임지와 같은 세계적인 저널도 공공연하게 이 용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일본 주식 시장의 주가 하락에 관한 기사를 살펴보자.

“세계 경제 구조는 이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한 쪽에서 가려워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굼어준다”. 이제 경제부 장관들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이 은행의 차관률과 같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최근에 와서 체계 이론이 신학에도 적용되어 목양법이나, 목회자의 지도력에 관한 저서들이 출판되어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평신도목회(lay ministry)에 관한 것이다. 심지어 이제는 영성이나 성경의 해석까지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이 이론이 가정 치유에는 최근 들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스템 이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회과학 분야에는 큰 진보를 이루었으며 특히 가정 치유의 분야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가정시스템 이

론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기에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획기적인 이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시스템 이론이 가정 치유에 적용되기 전에는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가족들의 관계는 독립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이론에 의하면 가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서적인 단위가 되고,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은 직접적으로 가족들의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제는 일반 상담원이나 목회 상담원 모두 가정 시스템 이론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조직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운다. 이 이론은 가정 치유에서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의 예방 가정 사역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가정 사역에 관한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개인주의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서구 사회에 중요한 대응책을 마련해 준다.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할 두 번째 원리는 공동상승효과 원리(synergy)이다.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공동상승효과는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일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원리이다. 각자 따로 일하는 것보다 두 명이 함께 동역 할 때 더 많은 일을 성취해 낼 수 있다. 가정과 교회는 구성원들이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이러한 현상이 공동상승효과 원리로 설명 될 수 있다.

공동상승효과 원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도 일치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피차"라는 용어를 자주 반복하면서 교회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는 윤리적인 면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거의 언제나 이 단어를 사용한다. 그는 24번에 걸쳐서 이 말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피차 복종하라', '피차 짐을 지라', '피차 사랑하라' 는 구절을 들 수 있다. 목회자와 성도간에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성도들과 자주 만나서 함께 일하고 서로의 짐을 대신 지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갈등은 피하고 성도들이 가진 은사들과 잠재력을 인정해주고 복돋아 주어야 한다. 지도자의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성도간에 조화가 있어야한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성도들은 지도자가 그들에게 맞추어서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목회자와 교회는 유질동상의 원리(Isomorphism)에 따라 서로 연합하고 힘을 다해 합해야 한다. 조직들간에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구조적 유사점이 있듯이 목회자와 교회는 그들의 신앙적 목표, 비전, 형식면에서도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동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질감은 그 가정이 처한 상황에 맞게 형성된다. 보강 효과(complementary)는 가족들간의 의견 대립이나 가정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 나갈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결혼 가정들이 원만하게 합쳐지게 될 때 보강 효과가 나타난다.

영적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대표자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한마음을 가지고 동역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들간에 공통된 비전, 가치관, 세계관이 있어야 한다. 영적 지도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교회와 분리되지 않고 그들과 동일한 사고, 철학,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한다.

어떤 목회자들은 겉으로는 '내가 섬기는' 교회 '나의 성도'라고 말해서 마치 일체감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지도자로서의 권세와 명분만 즐기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남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아픔과 희생이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를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준비시키려는 목회자는 교회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도들의 수준으로까지 낮아져 섬겨야 한다. 자신이 세워 놓은 계획을 일단 유보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지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 그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

평신도목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주된 원인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 성도들을 훈련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설교하고, 여러 소모임을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운용하고, 교회 내에 학교까지 만들고, 세미나와 훈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프로그램들을 거부하며 목회자들 또한 자신들이 거부당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를 거부한 것은 목회자 자신이다. 목회자들은 분노에 차서 교회의 분위기가 바리새인들 같이 경직되어 있고 순종할 줄 모르며 성령의 인도하심도 따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교회라고 비판한다. 그들이 구상했던 프로그램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의 한 부분이 된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이 시작한 목회는 그의 승천 때에 끝난 것이 아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계속된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이야기의 두 번째 책이다. 복음서는 단지 예수님께서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의 이야기였다. 예수님의 지상 삶은 단지 끝이 아님을 아는 활동의 시작이었다." 당신과 나는 예수님이 시작한 것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 마틴루터는 그것을 "당신은 작은 예수이다" 라는 단어로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였다.

2천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인격속에 인간이 되셨다. 이 사건은 성육신이라고 불리웠다. 카네(carne)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스페인어와 같은 어떤 언어에서 그것은 "고기(meat)"를 말한다. 다른 언어에서 그것은 "살코기(flesh)"를 말한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육신이 된 것(en-flesh-meat)"를 의미한다. 하나님 자신은 인간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갇혀있는 그들 안에서 사역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성육신은 오늘도 계속된다. 하나님은 인간 육신속에 계속 살고 계신다.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독특성을 알고 있다. 동시에 성육신이란 것이 당신과 나 안에서 계속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꼭 중요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그의 교회 안에서 계속된다는 사도행전의 전체교훈이다." 예수님은 그가 한때 있었던 그런 방법에서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그의 사역을 계속한다. 어떤 사람이 썼듯이 "예수님은 단지 불멸의 이름과 영향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활동적이고, 아직도 능력이 있다. 그는 과거의 그가 아니다; 그는 지금의 그이며,

그의 삶은 지금도 계속된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성육적인 신학 (Incarnating Theology)이라고 부른다. 성육적인 신학은 이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가서 터치 할 때에, 실제로 터치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터치하시는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우리의 목회에서 다른 사람을 터치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터치하는 손은 우리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손이다. 어떤 의미에서 성육신은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것이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선택하시는 것이다.

로마(Graeco-Roman)사회에서는 행정적인 조직에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하나는 라오스(보통사람/the people)이고 다른 하나는 크레로스(행정장관/the magistrate)이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라오스를 하나님의 전체백성이라는 독특한 계약범주로 바꾸어 놓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사람'(행 15:14),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한 몸 안에서 화해된 것으로(엡4:16, 골 3:15) 표현한다.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범주들에 의해 문화적응에 대해 많은 논쟁들이 있긴 했지만, '평신도'는 세상의 소금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성분(요소)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계속 유혹되어왔다. 그것의 순례적인 본질은 물질주의와 성공일변도 세속적 타락에 의해 위협받았는데, 라오스는 아직도 그분이 모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유안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시내산에서 구속적인 모임안에 사람들을 구성한 것인데, 그것의 모습은 하나님의 큰 축제의 모임에서 이방인의 모임이고(이사야 2:2-4; 56:6-8; 시87), 미래는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실제화되고(히 12:18-24), 교회는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마지막 모임 때까지(살후 2:1) 모임속에 모이게 될 것이다(고전 11:8; 14:26-28).

그러나 또한 모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성서적인 묘사에 대한 필수적인 것은 이제 돌의 성전(temples of stone)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모이는 자들, 여행하는 자들, 흩어진 공동체로서 라오스의 이미지인 것이다(행 7:44-47). 그들은 그 자신이 "거룩한 제사장직을 위한

영적인 집으로서 세워질 산돌"인 것이다(벧전 2:4-5). 시내산에서 "사람들의 가운데에서 사람으로서 제사장직 역할을 이루라"고 부름 받았으며 열 왕국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부름 받았을때(출 19:6), 그 부름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권위 안에서 갱신되었다(마28:18-20).

"넓게 퍼져있던 12지파"처럼(야1:1; 벧전 1:1) 새로이 넓게 퍼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온 족속에게 선포하도록" 헌신된 사람들이다(눅 24:47).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들을 흠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그의 새로운 이스라엘을 모으신다(행 1:8).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왕국에 의해 시작되는 마지막날에(고전 10:11; 히1:2),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세주의 구속사적인 죽음에 의해 이미 시작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는 것이다(눅 9:31).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출애굽 사역은 성직자계급을 향한 신학적 또는 문화적인 것이 아니다. 오순절때에 성령은 주님의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적인 목회를 위해 세례주었다(행2:4). 하나님의 새로운 신정제국에서, 증인을 위한 성령의 은사는 단순히 사사(삿 3:10; 6:34; 15:14)나, 왕(삼상16:13)이나, 선지자들(삼상 10:6; 벧후1:20-21)에게 해당되었다. 디아스포라(Diaspora)의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은 선지자가 될 것이다(요엘 2:28, 행2:16-21). 즉 성령의 부어주심에 대한 이사야의 약속과 주님의 이름의 고백은(사 44:3-5) 선포의 선지자적인 직책으로서 실체가 되고 하나님의 전체 백성의 중심적인 직책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천막제조자, 루디아와 같은 상인, 브리스길라/아굴라와 같은 장사하는 사람-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을 정도로 위협을 주는 사람들이다(행 17:6). 평신도의 권리는 평신도의 의무(책임)의 측면에서 정의되었지 전문적인 훈련 또는 월급받는 고용의 측면에서 된 것이 아니었다.

교회안에서 직책이나 더 나아가서 월급 받는 직책들이 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은사의 향기는 그런 은사들이 행사되는 곳에서 정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직책들 안에서, 그것이 과부의 것

이든지(딤후 5:3), 또는 지도라는 장로이든지 "명예(존경)"는 수여하는 것 이상이다.

평신도사역자란 누구인가? 서방문화에서는 제 3세계와 함께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리더십 개념이었고; 또 하나는 일단의 그룹인데 전체 교회의 사역, 믿는자들의 일반적인 직책의 실행으로부터 사역을 줄이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목회(사역)"는 교회관리들, 행정가들, 고관들, 권위자들을 위한 제 3세계 동의어가 되 버렸다. 이 패턴은 앵글로색션(Anglo-Saxon) 세계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규율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고관직이 아니라 제자화를 근거로 한 섬김(service)이다(Hans Kung, The Church, 1967). 성령에 의해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신 카리스마(Charisma)는 봉사라는 개념과 구별지을 수 없다.

제7장: 평신도의 신학적 위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무슨 임무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 하나의 믿음의 백성과 이 백성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온 인류를 염두에 두셨는데, 이 때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게 복을 내릴 임무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복과 임무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성서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성서의 시대와 교회사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Laos)'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의 백성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백성, 유랑하고 순례하는 백성이다. 물론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 나타났듯이, 어떤 저 먼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저기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바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있으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곳에 오라고 초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안에서는 어떤 신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카톨릭 신학자 한스 쾅의 말대로, 직분을 맡은 교역자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며, 그렇다고 성도 하나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다. 교회에 소속된 모든 자들 즉 남녀노소, 신분과 계급, 직분과 은사의 차이가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기능과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이 차이는 차별이 아니며, 이 구분은 구별이 아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같은 백성이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성직자-평신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풀러-그레그옥덴/리젠트-폴스티븐스). 모두가 다 제사장이요, 종교개혁자 마틴루터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사제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교황과 감독, 사제를 중심으로 위계적-계급적 질서를 이루고 있는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며 종교개혁을 할 때 재발견한 '모든 성도의 만인사제직'이라는 진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신약성서 시대에서는 교회론에 하나의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즉 예수님은 교회를 새롭게 소집하셨다. 그분은 옛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병들고 흠어져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백성을 치유하고 갱신하고, 이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무리를 모으셨다. 그 중에서 12명을 택하신 것은 바로 상실된 이스라엘의 사명을 회복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분은 온 몸을 다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섬기시고, 끝내는 그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려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면서까지 인류의 구원과 교회의 소집을 위해 헌신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와 교회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소집, 갱신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형성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모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온갖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를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세우시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지체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으며(성직자-PTEM/평신도-PACE), 또 한 지체가 모든 일을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의 임무를 획일화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직분이 독주하거나 일방적으로 통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카톨릭 교회에서 교황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개신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교회를 마음대로 주장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임무를 모든 지체에게 고루고루 나누지 않고 어떤 자가 독점하려고 하든지, 또 교회가 해야 할 다양한 임무를 억압해서 다른 임무와 그 임무를 맡은 자를 억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모든 직분과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섬기고 봉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과 우주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 아니라 지배의 직분이 아니다. 지배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 사탄의 영에서 나온 것이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작은 자가 위대한 자이다(Melvin).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서 동등히 섬기고 동등히 대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쟁이나 분열이 없도록 해야 한다.

21세기 미래사회의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동역(James Garlow)이 크게 기대될 것이다. 이전 시기에서는 교회가 거의 목회자의 역량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도적인 목회자보다는 평신도의 활동에 의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크게 좌우되리라고 예견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하고 평신도의 은사들을 개발하여 이들의 역량을 목회에 최대한도로 적용하는 새로운 목회-교회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제8장: 평신도의 잠재력

평신도(laos)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최고의 존엄성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벧전 2:9-10). 평민에 해당하는 즉 성직자와 구별되어 '일반 백성에 속하다'는 의미의 일반적인 헬라어 라이코스(laikos)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주후 95년에 로마의 클레멘트가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교회를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인 '에클레시아'(ekklesia)는 모인 백성의 의미를 가진다. 회중이라는 단어에도 '에클레시아'의 의미 중 일부가 담겨 있다. 이 말은 또한 회중 공동체 안에서 사역의 보편성을 보증한다. '모인' 혹은 '함께 부름받은' 백성을 형성하는 '부르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엡 4:1). 신약 성경에서 목양(pastoral care)은 '성도 상호간의' 책임이고, 회중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의 일부분이다.

중요한 영적 부흥은 모두 신약 교회의 비전이 불을 붙였다. 이 비전의 중심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하려고 성령이 일으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다. 이것은 침례교 운동, 영국 감리교 운동 그리고 플리머스 형제단(Plymouth Brethren)의 경우에도 사실이다. 개신교 종교개혁 이전에도 다양한 부흥 운동은 이 평신도 원리를 되살렸다. 중세동안, 세속화된 교회와 복음의 순전함에 대한 갈망은, 평신도들이 [평신도 원리와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카타리 파, 왈도 파, 롤라드 파들은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참된 기독교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평신도 운동이었다. 유럽 대륙과 영국 모두에서 종교개혁의 추진력을 제공해 준 사람들을 살펴 볼 때 종교개혁은 일반적으로 평신도 운동이었다.

참으로 교회사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평신도들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역사에서 자력으로 신학자가 되었던 평신도 중 가장 돋보이는 인물이다. 그의 유명한 「기독교 강요」는 성직자나 신학자의 작품이 아니라 평신도의 작품이었다. 17세기의 번연(Bunyan), 밀턴(Milton), 라이프니츠(Leibniz), 그리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같은 평신도 신학자들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다.

모라비안 형제단 (Moravian Brethern)에게 영향을 받은 평신도 니콜리우스 진젠도르프(Nicolaus von Zinzendorf)는 세계 선교를 위해 평신도 남녀로 구성된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토머스 모어(Thomas More)경과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는 자신들의 기독교적 소명을 정치적인 영역에서 표현했던 두 명의 평신도였다.

20세기에 이르러 평신도 존 모트(John R. Mott)는 학생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또 다른 영국 출신의 평신도 하워드 기니스(Howard Guinness)는 자신의 운동 장비를 팔아 캐나다행 배삐를 지불하고, 기독교학생회운동을 캐나다에 전해 주었다.

우리는 단지 전통적인 목회자의 역할인 목양(pastoral care)이라는 한 가지 측면에서 평신도를 활용하는(liberating)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에 필요한 목회 사역의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심방, 목회 상담, 기도 상담, 결혼 사역, 영적 교제와 지도, 환자에 대한 치유 사역, 중재와 화해, 훈련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

오늘날 평신도의 목양 문제에 관해 다루는 책들은 대부분 모세의 원리에 근거해서 논의를 전개한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느라 탈진해 있는 것을 보고는 단도 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 하도다" (출 18:17). 뒤이어 효과적인 교회 행정에 대한 성경적인 사례 연구가 나온다. 이드로는 천명, 백명, 오십명, 열명의 무리를 관할하는 '재택이 겸비된 자'에게 모세의 일을 대부분 맡기게 된다. 바로 여기서 목회자에게 한 가지 해답이 주어진다. 그것은 바로 맡기는 것이다.

모세의 원리는 분명 커다란 진일보이다. 오늘날 과중한 업무로 지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것은 양적 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 있는 목회 사역의 형태로는 모세의 원리도 적합한 것이 아니다. 의지 있고 훈련받은 자원자들에게 신속하게 위임함으로써 자신의 목회 양육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는 아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4:11-12에 의하면 목회자-교사는, 성도들을 목회자의 사역이 아니라 성도 자신들의 사역을 하도록 구비시키기 위해 부름 받는다(to equip the saints).

전문화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의 기대를 바꾸었다. 전문가는 자신이 철저하게 훈련받은 부분에서 독특한 기능을 발휘한다. 인생은 너무 짧은 반면, 정보는 넘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영역 이상에서 앞서가기가 어렵다. 그와 같은 전문 기술 중의 하나가 바로 목양이다.

아마추어(amateur)라는 단어는 본래 의미로, '어떤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깊은 욕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의 직업상의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친구가 필요하지만, 정신과 의사나 직업 상담가를 '전문가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다. 사랑이란 결코 전문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회중을 양육하고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회중의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회중을 위한 '양육과 돌봄'에 요구되는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서적이다. 워싱턴에 있는 알반연구소 소장인 로렌메드(Loren Mead)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과거시대에 목회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다..... 새로운 목회는 사람들의 일이다." 어떻게 목사와 평신도양쪽의 역할들이 변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동역 할 수 있는가?"

1995년 6월 24일 [미네아폴리스 스타]지의 스텝인 소여 알렌(Martha Sawyer Allen)이 "영적인 멘토들로부터 도움을 발견하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여기에 몇개를 인용해본다: "단지 목사나 신부에게 의존하는 대신에 점점 더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깊게 하기 위해서 서로 서로에게 다가간다(reach)." "세인트 마이클교회의 목양목회 담당자인 쉬레이 로레이(Shirley Rowle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수받은 목사가 목회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내가 믿기로 이것이 교회의 미래이다. 목회는 사람들에게 속한다.'" "안수 안 받은 목회에서 증가는 미국 종교에서 지배적인 성향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들은 안수받은 목사의 가치를 인식하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 신학교학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알반연구소(Alban Institute)의 소장 로렌 메드 목사는 말했다: '과거시대의 목회는 강단이나 감독체계 안에서 전문가를 위한 일 이었다....."

새로운 목회는 사람들의 일이다...' "교회는 이제 주요전환의 와중에 있다. 한때는 분명하게 정의되었던 목사와 평신도 양쪽의 역할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 영국의 존 스타트목사님은 그것을 "제 2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른다.

오늘날의 교회는 과거로부터 목사- 평신도를 쪼개는 절름발이 모습으로 물려받았다. 그것은 이제 전환을 맞고 있다. 교회는 더 이상 목사나 평신도 어느 쪽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변화하는 전망의 긍정적인 측면은 당신이 그것을 성령이 교회를 통해 불어닥치는 새로운 바람으로 볼 때에 보여지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16세기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준 것 같이 사람들에게 목회를 주고 있다. a)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저항한다. b)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c)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목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에서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고민하고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이런 혁명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발견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갈 수 있기 위해서는 5가지 영역에서 이런 새로운 현상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목회에서의 변화, 문제와 고민, 목사의 역할, 평신도의 역할, 목회에서 파트너 십.

수세기동안 목회는 전문가의 일이었다. 그러나 목사는 권위와 특권으로 누렸던 높은 위치로부터 떨어지고 있다. 그들은 신학과 성직자 삶을 결정하였다. 그들은 파워 씨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들은 교회, 신학교, 그리고 교단적인 진리들을 콘트롤했다. 교회 리더십은 권위주의와 성직자주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특권 계층이 아니다. 그들의 위치와 권위 양쪽이 쇠퇴하고 있다.

알반연구소의 총재인 로렌메드는 그들의 격월지 [Action Information]지에 "회중의 재검토"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바 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일어나야 하는 변화는 너무 중요한데 회중을 간섭하는 대신, 또는 그들을

약간 손질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들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 일어나는 것은 진화와 혁명사이 어디엔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우리 손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바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는 곳을 알아채리는 것이며 작거나 큰 변화들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가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뭔가 우리는 교회가 제 2세기 초에 있었던 그곳으로 가기 위해 190도 돌아서야 될지도 모른다. 제 1세기에 모든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틈이 생겨지기 시작했다. 2세기 말경에 성직자는 분명히 구별된 "직책"이 되었다. 교회는 로마 행정장관의 모델을 따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에너지를 주었던 방법으로부터 떠났다.

제9장: 역할의 변화

목사와 평신도 양쪽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알반연구소 소장인 로렌메드(Loren Mead)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과거시대에 목회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다.....새로운 세대의 목회는 사람들의 일이다." 1990년 6월 24일 [미네아폴리스 스타]지의 스태프인 소녀 알렌(Martha Sawyer Allen)이 쓴 글이다: "이제 사람들은 단지 목사나 신부에게 의존하는 대신에 점점 더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깊게 하기 위해서 서로서로 에게 닿는다." 세인트 마이클교회의 목양목회 담당자인 쉬레이로레이(Shirley Rowle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수받은 목사가 목회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 내가 믿기로 이것이 교회의 미래이다. 목회는 사람들에게 속한다." "안수 안 받은 목회에서 증가는 미국 종교에서 지배적인 성향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들은 안수받은 목사의 가치를 인식하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에, 신학교학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다."

교회는 이제 주요전환의 와중에 있다. 한때는 분명하게 정의되었던 목사와 평신도 양쪽의 역할은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다. 영국의 존 스타트목

사님은 그것을 "제 2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른다. 오늘날의 교회는 과거로부터 목사- 평신도를 갈라놓은 절름발이 모습으로 물려받았다. 그것은 이제 혁명적인 전환을 맞고 있다. 교회는 더 이상 목사나 평신도 어느 쪽을 위해서도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변화하는 전망의 긍정적인 측면은 당신이 그것을 성령이 교회를 통해 불어닥치는 새로운 바람으로 볼 때에 보여지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16세기에 사람들에게 성경을 준 것 같이 사람들에게 목회를 주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저항한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목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방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하는데 고민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단지 이런 혁명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발견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현상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수세기동안 목회는 전문가의 일이었다. 목사는 권위와 특권으로 누렸던 높은 위치로부터 떨어지고 있다. 그들은 신학과 성직자 삶을 결정하였다. 그들은 파워씨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들은 교회, 신학교, 그리고 교단적인 진리들을 콘트롤했다. 교회 리더십은 권위주의와 성직자주의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이상 특권 계층이 아니다. 그들의 위치와 권위 양쪽이 쇠퇴하고 있다.

성직자는 자신들이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하는데 그들의 목회는 전체의 한 부분이고, 그리고 비록 성직자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다른 신자들도 동등하게 전체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평신도 그들은 이류(second class)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목회에 대해 동등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그들은 성직자를 포함하여 모든 다른 크리스찬들과 함께 전체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도구는 이 시대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고있는 엄청난 전환과 같은 것에서는 잘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변화를 4

가지 다른 방법들에서 다룬다:

1)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모든 것이 똑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옛날 식 그대로 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 2)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그들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기독교의 엔터테인먼트 센터나 챔피언이 되는 것이다. 3) 어떤 다른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고, 좌절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교회와 목회의 죽음을 보면서 황폐해한다. 4)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에 과감하게 직면하여 목회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완성해야될 필요들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역할변화가 필요한가. 목회란 사람들에 의해 지원된 성직자의 일로 되어왔다. 신학교들은 성직자의 계급을 키우기 위해 창조되었으며, 리더십과 목회를 위해 교육시켰다. 그들은 평신도에 의해 자금 조달이 된다. 성직주의는 교회의 파워시스템이 되어왔다.

그것은 그렇게 디자인함이 없이, 교회는 계급체계를 창조했다. 목사는 파워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교회삶이 계속 그렇게 되는 이상 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 위치(second class)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성령의 바람은 교회를 통해 불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것을 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을 갱신하고 있다. 목사는 새로운 역할을 가지고 있다. 세가지 관찰이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 목사는 혼자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홀로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들은 소진(burn-out)되거나 또는 많은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남게된다. 둘째, 전통적인 시스템은 낙후되어 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 그들의 목회와 리더십 은사를 인식하고 있는 평신도는 변하지 않는 교회들을 떠날것이며, 구비되어 목회에서 그들의 은사를 사용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게된다. 셋째,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목회는 모든 사람의 구원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 엡4:11-12절은 “목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비시키는것”이라는 이슈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목사의 역할은 6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영적지도; 구비시키는것; 비

전제공; 지원; 합법화 시키는것; 목회하는 것. 우선 그는 영적지도자이다. 그가 그의 목회를 분산화 했을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며’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자격있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지명하는 것이다(출 18장). 만약 오늘날의 전문적인 목사들이 이런 임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헌신한다면 그들은 그것이 거의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것이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가 되는데 있어서 충분한 일감이 되는 것이다.

구비시키는것. 엡4:11과 12절에 따르면 목사/교사의 목회는 구비시키는 사역이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쓸 수 있는 그 이상이 훨씬 더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1) 목회를 위해 구비되는데에 참여토록 설교와 가르침에 의해 회중을 준비시키는 것. 2) 새신자에게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 3)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장년 성경공부반에서 가르치는것, 4)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것의 일부이다. 5) 전도, 목양, 예배, 가르침, 상담, 사회활동, 소그룹, 리더십 등등과 같은 특수한 목회들을 위해 사람들을 구비시키기 위한 커리큘럼을 계획(개발)하는 것. 그것은 곧 딤후 2:2절에서 사용된 것, 즉 다른 사람들을 구비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을 구비시킨다는 원리가 분명해진다.

비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의 목사는 반드시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후에 그가 시행하기 원하는 것의 비전을 줌이 없이 어떤 이에게 영적인 리더십의 위치를 부른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 비전은 공유되고, 시행되고, 그리고 자주 갱신되어 야한다. 지원. 중요한 목회에 포함되어 있는 평신도는 지원(support) 되어야 한다. 사회사업가들이 조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지도자들이 이것을 믿도록 해주는 뒷받침이 된다. 그들 자신과 그들이 하는것에 대한 만족은 다음 네가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a. 책임을 나누는 것; b. 어려운 경우에 지원하는것; c. 문제들을 돕는것; d. 그리고 개인적인성장. 좋은 지원은 평신도를 동기부여, 확신, 격려, 강화, 그리고 자극한다. 그것은 사람을 목회에서 단지 계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서 성장하고 우수성을 위해 애쓰는 그런 방법에서 그들이 내적 자원(resources)을 톡톡 건드리

게 될 것이다.

평신도의 역할을 보자. 한국이나 미국이나를 막론하고 큰 교회들을 이룬 경우를 보면 평신도들을 잘 활용하는 교회라 본다. 즉 평신도들을 깨워 일하게 한다는 사고가 목회자나 평신도 양쪽에 충분히 인지되어있기 때문이다. 목회는 혼자서 할 수 없기에(이드로가 모세에게 준 충고-멜빈목사님은 여기에서 아마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라는 책을 썼지 않을까....) 평신도의 일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몇몇의 목회자만 일하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일(the work of Gathered church and Scattered church-Robert Slocum)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목회자가 일선에서 일하기보다는, 평신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교인들은 의미 있는 일(meaningful ministry)을 하기 원한다. 목회자가 평신도의 할 일(또는 할 수 있는 일-예를 들어, 목양[pastoral care] 같은 것)을 모두 맡아 하며 탈진되는 목회는 지양되어야 한다. 목회자는 뒤에서 일을 촉진해 주는 자(facilitator)의 역할을 하며, 평신도가 전면에서 일하는 교회가 성장을 위해 더욱 더 역동적임을 많은 책들이 강조하고 있다(평신도목회 대한 영문 참고서적이 200여권이나 됨을 인터넷을 통해 발견했다).

교회는 일종의 유기체로서 각 지체들이 나뉠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우리의 몸 중에 하나가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온 몸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폐가 기능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나가기 힘들 것이다. 우리의 몸의 전 부분이 나뉠대로의 기능을 유지할 때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적 조직으로서 목회자 몇명이 일함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신자(the people of God)에게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말한다(멜빈의 LPM 훈련 부교재: SP #8, 연구소에서 구입가능). 모든 신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하였다는 말이다: 전도의 은사(Peter wagner), 교육의 은사(Hendrickson), 상담의 은사(Sin Yang Tan), 등등. 모두가 살아 움직여 일하는 유기체적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미래교회의 구조를 예견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타교회(meta church)로서의 평신도목회(lay ministry) 패러다임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그들 교회중에는 스카이라인 웨슬레안 교회(존 맥스웰), 월로우크릭 커뮤니티 교회(빌 하이벨스), 처치 온 더 웨이(잭 헤이포드), 뉴 호프 커뮤니티 교회(데일 갬로웨이), 프리미어 교회(랜디 포우프), 제 일 침례교회(호머 린지와 제리 보인스), 센트럴 커뮤니티 교회(레이 코튼), 제 2 침례교회(에드 영), 호라이즌 크리스찬 펠로우십(마이클 커크 맥킨토시), 마운트 패란 하나님의 교회(폴 워커). 이런 교회들은 평신도들의 은사를 연결하여(소위 '네트워킹') 교회의성장을 도모하는데 모델이 된 교회들이다.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중적 계층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perfect, equip)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에, 목회자만을 따로 세워 목회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지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이 교회안의 지체들의 역할분담이다(멜빈에 의하면 목사는 설교, 행정, 성례전, 격려...그리고 평신도는 기도(P), 시간할애(A), 접촉(C), 모범(E)이라고 기능에서의 다름을 제시한다).

이러한 구분을 잘못 이해하면 목회자는 잘못된 권위의식을 갖게 하며, 교인들은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상실하고 소극적이거나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될 수 있다.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목회사역을 위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to equip the saints for the work of ministry)이다. 온전케 한다는 것은 준비시켜서 완전케한다는 뜻이 내포되어있다.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이다(ecclesia & diaspora).

주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teach, train, equip, nurture)을 목회자에게 맡겼다. 바울은 디모테에게 교회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디모테 전/후서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한바 있다.

성경은 분명히 교지도자로 세운 목회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성도를 잘 준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것을 위해 주님은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 이 권위는 주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살피는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보증이다.

평신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어야 (equipping) 한다.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은사를 발전시켜 하나님의 일(ministry: 사역, 목회)에 동참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단지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인격과 삶(not only Doing but Being)을 성장하게 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상유지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준비되어 봉사뿐만 아니라 목회, 사역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봉사만이 다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다 할 일이 아니다. 교회 밖, 즉 세상속에서의 봉사의 일을 위해서도 준비되어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도 말씀하셨다(한신대 김이곤학장, 보스톤대 윌프타이, 그리고 로버트 슬로컴도 강조).

바울은 그의 서신 끝에 항상 여러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는 혼자서 일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

교회에서의 평신도 역할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보다 큰 시야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21세기 초에 즈음하여 세계 선진국들의 교회는 보다 높은 효율성을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인 우리, 역시 새 천년 준비를 위해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고 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로 진입한 전환점에서 '21세기에는 과연 어떤 종류의 교회가 효과적인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21세기에는 평신도들에게 힘을 주고, 필요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준비(훈련)시키고, 그들을

동원하는 교회만이 영향력 있는 교회이다.'(Robert Slocum)

우리가 나가는 개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교회, 양쪽에서 평신도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토록 하는 계획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 천년을 맞아 교회를 새로운 차원의 효과적인 교회로 격상시키려면 일반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본 받아 헌신하는 새로운 성숙한 단계에 도달해야하는 것이다.

평신도의 역할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면은, 지금 그들의 헌신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평신도이고, 다른 한 쪽은 21세기 교회성장의 열쇠로서 유능한 평신도 지도자들(장로 등등)이다.

이런 전략을 위한 평신도와 교회 전문직들 간의 열띤 논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본다. 교회 전문직들은(목사, 성직자, 관계자 등)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목회와 선교를 위해 진실되고 효과적이고 안정된 장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성도들을 동원하고, 준비시키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데 필사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이들 두 그룹은 파트너로서 서로 동역자임을 자각하고 성직자, 평신도가 서로 이해하고 모든 성도의 삶의 풍요와 효과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평신도 목회라는 주제에 있어서 평신도는 영적 또는 신학적으로 수준이 낮은 하위그룹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의 남녀 평신도는 교회 문제의 어떤 중대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교회의 장래를 위하여 교회전문가(성직자, 목사)보다 더 예리한 통찰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난관극복을 위한 새로운 묘안을 제시하여 의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나는 종종 지켜봐 왔다.

평신도는 자신들이 직접 부딪혀 생활하고 일을 하는 매일의 인생체험을 통해서 교회의 미흡한 부분, 결함부분,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아마 그 누구보다 더 예리하게(자세히) 알고 있을지도 모른

다.

미래에 교회를 쓰는 역사가들은 20세기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침체된 이유를 교회를 지배하는 성직자·신학자들이 매일의 성도생활을 위해 활기찬 이론과 진실된 영성으로부터 멀리하고 전통적인 이론으로 우리 평신도를 이끌고 나간 탓으로 결론짓지 않겠는가? 하고 나는 생각한다. 21세기에는 교회의 목회, 선교 및 전문적인 지도자의 역할로 결국 새 모습으로 단장된 실질적 신학교육을 위한 물결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평신도의 새로운 계획과 전략이 자리매김함으로서 평신도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본다.

아무리 강한 평신도 지도자의 통속력으로 무장된 조직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태만한 동안 몇몇 특별한 개인주의로 인해 목회의 활성화가 표류되고만다.

교회가 모이는 것은 흩어지지 위해서이다. 교회는 결국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신학자 본혜퍼도 "교회는 남들을 위해 존재할 때에만 교회일 수 있다"라고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남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바깥을 향해 존재한다.

21세기 미래사회의 교회에서는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기대될 것이다. 이전 시기에서는 교회가 거의 목회자의 역량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도적인 목회자보다는 평신도의 활동에 의해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크게 좌우되리라고 예견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평신도의 인적-물적 자원들을 활용하고 평신도의 은사들을 개발하여 이들의 역량을 목회에 최대한도로 적용하는 새로운 목회-교회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평신도 목회자, 평신도 동역자, 평신도 선교사, 평신도 봉사자 등의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담임목사의 역할을 보자. 평신도 목회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염두에 둔다는 뜻이다. 평신도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교회는 목사의 높은 교리에 동등하게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평신도에게 있

어서 효과적인 사역들이 되게 하자면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역들에 방향을 잡아 주어야한다. 누가 그들을 위해 그것을 제공할 것인가? 누가 그들을 구비시키는가? 누가 그들로 하게 할수있게 하는가?

분명히 그것은 담임목사의 역할이다. 목사는 사역에 대한 성서적인 요청을 강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는 그들로 하여금 은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는 단계들을 통과하도록 인도해주는 사람이다.

그들이 효과적인 사역자들이 되도록 훈련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들의 담임목사이다. 모든 효과적인 평신도 사역자는 그의 담임목사에 의해 제공된 훈련과 격려에 달려있다. 평신도 목회는 어떤 반동주의자나 반성직자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담임목사와의 더 가까운 사역관계성속으로 평신도를 데려오는 운동이다!

어떤 사람들은 평신도목회는 교회안의 전문적인 사역자들(담임목사, 부교역자)을 불필요하게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않다. 그들의 기능에 의해서 구별된 목사는 평신도들도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는 말씀(Word)을 가르치도록 부름 받았다. 그리고 목회를 위해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해주는데 성직자 또는 목사는 평신도가 목회를 위해 훈련받고 구비되는 채널을 제공한다.

성직자는 목회자만(the ministers)이 아니라, 그들은 사역자들의 훈련자들(trainers)이다. 회중은 한명의 목회자와 200명의 성도로서 구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200명의 잠재적인 사역자들과 한명의 구비시키는 자로 구성되어있다. 한사람은(또는 목회적인사역자) 하게하는 목회(the ministry of)에 부름 받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사역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나 평신도 목회를 높이 평가 하는 것은 또한 목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평신도 목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실시하는(facilitate) 사람은 목사이기 때문이다. 평신도 목회를 그의 담임목사와 멀어지는 것이라고 믿는 평신도는 구비시키는 자(equippier)의 중요

한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평신도 목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즉 라오스(Laos)를 불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에드윈 린버그(Edwin Linberg)는 구비시키는 자로서 성직자에 대한 박사 논문에서 이렇게 썼다: “성직자가 하게 하는 자(enabler)로서 역할을 할 때 평신도는 하나님의 교회의 부분으로서 그들의 사역을 위해 책임을 질 것이다. 목사에게 있어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사역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릎 쓰는 성직자는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목사에게 있어 효과적인 사역을 하는 평신도의 능력에 만족이 있을 것이다.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의 실현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린버그(Linberg)는 구비시키는 자로서 사역을 의식적으로 실행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1. 그는 목회에서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과 소신이 있어야한다.
2.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을(experimental learning) '배우는 과정'에 포함 시키는 필요한 기술들로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3. 그는 모든 상황, 관계성, 만남,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성도의 삶 속에서 창조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과 관계성은 배우고 성장을 위한 잠재적인 기회이기 때문이다.
4. 그는 직업적인 목사의 근본역할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책임적이 되는 것에 대해 지적이고 언어적인 동감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로써 세상속에서 그들의 사역에 실제적인 실천으로 옮기게 하는 “연결(link)” 또는“다리(bridge)”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그리고
5. 그는 그들의 목회를 실행함에 훈련이 되어서 평신도 목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때 단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그럼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역의 영향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목회자의 위치는 어떤가. 합법화시키는 것. 목사는 다른 용어로 말하면 "합법화시키는 자"이다.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독특한 방법에서 보여지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은 성서에 일치하는 것이다 히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 받으라.....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계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7, 17절)

[상담과 가치] 라는 책에서 밀러와 엡킨슨(Miller and Atkins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많은 회중의 눈으로 볼 때에 성직자의 역할은 하나님(신)에 대한 성도의 느낌과 관련 있는 어떤 독특한 정서적 상음(emotional overtones)을 가지고 있다." 목사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하고, 그들이 하는 목회를 합법화시키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이것이 바로 왜 만약 목사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것에 그의 지원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갈수 없다고 종종 말하는 이유이다.

[Action Information/ 1990]이란 잡지에서 에르니 코디에(Ernie O, Codi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자격있고 권위 있는 성직자를 위한 씨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평신도 사역을 동등히 그리고 심각하게 여기는 씨시스템을 우리는 가지고있지 않다." 설교, 파송, 개인적인 지원을 통해 그리고 단지 이론에서 아니라 실천에 있어서 목회를 양도하는 목사는 평신도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에 신임을 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합법화시킨다는 것을 성직자적인 그리고 신적인 면허(허가)라고 본다. 이런 새로운 역할에서 목사는 "합법화시키는 자"가 되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단지 권위를 가지고있는 사람만이 확신시키는 허가를 해줄 수 있다.

목회자. 모세의 모델은 결코 목사를 개인적인 목회에서 제거하지 않는다.

모세는 더 큰 일을 해야 했다. 우리는 모든 목회를 하는 것으로부터 목회를 전혀 하지 않는 것까지의 흔들리는 추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목사는 역시 목양(pastoral care)을 해야 한다. 가끔 평신도와 함께, 그리고 가끔 그들의 위치에서 하게 된다. 목회를 주는 것은 목사에게 있어서 자신을 "묶어놓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확실하게 쓰여진 리스트의 과학보다도 예술인 것이다. 사람, 상황, 그리고 시간적인 차이는 그 리스트에 변화를 요청할 것이다. 또한, 목사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비시키는지를 자로 알기 위해 함께 목회(hands-on-ministry)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새로운 운동이 목사의 역할을 변두리로 밀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믿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닌가?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부름의 중요성을 깎아 내리고 그리고 그들은 대치되었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세가지 성서적 모델이 목회를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그것을 변두리로 밀어내기보다 역할을 극대화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해준다.

출 18장. 모세의 모델 모세는 중심인물에서 점점 축소되기보다, 그는 더 크게 되었다. 그는 선생이고, 선택권 자이고, 그리고 모델이다. 그는 더 큰 문제들을 다룬다. 그는 영적지도자이다. 당신이 출18장을 넘어가서 읽으면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고민하는 것에 대해 그의 역할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은 중보자가 필요했으며 하 나님을 결정적으로 그리고 정규적으로 찾는 사람을 가졌다. 목회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모세의 새로운 역할에서 중요차이는,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부른 것- 사람들을 인도-을 하기 위해 자유로와 졌다.

엡 4장. 목사/교사로서 성직자는 봉사(목회)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구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부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을 돕는, 종의 역할(a servant role)이다. 더 전략적인 역할이 교회안에 있을 수 있다!

히 13장. 하나님은 교회안에 단지 촉진자들이 아니라 지도자들(leaders)을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들은 그들의 지

도에 있어서 질적인 면과 효과성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이런 새로운 역할은 목사의 직책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대신에, 그것은 그것을 더 강화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신분에 역(반대)-생산(counter-productive) 상승이 됨이 없이 이것을 하게된다. 사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사람들에 대해 더 위대한 종이 되도록 하는데, 목회를 그들에게 줌으로서 그들의 크리스찬 삶의 더 완전한 성취로 그들이 들어가도록 풀어놓으면서 그렇게 된다.

제10장: 전환의 시대

오늘과 같은 전환의 시대에서 성직자도 평신도도 그들의 역할을 확신할 수 없다. 양쪽은 공인되지 않은 지역(지형)에서 그들의 길을 발견하는 선구자들이다.

그들의 역할들의 불확실성은 다음의 영역들에서이다:

1. 훈련시키는 것. 성직자는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그들은 그들에게 무엇을 훈련시켜야 하는지를 모른다. 평신도는 어떤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지 못하며, 누구에게서 그것을 얻어야 할지도 또한 모른다. 그들의 방향은 전혀 훈련이 없는 것으로부터 신학교 학위를 얻기까지이다.
2. 차이. 전략, 방향, 형태, 과정 인력문제, 강조점, 내용 등등에 대해 견해가 다를 때 누가 최종 결정을 하며 다친 감정을 개선하는 것, 또는 진 사람의 닳아서 헤진 관계성은 누구의 책임인가?
3. 권위. 예산을 세우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행사 계획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커리큘럼 선택에 있어서;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적합성에 대해; 건물 또는 장비사용에 있어서; 누가 권위를 가지고있는가?

신학교들은 그들의 수동적 참여들에서 평신도를 인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산출함으로 교회를 돕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들은 "능동적인 참여"에 동참되도록 비전문가들을 구비시킬 전문가들을 배출함으로 이제 교회를 최상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신학교들은 목회를 사람들에게 주도록 교회의 목사/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한다. 엠 4:11과 12절을 재발견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 불고있는 성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개 교회에 있어서 고민은 또한 신학교와 교단관계자들의 고민인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전환에서 한가지 놀라운 일은 우리는 평신도의 새로운 역할을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 용어는 "평신도목회(lay ministry)"이다. 그러나 바로 이 용어는 평신도의 목회의 제 이류(the second class)이미지에 기여한다. 그것은 열등감의 자기 이미지를 격려하며 "나는 단지 평신도야" 라는 슬픈 외침을 초청한다. 목회에 부름에 대해 동등성을 커뮤니케이트하며 또한 우리의 창조성에 도전들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를 필요로 한다.

나는 직업적인 목회자와 자원적인 목회자에 대해 언급하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목회의 일부분을 커뮤니케이트 한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 용어는 분명한 것보다 고상하다. 평신도/성직자라는 어휘는 너무 넓게 사용되어서 만약 그 개념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잘못된 단어는 잘못된 아이디어를 오래가게 한다. 평신도/성직자 이분법 개념(감금)은 그 어휘를 길어지게(연장) 한다.

세가지 문제들이 전환의 진행을 방해한다. 첫째, 통제(control)를 포기하려는 데에 대한 전문적인 목사의 꺼림.

그것은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의 의해 부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데, 즉 목회를 하도록 신학교에서 훈련되고 목회를 하도록 안수 받고, 사람들에게 이 목회를 시행하도록 하는 목회를 하도록 회중에 의해 초청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 "그들의 목회"를 평신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소유와 교회의 전통적인 보호함 양쪽을 방해한다. 어떤

사람들은 통제를 포기함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그들은 어떤 평신도가 그들을 그들의 소명, 훈련, 그리고 경험의 영역에서 그들을 능가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가?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축구코치에게 있어서 최상의 순간은 그가 훈련시킨 사람이 그를 능가할 때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목회를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엡4:11,12절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것은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지)이 요구된다. "목회를 한다(do ministry)"는 것은 이제 회중에 의해 하도록 그들이 부름 받은 목회를 함께(hands-on)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구비시키는 것으로서 인식되었다. 그들은 바울이 디모테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을 때 그들에게 바울이 또한 썼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또한 자질을 갖추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은 것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목사가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회를 주는("위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평신도목회로의 전환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바로 평신도목회에서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역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대치되었으며 그리고 삶에 있어 그들에게 주는 중요성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즉 그들이 부름 받고 훈련받고 안수 받아서 목회를 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느낌이다. 이런 내적인 갈등의 해결은 그들의 역할이 '목회를 하는 역할'에서 목회를 하도록 '사람들을 구비시키는 역할'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들 자신이 보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부름에 대해 큰 성취를 하는 것이다. "목회의 사역을 위해 성도를 구비시키도록" 하는 그들의 부름을 성취함으로써 목사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목회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부름을 성취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역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알기로 역할이란 그 자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누구에게도 강요될 수 없다.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목회를 하게 될 사람들을 구비시키는 자로의 역할전환은 성령에 의해 시작된 전환순간에 대해 의도적인 협력 또는 저항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과정이다. 여기에 목양목회(pastoral care ministry)에 대한 목사주인의식으로부터 같은 것에 대한 평신도주인의식으로 이끌어 가는 6가지 행동 단계들(steps) 전환의 6가지 단계(stages)가 있다.

a. 비전(vision). 목사는 그의 사람들에 대해 목양(pastoral care)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들어주고, 확증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으로 자신을 본다.

b. 나누는 것(sharing). 그는 그의 마음을 몇 명의 목회 팀의 사람들 또는 그의 재직들과 나눈다. 그의 나눔 중에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고통, 죄스러움, 그리고 좌절을 나타낸다.

c. 구조화(structuring). 어떻게 모든 성도에게 목양 할 것인지를 계획 세우기 시작할 때에 그의 비전을 나누는 사람들로 목양 리더그룹(pastoral care leadership group)을 형성한다. 그는 이런 목회에 대해 성서적인 근거를 가르치고 계획을 세워 시작하는 단계들로 그들을 인도한다.

d. 넘겨주기(passing). 그룹이 비전을 케취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리더십은 그들에게 넘어가서 그는 철수하기 시작한다.

e. 풀어주기(releasing). 그의 마음에서 그리고 그의 행동에서 그는 주인의식과 그룹의 운영과 목양목회를 양도한다. 그들은 1) 그것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고, 2)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3)그것의 성공에 있어서 책임적이 되는 것이다.

f. 지원(supporting). 목사는 1) 자료를 주고, 2)확증하고, 3) 격려하고, 그리고 요청이 있거나 또는 그가 필요를 볼 때에 포함되는 특권을 유지하며 그룹을 계속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모세가 그랬듯이 그는 또한 교회의 더 어려운 목양 일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출 18장)

전환의 과정을 방해하는 두 번째 문제는 많은 목사들이 사람들을 구비시키는데 잘못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가지 해결 방법이 앞에 놓여있다:

a.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많은 지도자들, 교회들, 그리고 기관들을 일으키셨다. 엘톤 트루블라드(Elton Trueblood)는 이 분야에 선구자이다. 평신도목회자사역 협회(LPMI)는 회중의 목양을 위해 수년동안 교회들을 구비시켜왔다. 케넷 호코(Dr. Ken Haugk)가 개발한 스테반목회는 중요한 목양을 위해 교회와 사람들 양쪽을 구비시킨다. 그리고 더 있기도 하다. 한국의 [평신도목회연구소-12명의 스텝진]에서는 이 사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b. 많은 세미나들이 목회를 위해 그들의 사람들을 구비시킨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신도는 자신들이 특권계급이라는 것을 보아야하며 그들의 목회는 전체의 한 부분이고, 비록 성직자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다른 신자들도 동등하게 전체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평신도는 그들은 이류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목회에 대해 동등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그들은 성직자를 포함하여 모든 다른 크리스찬들과 함께 전체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전환을 방해하는 세 번째 문제는 순수한 평신도목회를 주고 받는 데에 대한 사람들의 꺼려함이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목사-의존과 수동적 형태(mode)에 익숙해져왔다. 목사와 평신도 양쪽이 동시에 이런 전환에 준비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변화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할 도구는 이 시대동안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엄청난 전환과 같은 것에서는 잘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변화를 4가지 다른 방법들에서 다룬다: 1)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모든 것이 똑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옛날식 그대로 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 2)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치달으며 그들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는 기독교의 엔터테인먼트 센터나 챔피언이 되는 것이다. 3) 어떤 다른 사람들은 환멸을 느끼고, 좌절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그들의 교회와 목회의 죽음을 보면서 황폐해한다. 4)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에 과감하게 직면하여 목회를 사람들에게 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완성해야될

필요들을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놀랄만한 모델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이스트싸이드 포스퀘어 교회(Eastside Foursquare Church, Washington). 이 교회는 1980년에 몇 명에서 오늘날 4000명 출석에 육박하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이 "50년대 생(baby boomers)"이다. 더그 머린목사(Pastor Doug Murren)목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상을 분명하게 설명했다: "우리는 비전문적인 우리의 회중을 활용한다. 우리는 우리자신이 일하지 않는 쪽으로 점점 더 움직이고 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일을 하도록 모집하여, 훈련하고, 그리고 파송한다. 왜? 왜냐하면 현재 사례를 주는 어느 직책이든지 자원자들에 의해 잘-그리고 아마 더 낮게 될 수도 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단지 구경꾼이 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라; 우리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 내가 이 시대에 자신 있게 예견하는데 뭔가 사람들은 교회를 다시 평신도에게 개방하게 될 것이다(The Baby Boomer, Doug Murren, Regal Books, 1990, p. 268).

스카이라인 웨슬리안 교회(Skyline Wesleyan, San Diego, California). 존 맥스웰목사는 미래의 담임목사는 한 번에 한사람씩 부상자들을 돕는 적십자회원이 아니라,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으로 묘사한다.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그들이 군대를 인도해야 할 때에 부상받은 병사를 돌보려고 멈춘다고 그는 말한다. 목사/장군은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의 교회안에 상처 있는 사람이 무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전투에 모든 측면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 목사들은 사람들을 인도하곤 했지만, 오늘날의 목사는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들(평신도와 스태프)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윌로우 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 South Barrington, Illinois). 평신도 사역을 모집하는 것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는 중요한 일이다; "모집 때가 되면, 너무 많은 교회지도자들 자리 메우기(slot)식으로 한다. 그들은 그들 목회의 필요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메울 사람을 찾는다. 새신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은사들을 발견하도록 하여 그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할 수 있는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해야한다. 그는 평신도를 포함시키는 목표를 설명하기 위해 모든 성도는 사역자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새 희망 교회(New Hope Community Church, Portland, Oregon). 엘머 타운즈(Elmer Towns)에 의하면 그들은 미국에서 가장 효과적인 셀 목회를 한다는 것이다. 이들 "TLC 그룹"은 "평신도 목회자(Lay Pastor)"라고 불리우는 평신도에 의해서 인도된다. 담임목사 데일 겔로웨이(Pastor Dale Galloway)는 이런 평신도 목회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들이다. 게다가, 그는 평신도목회자들에게 병원 심방, 병든자를 위한 기도, 교회에 잘 출석치 않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문제들까지 다루도록 한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표현한다: "나의 할 일은 첫째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고 둘째는 500명의 평신도 목회자들의 사역이 성공적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들의 목회가 진행되도록 하고 목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동기부여 하는 것을 배워야한다고 그는 고백한다.

페리미터 교회(Perimeter Church, Atlanta, Georgia). 전통교회 모델에서, 목사는 목회를 하고(does),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목회를 받는다(receive)고 담임목사 랜디 로프(Pastor Randy Rope)는 설명한다. 다른 모델은 목사와 스텝은 목회에서 모든 평신도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배치하고, 그리고 평가하는 것이다. 페리미터 교회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는 모델이라고 믿고 있다. 스텝멤버는 구비시키는 자이다(equippier). 랜디 목사는 스텝을 "리더-구비시키는자(leader-equippers)" 라고 부른다. 목표는 교회안의 모든 사람을 목회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11장: 패러다임 전환

사람들은 대개 교회를 간다(going to church)고 한다. 그런데 교회를 간다고 하는 표현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평생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 시골에서 자라면서 교회에 가는 것은 매주 마다 있는 정규적인 사건이었다.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가는 것은 중요한 일과이다. 그러나 '그냥 교회

를 간다' 는데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다. 교회는 가는 것(going)이 아니다.

그러면 교회에 가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스도안에서 교회가 되도록(to be) 부름을 받았는데 크리스찬이 "교회 가는 것" 에 만족할 때는 뭔가 문제 있는 것이다. 지나간 기독교 역사의 수백년 동안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부름받은 사람들(who are called to be)'이라기 보다는 가는 장소로서 취급해왔다. 교회는 하나의 기관(institution)이 되고 높은 건물과 프로그램, 그리고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누어지고 "교회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설교자에게 설교 들으려고 주일아침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건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12: 27)"는 것과 얼마나 동떨어진 개념인가 교회는 벽돌로 만든 정지된 곳이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다.

왜 교회에 가는 것이 대중적인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교회에 가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동안 의자(pew)에 앉아 있다가 별로 변함 없이 돌아온다. 교회를 단순히 가는 사람들은 교회의 사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참여자이기보다는 관찰자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비성향적인 사회 속에 살고있기에 크리스찬 경험에 있어서도 또한 소비적인 태도를 가지고있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연극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즐기기 위해 극장이나 연극회에 간다; 스포츠팬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팀이 경기하는 것을 보려고 축구경기장에 간다; 미식가들은 좋은 음식을 즐기기 위해 멋진 식당에 간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교회에 간다.....무엇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는 것이 영적으로 "배부르기(to be fed)" 위해 간다고 한다. 분명히 영적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교회가 제공하는 것 중의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적으로 "배부르거나" 또는 "좋은 경험"이 최종목표는 아니다. 그것은 50%의 정답이다. 만약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영적으로 살찐 것이 아니다.

크리스찬들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물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나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살찌거나 행복하기만"하려는 것이 아니다. 마이클 그린(Michael Green)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면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교사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vangelism Now and Then, 1979). 우리는 목회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름 받았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배우는 자, 관찰자, 학생으로서 시작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결국 사도가 되었다. 사도란 '권위를 가지고 보냄을 받은(sent out)'사람이다. 예수님의 현재 제자들은 그런 전환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청중에서 연기자로, 팬에서 선수로, 영적 소비자에서 사역자로!.

이것이 바로 현재 평신도가 가져와야 할 변화이다. 누군가는 교회내에서 상담을 하기 위해(비록 세상만큼의 pay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자신의 직업을 줄여 갈 수도 있다. 물론 위험을 무릎 쓰는 모험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부름에 소명감을 느끼고, 이것이 꼭 해야 할 사역이라고 자신이 느낀다면 그 외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주의 일에 부름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으로 이해 해야한다.

우리는 때로 교회 일을 파트타임(part-time)일로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교회 일을 그렇게 보는것과 하나의 사역(ownership을 가지고)으로 보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전환을 가져오기 전에도 우리는 나름대로 하는 일을 잘하며 보람을 느낀다. 예를 들어 성가대를 지휘하는것,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 등등.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지원하도록, 그리고 서로를 위해 돌보는 사역(예, P-A-C-E)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할 수 있다. 봉사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사역으로의 개념으로 전환(paradigm shift)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사역이나 목회를 목사들만이 하는 뭘가로 생각하곤 한다. 평신도목회(LPM)란 목사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에 서로 서로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목회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나아가 성도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까지 이르게 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개념이 금방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공부와 연구를 통해, 그리고 성서적으로 충분히 입증을 받아가며,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안(gathered church)과 밖(scattered church)에 뭘가를 위해 특별한 목회사역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영적인 소비자(spiritual consumer)에서 사역자(minister)로 바뀔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될 수 있다!

그런 전환은 깊은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보는 방법을 바꾸고, 우리가 우리자신을 보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제 교회에 가는 것(going)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being) 시작하는 것이다.

1950년대에 엘톤 트루블라드(Elton Trueblood)는 이런 말을 하였다: "만약 교회가 모든 평신도는-남여를 막론하고-정말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인식을 심각하게 취한다면,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뭔가 혁명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점점더 많은 교회들이 이런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들어 경주동부교회(담임 정원옥목사)의 한 장로님은 평신도목회(LPM) 훈련이 끝나는 시간에, '이건 정말로 혁명입니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사역자로서 보고 있지 않다. 그 결과로 목회자와 중직 몇 사람은 너무 많은 짐을 지고(20/80원리) 있는 반면, 많은 성도들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느낌을 갖는다.

무엇이 트루블라드의 혁명을 많은 교회들로부터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가? 수세기동안 교회는 크리스찬들을 두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왔다-목회자(성직자)와 그 목회를 받는 사람들(평신도). 이런 구분은 네가지 목회신화(myth)에 의해 생겨진 것인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목회에 접근하느냐를 구성지어준 목회에 대한 비성서적인(unbiblical) 신념들이다. 혁명이 우리들의 교회에 오기전에, 이런 네가지 목회에 대한 그릇된 신화(ministry myths)가 부서지고 또 수정되어야 한다.

첫 번째 신화는, 소위 '목회'라는 것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으며, 그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도자들의 부름을 설명함에 있어서 성서는 단지 그들만을 '사역자들'로 불러내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모

든 믿는자들의 목회를 강조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to equip the saints)하며 봉사의 일(the work of ministry)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번째 신화는, 목회란 단지 영적인 필요에만 부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신학교때에 종종 4영리(Four Spiritual Principle)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한적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기도하기도한다. 그리고 몇주후에 교회에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이 너무 무책임한 전도(cold-turkey witnessing)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가지 예를들어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된다. 그러나 교회를 나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 양육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관으로 보다는 사랑의 아버지로서 보게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우리의 즐거움과 고통, 우리의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신다.

목회라는 것이 영적필요에만 부응하는 것이라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을때에 하나님께서 신체적 또는 사회적필요에 부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목회를 하지않는다고 자신들이 느낄수도 있다. 이런 신화가 깨어질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안에서 그들의 위치를 발견할수 있게된다.

세 번째 신화는 대부분의 목회는 교회가 모였을때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마치 세일즈팀과 같다. 그팀이 모일때에 멤버들은 성취한것에 대해 축하하기도 한다. 세일즈 매니저는 팀에게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팀에게 주고, 그리고 훈련을 시킨다. 그룹멤버들은 서로 격려한다. 모임이 끝나고, 만약 멤버들이 팔려고(sale)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세일즈팀에 대해 어떻게 할것인가? 그들이 모임의 의도를 놓쳤다고 당신은 의아해하지 않겠는가? 교회안에서 우리는

목회팀이지 세일즈팀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이유들을 가지고 모인다-축하하고, 우리의 비전을 확장하고,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려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받으며 그리고 목회를 위해 구비되는 것(to become equipped)이다. 만약 그다음에 우리의 모임 끝에, 우리는 세상속으로 나가서 사역을 잘하지않는다면 어떡할것인가? 모인 진짜 의도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흩어지기위해(the church scattered) 모이는 것(the church gathered)이다. 만약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나머지 일주일동안 사역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이는 주요 이유들중의 하나를 놓친 것이다.

제12장: 평신도목회의 현주소

목회자는 평신도들이 성서적인 비전을 가지고 에클레시아(ecclesia-모이는 것) 사명과 디아스포라(diaspora-흩어지는 것)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초대 교회들을 보면 끊임없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 주려면 오늘날의 교회가 초대교회들에게 주었던 비전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먼저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신약 성서에서 평신도(라이코이)를 지칭하는 단수단어는 크리스찬을 서술하는 데에는 결코사용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대신에 복수를 나타내는 헬라이어 라오스를 (laos: 원래 대중, 무리를 뜻함) 써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 상당한 위엄(고귀함)을 부여받은 것을 나타내었다(베드로전서 2:9-10). 이는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현대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구분하여 쓰지만, 신약성서속에서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지도자들인 사람(라오스)을 발견하게 된다. 안수를 받은 목사라고 해서 평신도의 한 멤버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거나 품격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 대신 헬리아어로 성직자를 지칭하는 클레로스(kleros)는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기쁨과 부르심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골로새서1:12, 에베소서 1:11, 갈라디아서 3:29). 그러므로, 아이러니컬 하게도, 신약성서속에 서술된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직자였고(성서적인 의미에서 용어를 볼 때), 그리고 평신도

는 아무도 없었다(그 용어의 보통의미에서). 300여년이 지나서야 현재 우리가 쓰는 평신도(layperson)란 용어가 생겨났고, 그 의미는 전문 목회자보다 신학적으로 낮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명감도 확고하지 못하며 덜 준비된 사람들을 가리키게 되었다(Alexandre Faivre, *The Emergency of the Laity in the early church*, 1990). 그전까지는 목회자와 평신도간의 구별이 없었다.

3세기 이후로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과 선교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알렉산더 파이프르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그 후로 평신도들의 기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질의 염려 없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물질을 조달 해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만민 구속 역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된다(*The Emergency*, p.69). 그 결과 4세기에서 6세기까지 평신도들의 위치는 성직자 서열 중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였다. 성직자들은 의복부터 다르게 입기 시작하였고,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하게 되었다. 목회 안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었으며 마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행위와 같이 간주되었다. 이를 종합해서 말하면 목회자는 사역을 감당하는 입장이고 평신도는 목회자의 목회를 받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문화에 도전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윌리엄 텐데일 이라는 사람은 "접시를 닦는 하찮은 일이든지 사도가 되어 말씀을 전하는 일이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성직자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William Tyndale, *A Parable of the wicked Mammon*, 1527). 이것은 현대에서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이다. 오스카 프푸크트(Oscar Feucht)가 말한대로 만인제사장설은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사라지게 되었다(*Everyone a Minister*, 1974). 이 결과 평신도들이 사명(사역과 선교)을 감당해야 하는 분명한 소신도 잃게 되었다.

문제의 핵심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왜 평신도 분야에서는 온전한 개혁을 가져오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만민제사장설을 내세우는 교단이 여기 저기서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웨이커교에서는 목회자가 없었고, 모라비안교에서는 모두가 자비량선교사로 해외 선교에 파송되었다. 청교도, 침례교, 감리교도 평신도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 가졌던 비전(the original vision)을 잃게 되었다. 만민제사장설을 믿고 실천한 정통 개신교 교단들은 이제 교권주의의 노예가 되었다(Ann Rowthorn, *The Liberation of the Laity*, 1986).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래와 같이 목회자들이 깊이 연구해야 할 방향이 있는데 모든 문제가 역사적으로 물려내려오는 것임을 볼 수 있다:

1) 우선 제사장의 역할이 설교자로 대신 바뀌게 된다.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미사가 예배로 대체되게 되었고 이 결과로 미사 집례 신부에 해당하는 설교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설교가들이 말씀을 맡아서 증거하는 동안 평신도들은 성경에 소홀하게 되었고 성경 연구는 권위있는 학자만이 하는 것으로 오인되게 되었다.

2)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재발견된 구원론에 맞는 교회론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다.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개혁을 보인 교단조차도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제거하지 못하였다. 그중 주된 원인은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평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결국 로마 카톨릭 교회의 신학교 제도를 받아 드렸다. 몇가지 예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신학교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식 기관이 되었고 신학교를 졸업하면 그 교단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다 배워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

4) 평신도 양성에 관한 저서들이 출간되지 않았다. 신학과 사역 자체에 관련된 저서들이 대부분 목회자들의 손으로 집필되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크래머(H. Karemer)가 쓴 '평신도 신학'이나 이브 콩가(Yves Congar)와 바티칸 2세의 작품을 토대로 카톨릭 입장에서 쓴 윌리엄 라데마처(William Rademacher)의 저서를 필두로 평신도 사역에 관한 저서들이

조금씩 선을 보이고 있다. 윌리엄 디엘(William Diehl)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입니다.("Thanks God, It's Monday)"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가 썼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교회 활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에클레시아 사명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면서 교회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교회를 성장에 가리워진 것이다.

6) 전임 사역자가 되려면 안수를 받아야 한다. 반면에 평신도 사역자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하다. 현재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목회자가 되는 자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격을 보기 보다 안수를 우선 순위에 놓는다. 평신도들이 사회에서 일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수 제도를 도입한 교단은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다.

7) 칼빈이 주장한 "특별한 부르심"은 사역의 양분화를 뿌리내리게 했다. 이것은 소수의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만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성도들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한다. 진보적인 교회에서도 목사 안수시에 목사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을 간증으로 발표하게 한다. 이것은 은연중에 목회자의 부르심은 평신도로 부르신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함축한다.

8) 평신도의 영성에 대해 깊이 있게 가르치거나 홍보를 한 적이 없다. 종교개혁은 영적으로 양분화 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신 교회들은 일반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얻는 영적 비밀들은 무시하고 훌륭한 지도자의 깊은 영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왔다. 서구 교회는 그리스 이원론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여 아직도 육신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9)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을 신약의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카타지 주교 시프리아는 Cyprian, Carthage/ 249

A.D.)성직자와 평신도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레위인들을 예로 들면서 크리스찬은 세상에 너무 관여해서는 안되며 특히 성직자들은 성소의 일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프리안 시대 이후로 목회자와 평신도의 역할에 대한 변화가 없어 왔다.

10) 16세기 이후로 문화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에 변화가 없다. 세상의 경영 체제,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분법, 강력한 중앙 정부는 변함이 없다. 만민제사장설은 한 세대만에 자취를 감추었다. 평신도들이 자립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치 비행기가 계속 돌아가야만 하는 것과 같다. 엔진이 멈추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땅으로 떨어지게 된다.

평신도목회의 문제는 단지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 그들의 믿음과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학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해결한 제3세계 교회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이제 사명은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일상생활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평신도들을 위하여 말씀 묵상이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영성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가려져 있었던 평신도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이 21세기 교회의 희망이라고 본다.

오스카 퓨켓(Oscar Fecucht)은 [모든 사람은 사역자이다] 라는 과감한 제목의 책에서 교회는 조직(organization)이기보다는-살아있고, 변화하고 다이나믹한- 유기체라고 제안한다 이유는 크리스찬은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몸으로서 함께 모여, 단지 효과적인 기구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을마다 도시마다 줄지어 서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실제 삶 속에서 좋은 일, 나쁜 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왜 크리스찬이 사역에 포함되어야 하느냐하는 [신학]적인 작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학'이라는 용어는 고대 수도사들이 촉이 긴 뾰뚱한 펜으로 그들의 지혜 긁어내거나 먼지 덮인 원고들 위로 어슬렁거리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들었다. 신학은 뭔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고민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결국 해결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신학에 대하여 다양한 결론들을 일직선으로 세우면서 교단들로 나누어졌다. 그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진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렇게 하여 오늘 우리가 도달해 있다. 수도사들은 신학교들에서 교수들로 바뀌어졌고, 글 쓰는 사람들은 볼펜으로 글을 적어놓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논쟁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이런 신학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용어는 아직도 낯설고, 진부하고, 두렵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에게 별로 흥미를 못 주고 있다.

나는 제안하기로 이제야말로 우리는 신학을 성스럽다는 홀(Hall)로부터 끄집어내어, 먼지를 털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거실로, 회의실로, 심지어 침실까지 데리고 와야한다. 왜냐하면 신학이란 당신이 단지 공부만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야하는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신학에 대한 어떤 다른 이미지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어떤가?:

- .우리의 행동을 지탱하는 강철 석쇠(steel girders)
- .우리의 신앙을 함께 붙들고있는 뼈대(골격)
- .우리를 하나님의 독특한 사람들로서의 삶으로 튕겨보내는 스프링보드

어떤 사람의 신학이란 것은 정지되거나, 비인격이거나, 지루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살아있고, 항상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각자를 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다: 신앙에 영향을 주고, 삶에 영향, 행동에 영향을 주면서.

윌리엄 스트링펠로우(William Stringfellow)는 그의 책 [공적 그리고 사적 신앙]에서 "신학의 학문화"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신학이란 신학교 교수들로부터 나왔고 단지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의 소유라고 우리는 생각할수도있다..... 그러나 신학의 작업은 목사만이 아니라 평신도, 즉 하나님의 전 사람들(the whole people of God)의 작업인 것이다... 신학이란 다른 학문과는 질적으로 다른데,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론이나 단지 역사적인 훈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데이터 속에서 입증되는데 신앙안에서, 세상의 실존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검토하는 것인데 그것은 확인되고, 토론되고, 연구되고, 입증되고, 전해지고, 또 즐기는 것이다. 신학은 고백적인 사건이다.

보통교인들이 잘못 인식하고있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신학이란 단지 학자들만을 위한 것이며, 또한 종종 학자들은 서로 서로가 담화하기에 너무 바빠서 그들은 진리를 평상시의 언어와 상황으로의 해석자들이라는, 즉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이며,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진리들을 이해하고 주장할수있는 것이다- 농부들, 어부들, 사업가들, 가정주부들.

어떤 사람이 한 번은 '단순한 것을 깊이 만드는 것이 창조적이 아니고, 깊은 것을 단순히 만드는 것이 창조적인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것이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평신도는 주로 청중이고 소위 우리가 '교회 가정주부(church housekeeping)'라고 부르는 것에 포함되어있다. 불행하게 평신도들 자신도 자신에게 이런 제한된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다. 오스카 퓨케트는 [모든 사람은 목회자이다]라는 책에서 때때로 교회는 그들 자신들을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 요새, 하나님의 권속들, 영적인 교제, 성직적인 사회,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 가족클럽, 그리고 많은 다른 방법들로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반만이 진실(half-true)인 인식은 그들의 환경속에서 크리스찬의 경험으로부터 성장해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런 개념들은 교회를 '가는 곳(a place to go),' 또는 '소속되는 기관(an organization to belong to)'으로서 이해하는 데에 근거하고 있다.

제13장: 평신도목회에서 우선권

목사들로서 우리는 평신도들이 어떤 사역들에 파송되기 이전에 우선권을 세우도록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모두는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기 쉽다. 단지 우선권을 수립하고 그런 우선권들의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만이 우리 자신을 알맞은 균형으로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우리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삶을 넘어서서 목회하는 평신도의 첫 번째 우선권은 가족이 되어야한다. 목사들로서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가족들이 첫 번째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는 있다. 그런데 비극은 그렇게는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많은 목사들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성도에게 주어서 그 자신의 가족들은 아주 소홀히 하는 경우를 듣게 된다. 목사들로서 우리 모두는 이점에서 유혹받기 쉽다. 문제는 간단하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사랑하며 우리의 회중을 목회하는 것을 즐긴다.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깊이 느끼고 그런 필요들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사역의 한 가지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한 회중을 잊게 된다. 그 회중은 우리의 배우자로 시작하여 우리의 자녀까지이다. 그리고 사역에 동참한 평신도들은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평신도 사역자들은 독신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족이 없기에 가족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 진다.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이다. 확실히 어떤 독신자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그들의 사역들에 더 시간을 투자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한 우리들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독신자들은 비록 배우자와 자녀들이 없긴 하지만 사실 그들도 자신의 가족타입(family-type)의 관계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계성들은 마치 그들이 가족인 것처럼 기능한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을 함유한다. 독신자들은 이런 관계성을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신으로서 자신의 복지안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독신자들을 사역에 동참되도록 격려할 때에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그들의 가족으로서 기능을 하는 사람

들과 관계성을 개발시키는데 시간을 할애하라고 부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우선권은 직업, 더 정확히 말해서 천직이다. 천직의 정의는 단순히 어떤 이의 직업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행동이다. 어떤 이의 직업은 단지 그의 머리위에 있는 지붕과 테이블의 음식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인 것이다. 만약 그것이 그런 경우라면 그것은 우리의 우선권들 중 상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평신도들은 결코 그들의 교회사역이 그들의 천직적인 사명에 대치된다고 느껴서는 결코 안 된다.

다른 우선권은 회복 또는 레크레이션이다. 우리 모두는 레크레이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은 취미나 활동, 운동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다른 것은 독서일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오후에 낮잠일수도.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 모두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개인적인 회복을 위한 시간이 요구된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적 감정적 풍요로움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우선권은 교회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목사로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정이 정상적이고 천직적인 소명감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가 신체적, 감정적 건강을 위한 지침을 귀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즐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목사로서 우리가 그들의 삶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첫째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그들이 알 때에 사역을 위한 초청에 더 긍정적으로 응답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그들의 삶의 다른 헌신들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들을 모집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시도한다]는 것을 그들이 예상한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 대신에 우리가 교회일 만이 그들 삶에서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는 것을 인지하며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때 마음을 연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그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높은 우선권으로 갈등을 겪는 목회 속으로 그들을 결코 밀어 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들로서 우리는 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역에 동참되도록 요청할 때 "No" 라고 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궁색한 이유로 "No"를 표현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과거에 가졌던 경험에서 안 좋은 것이 있었기에 "No"라고 대답한다. 오늘날 많은 평신도들이 목회에 동참되기를 거부하는데 왜냐하면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가 요구되는 목회에 임무 부여 되는, 즉 잘못 맞춰진 것(mismatched)이다. 그들은 좌절하면서 그 만든다. 그들의 은사가 맞는 목회에 그들이 놓여졌다면 얼마나 성취가 있었을 것인가?

그러나 평신도가 목회에 동참하기 거절하는 주요이유는 과거에 그들이 맞지 않는 사역에 대해 "No"라고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그들은 곧 지나친 짐을 지게된 것이다. 엄청난 좌절 후에 종종 그들의 가족들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래서 그들은 소진된 평신도들의 부류에 속하게 된다. 이런 좌절은 그들의 삶에서 알맞은 우선권을 유지하는 것을 배우기에 방해가 되어왔을 수도 있다.

제14장: 존 웨슬레의 평신도목회

존 웨슬레라는 이름을 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많은 우리들에게 있어, 그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도 없는 크리스찬 완전(Christian Perfection)의 교리에 깊이 관련짓고 있었다. 물론 웨슬레는 많은 다른 창조적인 것들을 말했고, 또 행했다. 기독교에 있어서 그의 가장 놀라운 공헌은 아마도 웨슬레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의미있고, 조직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목회에 평신도를 훈련하고 활용하는 것이었다.

요한 웨슬레보다 더 놀라운 평신도목회 훈련의 예는 정말 찾아볼수 없다. 영국의 감리교는 평신도의 활용없이 존재할수 없었다. 처음부터, 그것은 근본적으로 평신도운동이었다. 그것의 독특성은 사실 평신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된 것은 확장(extent) 되었다. 힐데브란트(Franz Hildebrandt)는 이렇게 말했다: “감리교도의 봉사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웨슬레가 모집한 스케일은 교회역사에 있어서 뭔가 혁명적인 것이었다.” 성공회 감독 스테판 닐(Stephen Neill)은 웨슬레의 리더들에 대해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책임적인 활동에 대한 평신도의 부름은 결코 그 이전에 없었던 것이었다.”

평신도에 대한 웨슬레의 의존을 확인해보는 한가지 방법은 그의 목회실천에 퍼부어진 엄청난 비평들을 통해 측정해볼 수 있다. 웨슬레는 많은 것들에 비평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두가지 경우에서였다: (1)옥외설교, 그리고 (2)평신도를 설교자로 활용. 그는 그의 성공회 동료들로부터 비난 받았다. 그의 동생 찰스 마저도 평신도들로 하여금 목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험한 혁신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웨슬레는 그의 능력적 목회의 반세기동안에 653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켰다. 1739년과 1765년 사이에, 그는 193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켰다. 1765년부터 1790년까지, 그는 460명의 평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켰다. 처음 그룹속에 있는 사람들 중의 40%가 그의 죽음시까지 목회에서 그에게 머물렀으며, 두 번째 그룹의 65%가 그의 죽음시까지 그와 함께 사역했다. 그가 훈련시킨 653명중에 374명(57%)은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와 함께 사역을 계속했다. 그는 평신도들을 선택하여 훈련시키는데 상당히 효율적이었다.

언제 웨슬레가 처음 평신도를 설교하도록 활용하였는지는 확실치 않다. 첫 번 평신도설교자의 이름은 험프레이(Humphrey) 였다고 어떤이는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그것은 아마도 존 세닉(John Cennick) 이었다고 느낀다. 전통은 그것은 토마스 맥스필드(Thomas Maxfield)였다고 말한다. 이런 보고들에 따르면, 한번 요한 웨슬레는 그의 설교약속시간에 런던에 도착하지 못했다. 토마스 맥스필드라는 평신도가 그 예배에 사회를 보고 있었다. 웨슬레가 오기를 한참 기다린 이후에, 맥스필드는 결국 강단으로 올라가 설교하기 시작했다. 웨슬레가 영국에와서 이것을 알았을 때, 그는 화를 내었다. 맥스필드를 꾸짖는동안 웨슬레의 엄마 스잔나(Susanna)가 화해하기를 강력히 훈계했다. 그녀는 웨슬레가 그런것처럼 맥스필드도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켰다. 웨슬레는 그녀의 충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평신도설교자로서 평신도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평신도들의 군대가 그룹이 영국에 영향을 끼치려고 일어났다. 웨슬레는 평신도목회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 웨슬레는 혁신가였다. 그는 복음을 많은 군중에게 선포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것을 평신도들과 함께 수행할수 있었다. 웨슬레의 행동은 종종 먼저 왔다; 그의 신학은 통상적으로 나중에 그를 후려했다. 웨슬레는 계획(design)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쩔수 없이 평신도를 활용하게 되었다.

웨슬레와 평신도 설교자를 보자. 웨슬레의 평신도설교자들과 다른 평신도 설교운동의 주요차이는 성직자에 대한 그것의 관계성에 대한 그것의 관계성안에서 선행하였다. 중세기의 어떤 평신도설교운동은 반성직적이었다. 그들중에 어떤 이들은 기성교회를 심하게 공격하였다. 웨슬레는 이것을 피하려고 했다. 그는 만약 평신도가 알맞게 훈련되었다면 평신도가할수있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해 했다.

그들의 목회를 위해 평신도들 구비시키는데 가장 자질을 갖춘 사람은 대개 목사이다. 웨슬레는 그들의 목회들을 위해 평신도를 훈련시키는데 있어서 그를 도와주는 일단의 성직자 그룹에 상당히 의존했다. 그들은 그를 도와서 상당한 평신도들을 동기부여하고, 훈련시키고, 구비시켰으며, 더 나아가 영국전역에 그리고 미국까지 파송하였다. 그는 이런 사역을 위해 성공회신부들을 전국적으로 동원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별로 동조하지 않았다.

웨슬레는 이런 평신도설교자들을 순회하는 팀으로 조직하였다. 1746년에, 단지 6개의 순회팀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1791년 웨슬레가 죽을때에, 영국에서 만도 114개 평신도설교자 순회팀이 생겨져서 복음을 증거하였다.

평신도설교자는 무엇을 하는가? 분명히, 설교하였다. 웨슬레는 평신도설교자들이 무엇을 설교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누구에게 설교하고, 어디서 설교할지의 지침서를 만들었다. 무엇을 설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웨슬레의 평신도설교자들은 자신의 견해로 설교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평신도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웨슬레에게는 가장 중요하였다.

어떻게 설교할것인가?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복음의 본질을 이해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단순하게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평신도설교자들이 평범한 진리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평범한 말로 하기를 원했다. 누구에게 설교해야 할것인가? 웨슬레는 복음은 이세상에서 별로 가진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아주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어디에서 설

교해야 하는가? 어디든지인데, 비록 그것이 옥외라도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웨슬레는 옥외 설교자로서 상당히 비평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평신도설교자들이 옥외설교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늘 생각하였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안된다. 우리는 가서 그들을 만나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더 사용해야 한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웨슬레의 평신도설교자들은 설교뿐만 아니라 목양도 하였다. 평신도설교자들은 수천명의 영국 젊은 새신자들을 목회적돌봄(pastoral shepherding care)을 제공하였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사도시대의 목양도 웨슬레가 한 엄청난 목양만큼이나 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웨슬레의 평신도설교자들은 설교와목양 그 이상을 하였다. 그들은 찬양을 많이 하였는데 찬양은 후일에 감리교 부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비록 존과 찰스 웨슬레는 많은 찬송가를 지었지만, 웨슬레는 그의 평신도설교자들에게 노래를 계속 지을 것을 강조했다. 그는 그들의 기억들을 글로 쓰라고 그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것을 출판하는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평신도설교자들의 삶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들을 읽을 수가 있었다. 어떤 사람의 영적인 순례여정을 주의 깊게 적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웨슬레는 느꼈다.

평신도설교자들은 단지 웨슬레가 훈련시킨 평신도설교자들이 아니었다. 때때로 그는지역설교자들로 알려진 그룹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10여명이 되는 소그룹들의 영적인 수준을 갖춘 크래스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 그룹의 지도자는 그룹의 각각을 위해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었다. 크래스와는 별개로 거기에는 밴드가 있었다. 밴드는 더 작은 그룹으로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같은 성(姓)의 기혼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 더 친숙한 삶을 위해 모였다.

그 다음에 웨슬레는 훈계자들(exhorters)을 가졌다. 훈계자는 권고하고, 경고하고, 또는 경고하기 위해 그룹앞에서 말할수 있다. 평신도설교자와는 대조적으로, 훈계자는 원고를 갖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는 성서본문으로 부터 택해서 그것을 다루지 않도록 되어있다. 단지 평신도설교자만이

그럴 수 있다. 이런 평신도목회 위치에 덧붙여서, 웨슬레는 재정부와 봉사부를 갖고있었다. 그는 또한 환자들을 방문하는 그룹을 만들기도 하였다. 존 웨슬레는 아마도 기독교역사에서 목회를 위해 훈련시킨 가장 강력한 평신도의 네트워크를 가졌다. 우리는 이런 분야에서 2000여년 이전에 그가 했던 것을 오늘날도 할 수 있다 고는 결코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웨슬레의 평신도설교자들중의 하나는, 1771년 26세에 미국으로 파송된 에슈베리(Francis Asbury)이다. 그는 후에 미국 감리교도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 감리교가 미국에서 엄청나게 확산된 주요이유는 에슈베리가 평신도설교자들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감리교가 미국에서 갑자기 성장한 유일한 교단은 아니다. 침례교 신앙 또한 광야와 대초원을 걸쳐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것은 평신도의 적극적인 활용에 기인한 것이었다. 켈프벨(Alexander Campbell)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그룹을 창설하였다. 19세기 미국에서 그들의급속한 성장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목회를 강조한 것이 전적인 이유였다.

우리앞에 있는 수세기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 목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다. 목사와 평신도 똑같이 우리앞에 이미 있는 운동속에 평신도의 사역을 탐구하면서 엄청난 유익(혜택)들을 거두어 들일수 있다. 우리는 오래고, 풍부한 유산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라는 것을 급속히 확증시키는 유산.

더 나아가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성서의 은사들에 대해 갱신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건강한 조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와 우리의 동료 사람들을 그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다.

은사에 대한 이런 강한 관심은 그것 자체에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은사 강박관념(망상)의 잘못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은사라는 것이 그들 자신으로는 끝이 아니라 끝이 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어버릴때 생겨진다. 우리의 매력은 그들을 주신 하나님에게 보다 우리의 은사에 있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은 봉사를 위해 그런 은사를 주신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며, 그런 은사들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모른다. 앵겔과 노턴(James Engel and W. Norton)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영적 은사들을 알지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므로, 믿는자들이 경작해야할 근본적이 목회는 이런 은사들을 캐내는 것이고 믿는자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도바울의 경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랑-아가페사랑-이 어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그는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 어떤것보다도, 아가페는 우리의 목회를 특정지워야 한다. 다른 어느것보다도 아가페가 우리의 행동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희랍어는 사랑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있다: 사랑: 1. 필레오(Phileo) 2. 에로스(Eros) 3. 스토르게(Storge) 4. 아가페(Agape)

필레오 사랑은 형제적인 사랑이다. "필라델피아"는 '형제적인 사랑의 도시'라는 뜻이다. 사랑의 두 번째 종류는 에로스 사랑인데, 관능적인 사랑이다. 그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섹스를 의미한다. 에로스 사랑은 서로에게 매력적이다. 세 번째 사랑은 스토르게사랑인데, 혈육 사이에 사랑이다. 이 말은 신약성경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아가페사랑이다. 만약 그것이 바울이 말한것처럼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것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가페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일먼저 아가페는 자연발생적이다. 그것은 죄인을 사랑한, 완전한 하나님이 되게 하는 사랑이다.

제15장: 폴스티븐스의 평신도목회

폴스티븐스 교수(Dr. Paul Stevens)는 현재 캐나다 밴쿠버 리전트대학의 평신도목회 교수이다. 저서로는 21세기를 위한 평신도신학,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등등으로 평신도목회분야에서는 세계적인 학자이다. 2005년 11월에는 국내에 초청되

어 장신대. 영동교회 등지에서 특강도 한바 있다.

폴스티븐스교수는 신학교시절(McMaster, 온타리오 헤밀턴) 엡4:11-12 절의 의미를 접하고 평신도목회에 관심갖기 시작하여 평생동안 이분야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평신도목회를 직장/사회/정부 등등에 적용해가는 광범위한 개념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구비시킨다'는 개념에는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겨 이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제16장: 그레그옥텐의 평신도목회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은 신약성경에서 보여 주는 모범을 분명하게 따라야만 한다. 미국교회안에서 현재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재발견되고 있는 사역의 개념들은 한국에서도 타당성이 있을 줄로 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역은 목사들과 선교사들, 아니면 신학교교수들이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반면에 성경에서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모든지체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사역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때문에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교회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사가 주는 것을 받으려는 자세로 교회에 나오며, 또한 자신들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있을때 목사들이야말로 자신들에서 영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종교전문가들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미국교회 가운데 신선한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 바람을 '새로운 종교개혁'이라 부른다. 종교개혁의 한 약속이었던 '만인제사장'이 현실화 될 수 있음을 이제 발견하고 있는것이다. 그동안 교회에서 10에서 20퍼센트의 사람들만이 사역에 참여하고있는반면, 나머지 8,90퍼센트는 구경꾼들이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의해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이미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은 평신도목회자(lay pastors)들의 네트워크

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역이 활성화 되고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평신도 목회자가 인도하는 가족단위(flock family/4-5명)는 서로에게 기본적인 목회돌봄을 제공하여 그리스도안에서 성숙하도록 t로 격려하게된다.

전문가의 사역으로부터 '모든 지체들의 사역'으로 초점을 전환 한다는 것은 목사의 역할에 있어서 극적인 변화(paradigm shift/by Thomas Khun)가 요구된다. 자신들의 위치 때문에 영적거인으로 추앙을 받는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종으로 tjatrl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며, 그 주된사역은 성도들이 사역할수있도록 세워주는것(equipping)이다. 이 변화야말로 가장 큰 변화일것이다.

우리는 목사의 역할을 스포츠팀의 '코치'와 비슷하게 여기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코치는 팀의 각 선수들이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며, 또한 팀이 하나가되어 경기를 효과적으로 할때 비로소 성공했다는 말을 듣게된다.

한국교회에도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는데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을 세워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가도록하는 자기 스스로가 먼저 제자로서 삶을 보여주는 삶은 정말 찾아보기 쉽지않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위해서는 먼저 조직과 중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유기체적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목사의 전통적인 역할이 성도들을 세우는 모습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지도자의 결단을 먼저 요구한다. 또한 평신도들 역시 지도자들로부터 받기만 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 주어진 은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그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새로워져야할 교회의 변화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바울이 모두 내던져버렸던 그 배설물을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것처럼 가슴에 부둥켜안고 있는 우리자신의 허망한 모습을 바라본는데서, 그리고 깨닫는데서 시작된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종교개혁 과제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서이 많이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만인제사장,' 즉 모든 평

신도와 성직자들은 남여를 불문하고 사역자로 세우는 일이다.

현재교회의 모습은 목회자들은 과다한 일 때문에 지쳐있고 대다수의 교인들은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만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분명히 성장하고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이유를 살펴보면 사역의 많은 부분을 성들도들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7장: 멜빈의 평신도목회(LPM)

평신도목회자개념이 처음으로 소개된 것은 미국인 멜빈스타인브런 박사에게 의해서였다. 그가 오하이오에 있는 칼리지힐 장로교회 교역자로 있을 때 헌신적인 몇 명의 평신도 그룹과 함께 평신도목회를 계획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그 출발점이다. 그는 평신도는 "양떼를 돌볼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1978년 평신도목회자연구소는 6개월 간의 시험프로젝트를 실시한 5명의 초기그룹과 함께 시작된 것이다. 이미 미국은 평신도목회자란 용어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이것이 한국에 정착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의 정서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신도 목회자.' 이것은 기존의 교회를 치리하고 담임하는 목회자에 대한 도전적인 개념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 목회자의 사역을 돕기 위해, 더 나아가 교회의 선교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개념이다. 현재 평신도목회자목회는 5대양 6대주에서 활발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21세기 주요사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목양'(Pastoral Care)' 개념이다.

평신도목회사역(LPM)이란 무엇인가. LPM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의 돌봄으로 세워나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목적은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순수하고 효과적인 목양사역을 전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목회적인 은사들과 가슴으로 혹은 피부로 느끼는 사랑을 교회성도들에게 전해 교회의 질적/양적 성장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모든 목적과 취지는 예수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성도들이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헌신적인 평신도를 양육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평신도목회자 개념이 극대화되면 교회사역에 활성화가 일어날것이 분명하다. 흔히 교회를 담임하고있는 목사들 특히 중, 대형교회목사들은 모든 평신도들을 내 집처럼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일이 하나하나 모든 성도들을 챙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도로 대신하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평신도목회자 개념이 정착되면 해결될 수 있다. 평신도 목회자 목회는 바로 담임 목회자들이 교회전체살림을 끌어가는데 있어 손이 모자를 때 이들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 즉 목양사역의 일부를 평신도목회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듯 교회내 사역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면 먼저 사랑과 돌봄의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된다. 결국 교회내 모든 성도들은 '목회에서 동역자'라는 사실이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성도간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할 수 있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준다.

그렇다면 평신도목회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들은 치고(tending), 목양하고(shepherding), 연관짓고(connecting), 돌보는 것; 즉 P(prayer), A(available), C(contact), E(example)의 일을 하는 것이다. 즉 평신도목회란 평신도가 목회적으로 다른 성도를 돌보는 것이다. 성경에 비추어보면 평신도는 교회내의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을 구성한다. 서목사는 평신도와 전임목회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평신도목회자는 평신도들 가운데 목회적 은사를 받은 분이 목회적 소명을 받아 적은 수의 양들을 돌보는 사역자인 반면 전임 목회자는 소명을 받아 완전히 목회 사역을 위해 헌신하여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아 안수를 받은 사역자를 말한다. 또 여기 두 사역자간에는 헌신적인 시간의 차이가 있다. 전임목회자는 24시간 모두를 성도의 요청시 언제든지 그 시간을 할애해야 만 한다. 하지만 평신도목회자는 가능한 시간을 내어서 섬기는 것이다.

한편 사랑의 교회 옥한흠목사, 할렐루야교회 김상복목사, 성결대 총장 성기호 박사는 '현대 교회의 급선무는 평신도목회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이를 교회들에게 인식시켜야한다'며 평신도목회자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향후 평신도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큰 일익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신도목회사역(Lay Pastors Ministry: LPM)은 평신도에 의한 회중적인 돌봄의 시스템이다. 그것은 4대양 6대주의 수백개 교회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내양을 돌보라" 그들의 회중들의 각각에 대해 그리고 각각을 위해 목회적으로 돌보고 있는 안수받은 성직자의 전통적인 시스템은 실패했다. 이것을 충분히 행할 교역자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결코 없다.

이런 현실과는 별도로, 하나님은 또한 각 믿는자들을 위해 목자(shepherd)가 되도록 그들의 회중의 영적지도자들(안수 받은 성직자)을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다. 일대일이고, 개인적이고, 계속적인 돌봄을 위해, 거기에는 "회중석에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 "회중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전체로서 회중을 목양하는 동안(설교, 가르침, 비전주기, 또 LPM과 같은 평신도목회를 위해 교회의 삶안에 공간을 창조하는 것) 개개인을 목양해야하는 사용되지 않은 목회적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LPM은 그들의(평신도) 목회들을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LPM을 위한 성서적 모델은 구약성경 18장 안에 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는 한번에 그의 백성을 돌보려고 하였다. 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시스템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았다. 그는 모세에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지명토록 하였다. 그는 이드로의 충고를 따랐고, 그리고 그것은 잘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돌보아졌다. "회중적인 돌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은 시작되었다. 그것은 새포도주부대(a new wine skin)에 담긴 새포도주(new wine)였다.

LPM(Lay Pastors Ministry)은 1978년 미국 오하이도 신시네티에서 있

는 칼리지힐 장로교회에서 처음 시작 되었다. 담임목사 제리크릭 박사(Dr. Jerry Kirk)는 2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사람들, 연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돌보아 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멜빈 스타인브런 박사는 1976년에 부교역자로 갔다. 그의 직함은 목양담당목사(Minister of Pastoral Care)였다. 그의 "부름"은 목양을 하고, 또 목양을 하도록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것(equip laypeople to do pastoral care)이었다.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15명의 다른 평신도들이 8개월 동안 두주에 한번씩 만났다. 그리고 이전에는 단지 성직자 만이 해왔던 것을 평신도가 하도록 은사를 활용하고 훈련시키는 새로운 회중돌봄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것을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다른 개념에서 LPM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평신도 목양(lay people's pastoral care)은 다음과 같이 성직자 목양(clergy pastoral care)과는 다르다:

1. 그것은 "피부로 느끼는 사랑"을 하는 '일대일'의 동료목회이다.
2. 그것은 상담이 아니다; 그러나, 상담이 이루어 질수도 있다.
3. 그것은 전문적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의 질적인 면에서 그렇기도 하다.
4. 그것은 눈에 띄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몇사람에게는 눈에 띈다.
5. 그것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훈련하고 파송한다.
6. 그것은 사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은사와 시간을 할애(자원자)한다.

LPM 은 상당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목회를 하는 보통사람들, 성도들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들의 모델은 "배움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로서 관찰되어진 사도들이다(행4:13). 그들의 결과는 놀랄만하

였다; 3000명이 그들 모임에 더해졌다(2:41);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더해졌다(2:47); "숫자는 5000명 정도까지 성장했다"(4:4).

사도바울은 왜 보통사람들(주부, 가게주인,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선생, 농부 등등)이 엄청난 사역을 할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있는 것이 아니라.....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가 우리를 능력있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바울은 덧붙였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감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하려 함이라"(고후3:5-6; 4:7).

LPM 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전세계적으로 평신도목회를 외치는 분들(목회자들,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다.

평신도목회는 Lay Ministry 라고 한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역을 평신도목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면 굳이 왜 LPM(평신도에 의한 목회적돌봄)이란 것이 필요한가. 두가지 측면에서 본다: 1) 우선 성경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목적중에 하나가 LPM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이것은 한국 LPM 연구소에서 번역한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 제4장에 잘 정리되어 있다(마 28:19-20, 전도/제자화; 그리고 요21:15-17의 돌봄/목회자화). 교회가 이두가지에 균형을 이루어야하는데 두 번째 것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 국내외 교회들의 공통적인 약점이다. 2) 또 하나는 모든 평신도사역에서 인프라 (infra, 기반)가 매우 중요한데,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평신도목회의 모든 학자들이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돌봄(caring)이라는 것이다. 예를들어 폴스티븐스(리첸트대학), 짐갈로우(센디에고), 신양탄(풀러), 존맥스웰(INJOY), 멜빈스타인브런(LPM), 케넷호크(스테반사역) 등등의 학자들이다. 이것이 된 다음에 성경공부, 제자화, 소그룹, 선교, 사역 등등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돌봄(caring)- 교회성장에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성장, 성숙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필수적인 인프라 라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교회문화(church culture)가 좋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예로, 상처가 있는 성도는 헌신을 안 한다는 것이다. 즉, 교회문화의 변화가 헌신 이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좋은 문화나 안 좋은 문화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데에는 LPM이 꼭 유용하다. 그 이유는 ‘변화’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전투적이고, 두렵게 느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변화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좀 안 좋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불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LPM은 교회의 변화를 가져오긴 하는데 돌봄(용납, 이해)으로의 변화를 추구해가기에 두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이다.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가져온다는 것이다.

교회문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제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좋은 문화를 가꾸어 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성장이라는 결과가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LPM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은 한국 평신도목회연구소의 존재이유와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교회성장이 그 목적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부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LPM 궁극적 목적도 그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성장에도 그 과정이 있다. 미숙아에서 성장이나, 성숙에서 성장이나. 우리 LPM의 목적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결과보다 과정에 치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안다. 하지만 과정에 치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그러면서도 결과를 기다리는 조급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론인 LPM의 목적에 대해 조명해보고자 한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성장’이 LPM의 목적임에는 틀림없다. 교회성장이 안되는 LPM을 아무리 외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 교회성장이란 무엇인가? 교회성장은 쉬운 말로 숫자성장이다. 성숙이란 말은 숫자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청소년이 자나가면서 키도 크고 몸도 늘어나는 것이다. 걸보기 예는 그렇다. 그런데 아는 지식은 초등학생 수준이라든지, 하는 행동은 어린애와 같다면 우

리는 저능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이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LPM에서는 바로 이런 것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이든 만큼 행동도 걸맞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LPM목적(결과)은 교회성장이지만, 그것의 목표(과정)은 개인 성숙이다. 아니 개인 성숙뿐만 아니라 공동체(교회), 그리고 목사의 성숙, 성장도 포함된다. 목사의 성숙, 성장은 여기서 다루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러나 함께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얘기이다.

LPM의 목적은 교회성장이다. 그러나 질적인 성숙이 없이 성장을 기대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제18장: 바울과 베드로의 평신도목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평신도목회를 말하고 있는 주요구절은 에베소서 4:11-12절이다. 이것은 평신도목회라는 개념을 생각하는 모든 목회자, 학자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의견이다. 에베소서 4:11-12절을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은 할렐루야교회의 김상복목사님, 리젠트대학의 폴 스티븐스 교수, 풀러의 그레그옥텐교수, 달라스의 슬로컴 장로, 스카이라인의 짐갈로우, 스테 반목회의 켄 호크 등이다.

할렐루야의 김상복목사님의 경우 1966년 처음 에베소서 4:11-12절의 강해를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에서 전도폭발 운동의 창시자 제임스 케네디(James Kennedy)목사로부터 처음 들었는데 그때에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큰 충격을 받고 깊이 공감한 나머지 그 이후부터 평신도목회(lay ministry)라는 표현을 오늘까지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다고 했다(2000.6.27-28일, '평신도목회자컨퍼런스'에서 강의). 평신도들도 영적인

사역을 함께 하도록, 즉 목회자적 헌신과 비전을 갖도록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평신도를 목회자화하여 그들이 목회자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바로 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의 목회철학이요, 본래 사도 바울의 생각이요, 또 본인도 너무나 잘 공감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

미국 칼빈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점옥목사의 경우는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그는 에베소서 4:11-12절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다. 김점옥목사는 홍익대, 총신, 총신대원을 거쳐 칼빈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필자와 함께 2000. 6. 27-28일 할렐루야교회에서 세미나를 인도한바 있다.

이것은 목회자, 평신도, 교회에 대한 서로간의 관계를 질서 있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 본문을 좀더 도식화한다면 a)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some, 목회자)은 사도, 선지자, 복음전하는자, 목사와와 교사, b)목회자 사역의 목적(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c)평신도의 목적(사역)은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d)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목회자의 주임무는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사역임을 확신시킨다. 목사와 교사라는 개념은 별개의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가지 역할, 즉 목회자는 목회와 교사의 양쪽 역할, 좀더 쉽게 표현하면 목양(요21:16)과 구비시킨다(엡4:12)라는 양쪽 역할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상복목사님의 주장).

리젠트대학의 폴 스티븐스 교수의 예를 보자. 폴 스티븐스 교수는 우연히 필자와 같은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캐나다 해밀턴에 있는 맥메스터 대학(M.Div, McMaster University)이다. 지금도 그 당시 학장이었던 힐머(Melvyn Hillmer) 교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있다. 그분은 맥메스터 M.Div에서 하버드 Ph.D로 바로 가서 학위를 받은 석학이셨다. 필자의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준 분이다. Paul Stevens는 신학교시절 과목에도 없는(애석하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놀라운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

은 에베소서 4장을 공부하면서였다. 교회지도자들, 다시 말해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목회의 사역(the work of ministry)"을 위해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이다. 일부 영역본들(예: KJV)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아주 잘못된 삽표가 하나 찍혀있다. 그래서 목사의 일은 성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기 보다 자신들이 직접 사역을 하는 것이란 오해를 초래했다(Liberating the Laity, 번역서, p. 22). 이 번역본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봉사의 일과, 성도를 구비시키는 일을 위한 것이다'로 되어있다(영어인용: KJV, RV, ASV 그리고 RSV). 그러므로 이 번역본에 따르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교역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삽표는 삭제되어야 한다. 최근의 영어번역본들은 이 오류를 잘 바로잡고 있다. 즉,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복음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을 주셨는데, 이는 "성도들이 사역을 하게끔 그들을 구비시키는자" 들로 삼으셨다.

샌디에고 스카이라인 짐 갈로우의 경우를 보자. 짐갈로우는 프린스턴과 드류에서 공부(Th.M, Ph.D)하며 '평신도에 대한 존 위슬레의 이해'로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60년대 후반 신학교 2학년 때에 역시 제임스 케네디로부터 에베소서 4:11-12절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의 역할은 모든 목회를 그들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고 동원시킨다(to equip and mobilize)는 것이다. 에베소서 4:12절에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은 성취해야 할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12절에서 설명되어있는데 근본적으로 한가지 일이라는 것이다. 그 일은 바로 목회의 사역을 위해 모든 믿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비시킨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회사역은 그 다음에 교회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의해 그의 교회에 주어진 사역들은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목회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 목사이든지 전도자이든지, 또는 교사이든지 일차적으로 할 일은 목회를 나누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구비시키는 자(equippier)가 되는 것이다. 신학교의 주요 할 일은 단지 전문적인 예비목회자를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평신도)의 사역들을 위해 그들(평신도)을 훈련시킬 수 있는 예비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풀러신학교의 그레그 옥덴교수를 보면, 그는 특별히 12절의 '구비시킨다' (7)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며 이에 대해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한 학자이다. 그는 성경적으로, 어원적으로 접근한다. 헬라이어 카타르티스모스(katartismos)는 '구비시킨다(equip, RSV),' '온전케 한다(perfect, KJV),' '준비시킨다(prepare, NIV)'와 같이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카타르티스모스와 이와 관련된 비슷한 류(類)의 단어들을 성경에서 살펴본다면 구비시키는 사역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다섯가지를 말하고 있다: 1)아르티오즈-'온전케 되다'; 2)카타르티조-구약에 19회, 신약에서 13회사용; 3)카타르티스모스-'준비시키다'; 4)카타르티시스-'회복, 완성' 5)에크사르티조-'채우고 완성'. 그리고 또한 구비시킴(equipping)의 의미를 세가지 측면에서 분류한다: 1) 고치다, 회복하다; 2) 세우다, 기초를 놓다; 3)준비하다. 훈련하다.

멜빈목사(Melvin Steinbron-미국 평신도목회협회 총재)의 경우를 보자. 그는 첫번째 책8)에서 "30년간의 목회하는 가운데 평신도는 목회를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성서적인 가르침(엡4:12)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고백했다. 1976년 1월, 그는 그의 신학에 자극을 주는 어떤 내적인 움직임(그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 라고 부른다)을 느꼈다. 그는 이런 새로운 느낌을 갖고 목회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여 결국 평신도목회자사역(LPM-Lay Pastors Ministry)이라는 평신도목회개념을 구체화했을 뿐 아니라, 미국에서 협회로까지 발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인하게 되었다.

필자의 경우를 보자. 본인은 평신도목회사역(LPM)이라는 개념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나름대로는 '헌신'이라고 붙인다). 이 사역은 개 교회에 가서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훈련(equipping: 구비, 무장)시키는 것이다. 물론 세미나 내용은 '내 양을 치라(tend my sheep)'는 것이지만, 평신도가 이 사역을 하게된다는 성서적 근거는 에베소서 4:11-12절이기에 세미나(12시간) 중반부 이전에 이 본문을 분명히 상기시키며 평신도의 목회(pastoral care)동참을 강조한다.

베드로의 평신도목회 개념을 보자. 사도베드로는 단지 전문적인 성직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들(ministers)이라고 강조하는 바울에 일치한다. 벰전 2: 4-5, 9-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서술하는 이 구절들 안에서 6가지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영어성경 TEV에서 첫 번째는 "산돌";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 세 번째는 "택함 받은 족속"; 네 번째는 "왕의 제사장"; 다섯 번째는 "거룩한 국가";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신의 사람."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를 서술하는 첫 번째 용어는 "산돌"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만약 우리가 "산돌"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법에서 사용되어야 하는가? 우리들의 봉사와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계속되는 건축프로젝트-왕국의 건설-에서 모퉁이 돌이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부적합성(부적당)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돌이 되고, 그리스도가 사용한 같은 건물의 부분이 된다. 지금 당신 주위를 둘러 보라.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것을 듣기조차 할 수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류가 짚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건축 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런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5절에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불린다; 더 나아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린다.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우리자신이다.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들로서 우리는 제사장들인데 봉사와 목회에서 하나님

께 우리자신을 매일 드리는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선택된 족 속의 부분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왕 같은 제사장"사이에 있다고 그것은 말한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제사장들이 아니다; 우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 전 우주를 통치하는 왕! 얼마나 명예스러운가?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직"에 속해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국가의" 멤버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그렇게 행운아인가? 왜 우리는 선택되었는가? 우리는 선택되었기에 우리는 멋지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활동이란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이것이 평신도의 사역이다. 이것이 우리각자의 목회이다. 우리 모두는 그에게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되었다. 우리는 특별한 왕국, 특별한 사람들의 나라의 부분이며,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인 목회를 위해 구별되었다.

오스카 퓨케트(Oscar Feucht)는 <모든 사람은 사역자이다> 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호칭들은 모든 신자들을 사역자의 위치로 올려놓는다. 그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에 의해서 한 번 수행된 역할 속에 모든 크리스찬을 넣는다." 토마스 길레스피(Thomas Gillespie)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평신도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가진 새로이 상승하는(upward)방향이다- 목회자의 위치로 가는 하나님의 모든 멤버들의 상승"

사도베드로는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단어들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성전(temple)"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건설된 것, 즉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썼듯이 "땅위에 하나님이 '살고있는

것'은 더 이상 세상과는 구별된 건물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사람들로서 인 것이다." 에베소서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 성전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2:19-22).

사도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단어는 우리의 토론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말이다. 제사장이란 누구인가? 모든 믿는자들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직이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한시켰던 때가 성서역사 속의 어떤 시대에있었다. 그런데 신약성서에는 그렇지 않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약의식은 임시적이었고 새로운 제사장직이 형성될 어떤 날이 온다는 것이다. 그날이 왔다! 우리가 그 제사장직이다.

신약성서 의미속에 있는 것 중에 또 우리가 이해해야할 것은 "희생"이라는 용어이다. 신약은 희생을 끝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희생의 본질(성격)을 확실히 바꾼다. 신약안에서 요구하는 희생은 우리자신들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우리의 활동을 의미하는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한 희생으로 드려야한다고 말한다(롬 12:1). 우리의 희생들은 찬양과 감사, 개인적인 고백, 사랑스런 봉사, 또는 사랑의 영안에서 행한 행동들을 포함할 것이다. 이런 모든것들이 목회를 함유(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제사장으로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희생을 드려야 한다. 한스쿱(Hans Kung)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런 제물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의 일부분이 아니라, 세상속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가운데 있는 예배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스런 봉사인 것이다.....이것이 신약성서 제사장직의 진정한 희생이다."

구비(equipping)

구비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평신도목회에서 이 개념(equipping)은 빠질 수 없는 것이다. 엡 4:11-12 절에 나오는 목회자의 할일중의 하나로 성도를 온전케 한다(to equip the saints)는 본문이다. 그러면 이것과 [훈련시킨다/training] 와 [가르친다/teaching]의 차이는 무엇이며, 왜 이런 용어가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우선 목회사역에서 가르친다 에는 상당한 헛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즉 가르치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런데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제는 편만하게 이해되어지고 있다.

예를들어 북미의 신학교들에서는 임상목회(CPE: Clinical Pastoral Education)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지않은가. 신학공부를 학교에서 마친 사람들이 목회 현장에 가기전에 실습을 해본다는 것이다. 대개 full-time 으로 3개월을 합니다(하루 8시간, 12주). 나도 이 훈련을 받아보았기에(3개월과 7개월 두번) 그들의 의도를 알고 있지요. 학교에서의 가르침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마치 ‘신자-제자-사역자’로 변화가 되어가야 하듯이(교회성장연구소-홍영기 소장의 주장), ‘가르침-훈련-구비시키는 것’으로 변모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초신자일 때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앙생활한지 10년, 20년되어가는 신자들을 계속 가르치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초신자로 또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배움이라는 것(learning)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나도 백번 이해한다. 그런 충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우리나라도 이것을 깨달아가지마는 북미에서는 이런 문제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래서 훈련도 1년, 6개월, 3개월로 점점 짧아지고 있다.

구비시킨다는 것은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활용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사역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learning 시스템이 아니라 'ministry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구비시킨다는 것을 현실화시키려면 우선 비전, 그리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두가지는 의도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두가지 사이에는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비전을 의도적으로 제시할 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교회 내 현상이다. 즉, 비전(제시)-문화(변경)-시스템(구축)이라는 순서라고 본다. 비전이 의도적으로 제시되어 문화가 자동적으로 바뀌어져가는데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비전은 공허한 껍데기가 될 것이며, 바뀌어진 문화는 실망과 낙담의 결과만을 가져 올 것이다.

교회는 사역하는 사역자를 만드는 곳이지, 배우는 학생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교회만이 미래에 성장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상유지에 급급해 할 것이다.

제19장: 구비시키는 사역

설교자는 강단에....., 평신도는 좌석에....., 이 둘은 190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던 그리스도인의 정서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가난하게 태어난 자는 누구나 영원히 가난하게 살도록 계획하지 않은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누구나 영원히 수동적으로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음을 교회도 깨닫기 시작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사역으로 부름받았다. 누구나 일종의 섬기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구비시키셨다. 우리는 이미 이천 년 전에 바울이 쓴 내용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한 셈이다.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4:11-12).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을 감당한다는 바울의 비전은, 그의 시대 직후에 곧 실종되었다가 1세기 반전에 그리스도 형제단(Christian Brethren)에 의해 재발견되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평신도목회운동(1950년대 부터)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에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모든 신자(평신도와 성직자)는 제도화된 기독교의 울무에서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기위해 은혜로운 협동 작전이 필요하다. 평신도(laity)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오스(laos)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이류 계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아마추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찬사를 나타낸다(Jim Garlow).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머리속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평신도'는 목회자의보조자나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능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 마틴 부버(Martin Buber)의 표현을 빌리면, 이 둘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나-너 관계에서도 모두 상대방의 '너'이다. 평신도와 성직자는 한 옷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평신도에게 신약 성경의 권위를 힘입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 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군요. 당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며,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세상에 있는 화해의 대리인이고, 빛이며 소금이고 누룩입니다. 당신은 목회자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신이 사역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돕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임무입니다(엡4:11-12/paradigm shift)".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비시켜야 (to equip the saints) 한다는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구비시킨다(equip)]는 것은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하도록 목회자가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Paul Stevens). 그러나 이것은 쉽게 충족될 수 있는 필요가 아니다. 다른 한편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정중한 태도로 목회자의 목을 조이면서 자리를 지켜 달라고 요구하기 쉽다. 목회자가 자리를 비우고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전문 사역자를 위한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죄의식을 느끼게 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만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진지하다면, 그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권력, 명성, 지위 같은 것을 갈구하지않는다. 당신은 그를 '유일한' 사역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해도, 그는 매일 새로운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고, 항상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하며, 전지전능하고 유일한 목회자가 되어 달라고 말하는 수백

가지의 기대와 요구, 불평으로 인해 이미 그런 위치로 떠밀려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구비신킨다(equipping)는 개념은 하나의 짐을 더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1인 교회 악단의 리더가 되어 달라는 성도 대부분의 요구도 이루기 불가능한데, 여기에 더하여 구비 사역자(equipping pastor)가 되라는 더 큰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바울이 그런 개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의 은사를 촉진해 주어야 한다. 성실한 목회자들에게 사역은 그저 일만은 아니다. 따라서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일에 투자하는 시간애다가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합한 것만큼을 정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사역에 투자한다.

이런 개념정립과 사역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지금의 위치로 몰고 왔다. 따라서 목회자에게 "목사님, 조금 비켜서서서제 자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혹은 목회자가 평신도에게 "이봐요, 좀더 올라오시구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구비 사역의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한다. [목회에서 동역자-한국 LPM 연구소 번역중]라는 책을 쓴 짐 갈로우박사는 평신도목회사역을 하려면 목회자는 MOVE OVER, 평신도는 MOVE UP, 그리고 그들이 속해있는 교회는 그들과 함께 MOVE OUT되어야 한다는 표현을 즐겨 쓰기도 했다.

엡 4:11-12절은 평신도목회의 대표적인 성구이다. 이 구절에 대한 학자는 다음과 같은데 한사람씩 소개하며 특징과 접근방향을 살펴본다. 우선 폴스티븐스(Paul Stevens) 교수이다. 이 교수님은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대학의 교수인데, 여러권의 책을 써서 국내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 분이다(준비시키는 목회자; 평신도 신학 등등.) 이분은 신학교시절(캐나다 온타오주 해밀턴의 McMaster University), 성서원어 해석 시간에 이 구절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연구하면서 이 방면의 학자가 되었다. 특히 평신도목회의 광의적개념으로 직장, 가정, 사회, 정부속에서 까지 평신도역할을 확장해가면 정리한분이다.

멜빈스타인브런(Melvin J. Steinbron)목사님은 LPM을 시작하신분이다.

LPM의 용어적 의미는 평신도의목회적 돌봄 사역이다. 즉 Lay Pastoral care ministry이다. 이분은 세교회에서 목회하신 후 이 본문의 의미를 재삼 발견하고 “내가 이 본문으로 설교는 많이 하였지만 실제로 이대로 행하지는 않았구나(‘성도들 구비시키는 것’)”라는 반성을 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LPM이라는 사역을 탄생시켰다. 접근 방향은 평신도를 구비시켜 돌봄 사역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 연구소는 이분의 모델을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있다.

그레그옥덴(Greg Ogden)은 풀러신학교 교수였는데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특히 D.Min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의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새로운 교회개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특히 구비시킨다는 개념을 성서적(구약, 신약)으로 잘 정리해 놓았다. 구비시킨다는 기초를 세운다, 고친다, 그리고 준비시킨다는 세가지 원어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로버트슬로컴(Robert Slocum)은 텍사스 하이랜드 장로교 장로님으로 물리학 박사이다. ‘평신도목회의 극대화’라는 책을 써서 한국 연구소에서 번역하였는데, 그것으로 인해 한국의 제4차 컨퍼런스(2004년)에 주강사로 오셨고 또 미국의 제13차 국제대회에 주강사로 초청되었다. 이분은 평신도로서의 역할에 대해 많이 고민하면서 ‘그룹성경공부’로 발전시켜나갔는데, 그런 측면에서 평신도목회를 개발해 나간 분이다.

제임스갈로(James Garlow)는 드류대학 출신으로 샌디에고 웨슬레안 감리교의 담임목사이다. 드류에서 ‘웨슬레의 평신도목회’로 학위를 받았는데 웨슬레가 평신도목회자, 평신도설교자를 훈련시켜 사역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갈로우는 이 논문으로 ‘목회에서 동역자(한국 연구소 번역)’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졌는데, 목사와 평신도의 동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수말로우(Sue Marlow)는 브렌트우드 장로교의 평신도목회 팀장이면서 LPN(리더십훈련네트워크)의 창립멤버이다. 그녀는 ‘구비시키는 교회’라는 책 속에서 엡4:11-12절의 실체가 본인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담임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으

며 평신도목회의 처음(비전)과, 진행(과정), 그리고 끝(결과)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연구소에서 번역중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 방면에 유일한 학자로는 김상복목사님이시다. 목사님은 미국유학시절 제임스케네디목사(전도폭발 창시자)로부터 이 본부의 특강을 듣고 '목회는 혼자서 할 필요 없구나' 하는 부담감을 덜면서 이본문의 실제 의미를 연구하고 목회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오셔서 목회하는 동안 줄곧 이본문을 강조하시고, 또 이 개념으로 평신도목회연구원을 오픈하여 한국교회에 기여하고 계신분이다. 특히 성도는 누구나 다 사역자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12절에 "준비시킨다"는 단어는 종종 "구비시킨다," "완성시킨다" 또는 "온전케 한다"로 번역되어있다. 그것이 신약성서에서 첫 번째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부를 때인 것이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그를 따르도록 두 팀의 형제들을 불렀다((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은 그들의 그물을 고치려고 보트안에 있었다. "수선하다"로 번역된 이 말은 에베소서 4:12절에 나오는 "구비시킨다," 또는 "준비시킨다"로 번역된 같은 단어이다.

이런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갈릴리인 어부의 지도감독 아래 네트가 수선되는 과정이, 우리 주님의 지도감독아래 우리가 수선되어 가는 것에 비교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 네트들은 구비(고쳐지는)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들은 고쳐지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다. 그들은 그들이 의도했던 목적을 위해 준비된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각각에게 맡겨진 목회의 사역을 위해 알맞도록 건축 중에 있는 것이다.

사도베드로는 단지 전문적인 성직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사역자들(ministers)이라고 강조하는 바울에 일치한다. 뵤전 2: 4-5, 9-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

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흠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서술하는 이 구절들 안에서 6가지 용어들을 사용하였다. 영어성경 TEV에서 첫 번째는 "산돌";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 세 번째는 "택함 받은 족속"; 네 번째는 "왕의 제사장"; 다섯 번째는 "거룩한 국가";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신의 사람."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를 서술하는 첫 번째 용어는 "산돌"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만약 우리가 "산돌"이라면 우리는 어떤 방법에서 사용되어야 하는가? 우리들의 봉사와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계속되는 건축프로젝트-왕국의 건설-에서 모퉁이 돌이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부적합성(부적당)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돌이 되고, 그리스도가 사용한 같은 건물의 부분이 된다. 지금 당신 주위를 둘러 보라.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것을 듣기조차 할 수도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류가 짤 수 있는 것보다도 더 큰 건축 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런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5절에서,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불린다; 더 나아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불린다.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우리자신이다.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들로서 우리는 제사장들인데 봉사와 목회에서 하나님께 우리자신을 매일 드리는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9절과 10절에서, 우리는 선택된 족 속의 부분이라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그 다음에—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사이에 있다고 그것은 말한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제사장들이 아니다; 우리는 왕의 제사장들이다. 전 우주를 통치하는 왕! 얼마나 명예스러운가?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직"에 속해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국가의" 멤버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선택되었는가? 우리는 선택되었기에 우리는 멋지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활동이란 것을 알려줄 수 있다. 이것이 평신도의 사역이다. 이것이 우리각자의 목회이다.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선택되었다. 우리는 특별한 왕국, 특별한 사람들의 나라의 부분이며,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인 목회를 위해 구별되었다.

제 20장: 구비사역에 대한 오해

구비시킨다(equipping)는 것은 위임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자신들의 사역에서 특정 부분을 평신도에게 위임할 때, 평신도들을 구비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교회에는 한 사람이 이를 수 있는 사역 외에 그것보다 더 많은 사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다. 즉 이 사역은 목회자가 인계해 주어야 하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 본질상 평신도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주어진 사역의 은사들이 복수형(pleroma, 충만)인 점은, 밝은 햇빛을 구성하는 전체 스펙트럼의 한 색깔과 마찬가지로, 각 성도가 그리스도 사역의 일부분을 간직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모든 색이 다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 혼자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은사와 사역을 실천해 볼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는 것은 잘못이다.

진지한 평신도에게 가려운 곳이란 바로 불완전하게 고용(unemployed)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만약 평신도가 불완전 고용 때문에 가려워하고 있다면, 목회자는 과잉고용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때가 있다. 목회자는 설교자, 목회자, 상담자, 전도자, 행정 책임자 그리고 사무실 사환 등 1인 교회 악단이 되어 달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구비사역(equipping ministry)에는 단순히 주변의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 교회의 구조와 환경을 근본적으로 확산시키는 것 이상이 요구된다. 교회의 구조와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잘못된 가르침과 반 해방적인 교회 환경으로 말미암아,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평신도의 사역은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서 더 중요하다. 진부한 얘기 같으나 헬라이어 '라오스'는 백성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따라서 목회자도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람들은 이제 구비 사역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며, 점차 교회를 '분주한 운전 기사 한 명과 즐리운 승객 다수로 구성된' 버스로 보기보다는, '모든 지체가 활동적이며 필수적인' 몸으로 보기 시작해야한다.

오늘날에는 많은 훈련 과정, 비디오 테이프, 프로그램 그리고 지침서가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데 사용된다. 그 결과 교회의 성도로 만드는 것은 하나의 기술로 전락했다. 자신들의 신학 훈련을 이리저리 활용하면서 실험하는 목회자들은, 수도원 같은 신학교의 상아탑에서 자신들이 받았던 인식론적, 합리적 기술과 정보를 조금 회석하여 굶주린 성도들에게 먹인다. 그런데 그들은 떡 대신 돌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 때로 비전문 사역자(평신도)들은 자신들이 진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갈망하고 거기에 참여한다.

대부분의 기술 전수 과정에서, 교회는 훈련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진리가 간과되고 있다. 따

라서 좀더 유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으로 평신도 사역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혼자의 힘만으로는 혹은 평신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주님의 사역에서 서로 상대방의 '너'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상호 존경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협동 작전을 펼쳐야 한다.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평신도를 사회에 심어 두셨다. "평신도는 세상 속으로 매일 반복되어 비치는 하나님의 영상이다" 교회는 절대로 외진 구석에 세워진 건물일 수가 없다(헨드릭 크레머). 만약 성도들이 충분히 양육을 받는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넘쳐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신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뻗어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양육은 예수님의 선교를 자신의 것(ownership)으로 여기도록 평신도 지도자를 인정해줄 때 이루어진다. 즉 구비되어 사역에 참여할 때 양육은 그 부산물로 주어진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교회의 모든 잠재력을 세상에서 펼칠 최선의 길을 발견하기 위해 사랑으로 협력할 때, 그들은 우리보다 이 협동 작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헌신하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사역자(minister)이다. 우리가 안수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예수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미있는 목회(the meaningful ministry)에 불렀다. 모든 평신도도 목회에 부름을 받았다.

이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새로울 뿐이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많은 학자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성경 기록자들에게도 새로운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분이 만든 방법이기 때문이다. 평신도목회의 개념은 우리에게 새롭게도 보일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진리는 지금까지 덜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내/외적 현상으로 볼때에, 극서은 우리의 현대시대에 다시 주장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어떤 이는 혁명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이기도 하다.

이 혁명은 평신도들을 해방시켜 그들이 이미 성서적의미에서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것이다. 오게되는 해방(자유)은 뭔가로부터(from)의 해방이 아니라, 뭔가를 향하는(to) 해방이다. 이 혁명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오는 것을 감지한다. 만약 우리가 함께 들을 것 같으면, 나는 여러분 역시 그것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워드 버트(Howard Butt)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지난 수년간 평신도 주장주의에 의해 또는 강조에 의해 산출된 기관들과 프로그램들은 봄에 제비꽃같이 피어났다일어난 것은...크리스찬 책임에 대한 평신도의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종종 평신도목회운동의 대부로서 간주되어온 엘톤 트루블라드(Elton Trueblood)는 다음과 같이 강한 표현을 했다. “만약 보통교회가 모든 평신도-남자나 여자-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역자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아주 짧은 시간에 혁명과 같은 무엇을 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인 토마스길레스피 박사(Dr. Thomas Gillespie)는 이렇게 경고한다: “혁명은 단지 만약 ‘비성직자’가 올라가기(to move up)를 원하고, 만약 성직자가 더 넘어가기(to move over)를 원하고, 그리고 만약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아가기(to move out)를 원할때만이 실현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뭔가 흥분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모든 믿는자는 정말로 목회에 부름받았다는 유산의 의미있는 재주장(reclamation)의 가장자리에 있다. 우리는 그 혁명안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목사이든 평신도이든, 우리는 모든 믿는자에게 오는 목회에 부름받음에 응답하는 즐거운 책임을 가지게 된다.

1960년대 후반 제임스케네디박사(Dr. Jame Kennedy)는 엡4:11-12절을 강력하게 설교한바있다. ‘목사들의 역할은 목회의 모든 것을 그들 자신이 하는 것 보다 목회를 위해 평신도들 구비하고 동원하는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오늘날 급진적인 개념이 아니지만 그 당시나 지금의 우리 몇몇에게는 파격적인 개념이다.

평신도목회(lay ministry)는 아주 신나는 개념이다. 우리 모두에게 매혹적인 동기부여가 될수 있다. 그것은 쓰고, 가르치고, 경험하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필요한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도록 한 신나는 목회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구비시키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영향을 줄수 없을 것이다.

평신도는 이류(second class) 시민이 아니다. 평신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대사적인 위치에 부름을 받았다. 만약 우리가 목사로서 이런 개

념을 가질수 있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힘있는 군사로 동원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매진해야 할 것이다.

오스카 퓨케트(Oscar Feucht)는 <모든 사람은 사역자이다> 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호칭들은 모든 신자들을 사역자의 위치로 올려놓는다. 그들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에 의해서 한 번 수행된 역할 속에 모든 크리스찬을 넣는다." 토마스 길레스피(Thomas Gillespie)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평신도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가진 새로이 상승하는(upward) 방향이다- 사역자의 위치로 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의 상승"

사도베드로는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단어들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어 "성전(temple)"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건설된 것, 즉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썼듯이 "땅위에 하나님이 '살고있는 것'은 더 이상 세상과는 구별된 건물로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고 세상 속으로 보내어진 사람들로서 인 것이다." 에베소서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이 성전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2:19-22).

사도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 단어는 우리의 토론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말이다. 제사장이란 누구인가? 모든 믿는자 들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 직이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제한시켰던 때가 성서역사 속의 어떤 시대에있었다. 그런데 신약성서에는 그렇지 않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구약의식은 임시적이었고 새로운 제사장직이 형성될 어떤 날이 온다는 것이다.

신약성서 의미속에 있는 것 중에 또 우리가 이해해야할 것은 "희생"이라는 용어이다. 신약은 희생을 끝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희생의 본질(성격)을 확실히 바꾼다. 신약안에서 요구하는 희생은 우리자신들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우리의 활동을 의미하는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를 위한 희생으로 드려야한다고 말한다(롬 12:1). 우리의 희생들은 찬양과 감사, 개인적인 고백, 사랑스런 봉사, 또는 사랑의 영안에서 행한 행동들을 포함할 것이다. 이런 모든것들이 목회를 함유(포함)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희생을 드려야 한다. 한스쿱(Hans Kung)은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런 제물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의 일부분이 아니라, 세상속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가운데 있는 예배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스런 봉사인 것이다.....이것이 신약성서 제사장직의 진정한 희생이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목회한다는 개념은 신약성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목회에 관련지으며 모세를 가르쳤다. 그는 말씀하셨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 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출 19:3-8)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부른다. 그는 단지 전문적인 제사장직에 있는 사람들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는 봉사하도록 부름 받았고 목회에 부름 받은 사람들로서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들은 토마스 질레스피(Thomas Gillespie)가 "중재하는 목회"라고 부른, 즉 하나님과 세상사이에 서 있었던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중요한 목회에 부름 받았다. 확실히 그들은 나라(nation)로서 불리워 졌다. 그러나 이것은 그 나라안에 있는 각 개인의 역할을 축소시키지는 않았다.

제21장: 사역으로 부름받음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부름에 대해 혼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신분이나 명예나 또는 특권의 위치가 아니라 종의 신분 또는 목회에 그들이 부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원래 꿈은 그의 백성들이 그(Him)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 세상사이에 서있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당신은 주님의 제사장으로 일컬어지고, 당신은 우리하나님의 사역들이라고 불리워 질 것이다" 라고 우리를 상기시킨다(6:1-6). 그의 꿈의 성취는 교회 안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이와 꼭 같은 진리를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발견한다. 요한은 우리에게 말한다."...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계1:5-6). 또한 같은 주제를 5: 9-10절, 그리고 20:6절에서도 말하는 것에 주목하라. 오스카퓨케트(Oscar Feucht)는 이렇게 썼다: "신약성서에서 사용된 "제사장"이란 용어는 교회 건물안에 있는 직원들(Officiants)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자들의 제사장으로서는 그들의 역할 안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서술하는 것이다" LA에서 있는 [평신도에 대한 학술대회]의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레스톤(James Reston)은 "종교란 성직자에게 남겨두기에는 너무 심각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떤 이는 기독교는 축구게임과는 다르다고 지

적한 바 있다. 축구는 "정말로 훈련이 필요한 스탠드에 앉아있는 16000명과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운동장에 있는 22명으로서" 서술해 왔다. 공적인 견해와는 대조적으로, 기독교는 구경꾼의 경기가 아니다. 모든 믿는자들이 사역자이다!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는 단지 평신도인데"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프란시스 아이엘(Francis Ayers)의 말이 그 삶에게 어울릴 수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다....만약당신이 세례받은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은 이미 사역자이며 당신이 안수를 받았든지 또는 안받았든지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이 진술은 사실로 남아있는 것이다. 당신은 놀랄수도, 걱정할수도, 기뻐할수도, 반감을 가질수도, 의혹을 가질수도, 묵인할수도, 모욕할수도, 또는 격노할수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역자이다"

우리는 목회자이다(minister). 이런 인용을 해보자. 인권운동을 위해 강력한 대변인인 제시 잭슨(Jesse Jackson)이 오퍼레이션 브레드베스켓(Operation Breadbasket)을 통해 국가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군중을 동기부여 시키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고등학교 학생들앞에 서서 "나를 따라 하시오: '나는- 중요한 존재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군중들은 "나는- 중요한 존재이다!"라고 응답한다. 그는 "희망을 가져라": 마약을 내려 놓으라" 와 같이 다른 말로 군중을 이끈다. 그러면 군중은 "희망을 갖고; 마약을 내려 놓으라" 라고 응답한다. 나는 어떻게 열정적인 그의 관중이 그가 말하는 것을 듣게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로부터 뭔가 배울수가 있다고 나는 깨달았다.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사역자이다! 나는 산돌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선택된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이다. 나는 하나님 자신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우리는 평신도사역 훈련에서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면서 끝을 낼수 있다: "나는 사역자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사역자라고 말해야한다. 왜?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거나 또는 최소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평신도나, 목회자나! 우리는 모두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를 봉사하도록 당신을 불렀으며 그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였다. 평신도와 목회자들로서 우리는 목회에서 동역자들이다.

사역에로의 파송을 생각해보자. "일시적인 버스(transient bus)"이론에서 사람들이 단지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은 그들은 정해진 짧은 기간동안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가족이론은 사람들을 둥글게 서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이론들은 피체트(W. H. Fitchett)의 웨슬레와 그의 시대(Wesley and His Century)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들의 사역들을 위해 우리가 평신도들을 훈련시킬 때에 그들이 자신들을 더 큰 조직의 일부로 보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 보다 더 큰 것 뿐 만이 아니라, 또한 그들 자신을 지속되게 할 수 있는 계속적인 운동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목회에 있어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들과 직면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목회의 기쁨을 나누어야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은 또한 목회에서 갖게 된 상처들에 대해서도 나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시적인 버스" 이론은 더 쉽다. 이 방법에서 사람들은 단지 그들 자신이 방안에 모여 훈련을 기대한다. 중요한 것은 연구(the student)가 아니라 시행되는 내용(the content)이다. 그 방법은 대개 장기적인 결과들(long-term results)을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평신도목회 훈련의 성공은 훈련 받은 평신도와 훈련을 하는 사람들(목사)사이에 가까운 결합을 만드는 만큼에 달려있다. 영국에서 감리교의 초기 영향력은 소그룹모임과 직접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개념은 18세기 존 웨슬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21세기 우리에게도 필수적이다.

책임의 분명한 선을 수립해야한다. 구비시키는 자가 평신도의 목회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목회에서 평신도를 성공적으로 격려하려면 일종의 평가양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평신도목회연구소(LPMI)는 평신도 목회자들이 매주/매월 제출할 수 있는 목회보고서를 가지고 있다. 그 카드에 평신도목회자들은 그 주간에 몇 번의 가정방

문과 또 전화통화를 몇 번 했는가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방문한 병원심방도 보고하고 또 다른 평목의 활동도 알려주게 된다. 2년마다 열리는 LPM 세계대회에 참석할 때 마다 이런 보고서를 발견한다. 거기에는 그들이 사역하면서 만난 어려움들로 기록하게 되어있다. 보고서의 목적은 사역에서 실패한 것에 대해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전반의 효과성을 평가해보는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목회 보고서는 구비시키는 자와 구비 되는 자 사이에 책임들을 확실히 해주는 많은 방법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훈련에서 이런 모든 것이 강조될 때에 목표를 눈앞에 보게 되는 것이다. 평신도들이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가? 여러분은 준비되어있다. 기억하시라- 엡4장을. 평신도목회의 목적은 우리에게 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전부이다.

사역은 별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그의 교회-의 멤버로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세상 속으로의 사명에 참여할 때 일어난다. 우리는 개개인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자신들보다 훨씬 뭔가 더 큰- 예수님의 영원한 교회, 살아계신 주님의 멤버들로서 사역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라오스(하나님의 백성)로서 목회에 파송될 때, 교회에 관련되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와 함께 보내진다.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멤버들은 우리의 사역에 엄청난 관심을 갖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훈련을 마쳤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지지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이다. 그리고 목회에 파송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역 속으로 파송되어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사역의 모델인 예수님 자신도 사역 속으로 파송되었다. 요한복음 17장에 그의 기도 속에서 그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세상 속으로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같은 측면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사역으로 보냈다. "당신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요17:18). 또 다른 경우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20:21).

초대교회의 성장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보내졌다. 예를들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행11:21-22).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있는 교회에 의해 파송받았다(행13:2-3).

제22장: 평신도는 동역자이다

평신도목회에 대한 관심들이 한국교회에 점점 고조되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평신도목회라고 하면 몇 가지 테마가 있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목회에서 동역자]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이 개념을 강조하시는 분은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계실것입니다만 두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한분은 평신도목회(LPM)의 창시자인 멜빈스타인브룬 목사님이십니다. 멜빈목사님은 84세로 현재 미네아폴리스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얼마전에 전화드려서 요즘 뭐하시냐고 여쭙었더니 [동역]에 대한 책을 쓰고 계신다고. 그래서 좀더 자세히 말씀해보시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인간; 남편-아내; 목사-평신도. 이렇게 비교해가시면서 정리해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의 중요한 요지는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인데 처음에는 서로가 잘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즉 장단점을 수용하고, 정이 들고. 그러면서 살아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쪽이 동역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 한분은 샌디에고 웨슬리안 감리교회의 담임이신 제임스갈로우(James Garlow) 박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뉴저지의 드류대학에서 공부하며 웨슬레의 평신도목회를 학위논문으로 정리하신분입니다. 즉 웨슬레의 평신도목회자, 평신도설교자(lay pastors/lay preachers)를 연구하셨으며, 결국 이 논문을 가지고 “목회에서 동역자”(서병채역)로 책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웨슬레의 평신도 목회는 이 두가지이고, 내적으로는 Band(밴드)와 Class(크래스)라는 돌봄/양육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 보겠습니다.

결국, 평신도목회는 [목회에서 동역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 보겠습니다(엡4:11-16).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평신도목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려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목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함께 주인의식을 갖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가? 한 사람은 더 유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성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서로가 차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눈에 떨 때가 있다. 그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필수적인 것이다. 그들은 상호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인 선(good)에 기여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아름답고 유용한 구조에 대한 기쁨을 서로 나누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종교개혁" 시대에 성직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비유이다. 전통적인 모델에서 성직자와 사람들은 전문가는 모든 것에서 우수하다고 믿고 있으며 교회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즉 설교, 가르침, 행정, 목회자, 예배인도, 전도, 제자화, 상담, 사회활동, 등등.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것 들 중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 또는 은사가 있는 몇 가지는 잘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수 있다.

반면, 만약 그가 목회를 사람들에게 주고, 영적지도자, 구비시키는자, 그리고 격려자라서 그의 역할을 성취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게 하도록 요청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은사의 다양성은 공통적인 선(good)을 위해 유용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상호의존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교회의 즐거움을 나눌 것이다.

평신도의 역할: 평신도는 "지원 서비스"로부터 "능동적 포함"으로 부름 받았다. 이것은 마치 연간 기부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은 오보에(oboes), 바수운(bassoons), 그리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야되는 것을 깨달으며 심포니가 되는 것 같이 다른 것이다. 만약 음악이 만들어지자면 당신은 그것을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아주 다른 음악에 익숙해져야 될지도 모른다.

평신도의 역할은 성직자의 역할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만약 성직자가 구비시키려고 한다면, 구비를 위해 그들을 보는(looking at)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약 평신도가 목회의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헌신, 실천, 희생, 그리고 책임이 따라야한다.

애기 같은 정신과 청년기의 행동은 목회를 사람에게 주는 과정을 방해한다. 구비되는데 쉽고, 충고에 열려있고, 그리고 겸손한 것은 전환의 완성에 대한 진행에 있어서 요구사항이다. 신시네티에있는 나의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는 FAT사람들이 필요하다": 충실(F-Faithful), 가용(A-Available), 가르칠 만한 사람(T-Teachable).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것에 대한 새로운 응답에 대해 열광적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어떻게 되어야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시작하는 것에 대해 종종 두려워한다. 그들의 영적 은사에 대한 확인과 주님으로부터 목회에 "부름"은 성직자를 부른 것 같이 평신도를 동기부여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더 크게 얘기하고 싶다: "직업적인 성직자는 목회에 부름 받음에 대한 특별한 구석(corner) 이 없다"!

엠펙 4장에 의하면, 만약 "하나님의 사람들(성도)"이 이런 목회를 위해 구비되고, 그리고 그들의 목회를 하게되면 그 결과들은 놀랄만하다:

1.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질 것이며;
2. 교회는 믿음 안에서 일체성을 가질 것이고;
3. 사람들은 영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고;
4. 숨을 헐떡이기보다, 안정하게 될 것이며;
5. 진리는 사랑 안에서 말해질 것이고; 그리고
6. 사람들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점점 더 묶어질 것이다.

목회에서 동역자: 성직자와 평신도는 목회에서 파터너이며, 진짜 동역자로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은 역할의 다양성을 수용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할의 동격성도 받아들인다는 결론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디모데에 대해서는 그는 나의 동역자이며 너희 중에 동료(fellow worker)이다"라고 썼을 때에, 그는 영적 지도자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진짜 동역자의식(partnership)은 아주 자연스럽게 용납된 관계성이었다.

"자격증, 명칭, 전통에 의해 보호되고 영속된 계급 시스템과 성직자와 평신도가 역할에서 동격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것은 만약 진짜 "파트너와 동료"가 되는 것에 불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제23장: 평신도와 목회자의 동역

평신도와 목회자는 교회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근거하여 역할에 의한 구분이다. 목회자와 또 목회자가 아닌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둘 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란 말이다.

그런데 흔히들 목회자와 평신도란 말은 교회에서 계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평신도는 낮은 계층이며 목회자는 높은 계층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뜻이 아니다. 이 말의 기원은 로마시대에 행정관을 의미하는 "클레로스(clergy)" 와 교육받지 못한 평민(laos)를 구분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세속적인 구분은 중세교회의 1000여년 동안 사용되어 오다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그 잘못이 지적되었다.

다른 하나는 구약의 제사장과 일반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일반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 드리러 나가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속죄물의 피를 제단에 가지고 가서 뿌리게 하였다. 예수님이 오시기전 까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중보자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벧전 2:9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자 중심의 교회 구조를 개혁하면서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만인 제사장"이란 말로 설명하였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대제사장이 계신다. 곧 그리스도이시다.

엡4:11-12절을 보면, 교회안에는 분명히 성도들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목회자의 구분이 나와있다. 11-12절: "그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러한 구분은 교회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되시는 주님이 하신 것이다. 왜 이러한 구분을 하신 것인가? 그것은 12절에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의 이중적 계층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목회자를 따로 세우신 것이다. 이것은 교회안의 지체들의 역할분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성도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목사-교사(헬, 동일인)를 두신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잘못 이해되면, 목회자는 잘못된 권위의식을 갖게 되며, 교인들은 자신에게 주신 소명을 상실하고 소극적이거나 의존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교회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선 목회자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자.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온전케" 한다는 말의 본래의 뜻은 "준비시킨다"는 말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연장 사용법(equipping)을 가르친다는 뜻이다(김상복목사, 2001 평신도목회컨퍼런스에서). 무엇을 준비시키는 것인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각각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교회출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를 발전시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은 단지 기능적인 면(skill) 뿐 아니라 성도의 인격과 삶에도 성장을 가져와야 한다.(Robert Slocum, Maximize Your Ministry). 현상유지의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려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봉사는 교회안의 봉사와 교회 밖의 일에 봉사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둘은 물론 모두 하나님의 일이다. 세계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만큼 성도들이 교회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교회안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동역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봉사는 교회안에 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일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은 곧 사회생활속에서의 성도의 봉사일것이다. 성도들이 준비된다는 것은 교회안의 사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 즉 세상속에서의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우리의 생애속에서 주중에 살고 있는 시간을 생각하면 교회에 나오는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즉, 주님이 이 세상에 주(Lord)가 되신다는 고백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과학, 예술, 기술, 사업, 교육, 의학, 경제, 정치영역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소금의 맛을 내어야 하는 것이다. 성도의 봉사는 주일뿐 아니라 주중의 삶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구석 구석이 믿는 자들의 개인 사무실이 되어야 한다'는 슬로컴(Slocum)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다.

동역의 방법은 어떤것일까. 복음 안에서 어떻게 성직자와 평신도가 진짜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할 수 있었는가? 6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2. 서로 들어준다.
3. 서로 배운다.

4. 서로의 강점을 끄집어낸다.
 5. 서로에게 인내한다.
 6. 당신의 개개적인 역할을 확인한다.
- 한가지씩 자세히 살펴보자.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전화, 잠깐 들러서, 또는 점심시간에 할 수도 있다. 프로젝트 또는 목회의 구성은 별도로 보다는 어울려서 되어야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주 만나서 양쪽이 동등한 입장을 취하며 의논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들은 분명하다: 시간, 지역차이, 그리고 의지. 물론 후자가 가장 큰 방해물이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은 아직도 진실이다. 당신은 진짜 동역자의식에 대한 의지를 시작해야한다.

당신이 시간을 가지고 수 마일을 감으로서 당신은 계속 시간을 가지고 수 마일을 가도록 하는 의지(the will)에 활기를 띠게 한다고 보충해주는 두 가지 가치 있는 발견들을 갖게될 것이다. 첫째: 당신은 "두 머리(too heads)는 머리 하나 보다 낫다"는 속담의 진리를 경험하거나: 또는 잠언 15:22절에 나와있는 데로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궤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당신은 왜 그것을 오래 전에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놀랄 것이다.

두 번째: 짐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 원리를 그의 장인으로부터 배웠다. "일은 너에게 너무 무겁다; 너는 혼자 그것을 다룰 수 없다"(출18:18).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하면서 그것의 진리를 발견했다: "그대가 만일 이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출18:23). 많은 짐을 지고있는 목회자가 긴장을 풀 수 있고 사람들을 만족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것은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빠른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해 보라; 당신을 그것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서로가 들으라! 그것은 "이 페이지를 봐," 또는 이 주제를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듣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목회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시간을 요한다. 서로를 듣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의지를 요한다. 양쪽이 말하는 것에 대해 당신 양쪽 다 확신이 있을 때까지 진정한 동역자의식(파트너십)은 불가능하다.

듣는 기술은 풀어서 말하기, 능동적 듣기, 인식확인, 말해지지 않은 것 듣기, 시간을 넘어서 듣는 것, 느낌을 듣는 것, 그리고 다른 것들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상당한 유익에 사용될 수 있다.

서로가 진실히 듣고 이해함이 없이는, 우리는 성직자/평신도 이분법을 바꾸려는 시도를 다시 본래 상태로 되돌릴 것이다. 우리는 "계급이용"으로 권력에 의존 할 것이다. 당신은 "많은 충고자들"의 부족으로 혼자 짐을 지려고 돌아갈 것이다.

삶에 있어 가장 큰 성취들 중의 하나는 서로 듣는 것으로부터 올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다면 당신은 가치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게될 것이다. 당신이 서로 심각하게 얘기할 때에 파트너십은 일어날 것이다.

평신도와 목회자의 대화를 생각해보자. 목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평신도들과 끊임없이 계속되는 대화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들 즉, 지도자로서의 스타일, 인격, 능력이 개발되게 된다.

이러한 대화는 때로는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고, 만족을 줄 수도 있으며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 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성격과는 상관없이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인지 확연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대화들이 지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게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들어, 최근 미국감리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훈련이 있는데 "PIM(Partners In Ministry/목회에서 동역자)"이라는 것이다. 미국감리교의 지도자들이 개발한 것인데 결국은 평신도와 목회자의 대화부터 시작한다는 훈련과정이다(Roy & Jackie, Trueblood, Partners in Ministry, 1999).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위, 은사,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무시해 버리기도 한다. 경영 갈등 이론(Management Conflict Theory)에 의하면 이런 반응이 어떻게 해서 생성되는지 이렇게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위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win/ lose position)의 싸움만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함축된 의미는 그런 지도자는 어떤 사람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와는 달리 지도자는 대화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리스찬 공동체를 유기체적인 조직으로 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은 지도자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대화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해야 한다. 그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항상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한다. 첫째,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성경적 가치를 다루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따르게 된다. 둘째 대화의 내용 중에서 성도들이 지도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꼭 집어넣어야 한다. 성도들은 자신들의 느낌과

실제적인 필요가 목회자에게 잘 전달되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앞에서 언급한 미국의 감리교 PIM 훈련에도 이러한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남이 나에게 얘기 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를 창조해야 하며, 내가 동의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라도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Partners, p.33).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살아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도들이 느끼는 필요와 그들의 영적 가능성에 대해 성도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함께 이루고자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동역자로서의 부르심"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이다.

성도들이 지도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지도자는 방향 의식과 비전과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지도자가 자신의 모습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무엇을 해야 하는 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도는 이러한 지도자를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로서 성숙한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성도들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확인, 지도, 인도, 교정 그리고 지지를 보내 줄 것이다. 대화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지도자는 지속적인 자아 인식과 성장이라는 과정을 감수해야만 한다.

최근에 보스턴대학 신학부의 윌프타이(Wolfteich, 33세, 예일대 출신)교수가 한국 성서공회에 와서 강의하면서 역시 한국교회의 현재 당면 필요성을 '목사와 평신도의 대화'라고 강조하며, 그럼으로 해서 양쪽이 각자의 소명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교회연합신문, 6월 7일).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지체가 된 것처럼, 목사와 성도들이 동역자로서 역할분담이 확실히 되려면 대화는 필수적인 것이다.

서로로 부터 배우라! 각각(성직자와 평신도) 은 그의 삶으로부터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치가 될 수 있는 배움과 훈련이다. 상호 존경이 서로로부터 배우기에 충분히 겸손 하게되는 열쇠다. 시카고 윌로 크릭교회의 부목사 브루스 버그비(Bruce Bugbee) "모든 사람은 뭔가에 있어서는 10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모든 사람은 뭔가에 있어서는 전문가이다.

목사는 교회안에서 리더십으로 해야할 어떤 영역에서 훈련받았다. 평신도는 경험에 의해 비공식으로 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훈련받았다. 목사의 훈련은 지식의 넓은 범위 중에 매우 좁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한다. 이것은 어떤 것이고 간에 전문적인 훈련에 있어서는 사실이다. 평신도는 넓고 다양한 경험과 훈련을 하였다. 이것은 만약 목회에서 당신의 파터너십이 한사람 또는 두사람을 넘어갈 때에, 그리고 몇 사람으로 구성된 리더십 그룹이 존재할 때는 정말 사실이다.

리더십 스타일, 인성차이, 성격의 다양성, 또한 경험과 교육의 다양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해 해준다. 목회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진정한 파터너십이 존재하는 그것의 리더십 정도에 따라 단지 효과적일 것이다.

서로로부터 배우려면 상호 존경, 겸손, 의도적인 청취, 그리고 시간이 요구된다. 파터너십이 목표이고 그리고 서로로부터 배우는 것이 진실한 파터너십의 요구들중의 하나라면 그것은 노력해 볼 가치가있다.

서로의 강점을 끌어내야 한다. 많은 결혼들이 바위들을 올라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부부가 그들이 강점들을 서로 모으기 보다는 그들의 약함에 충돌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 비판과 비난으로 움직이는 것은 미성숙과 이기심의 표시이다. 강점을 보고 확증과 격려로 읊기는 것은 성숙과 이타심의 표시이다.

결혼에서와 같이 목회 파터너십에서 도전이 되는 것은 당신의 강점과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강점들을 함께 모으라. 당신의 약함을 아는 것은 당신의 파터너의 강점이 당신의 어디에 필요한

지 당신으로 하여금 알도록 해준다.

성직자의 일반적 잘못은 우리의 약함에 대해 부인하거나, 또는 그들을 알더라도 파터너되는 그들로부터 그것을 감추려고 방법들을 찾는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은 평신도로 하여금 비실제적인 사람에게 관련지으려고 노력하도록 만든다. 게다가, 누가 완전한 목사에 대해 관련지을 수 있는가? 잘못이 없다는 이미지를 방출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예상되는 파터너에게 거리감을 두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용인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에 대해 더 편안하게 느낀다.

우리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직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목회를 위해 다른 사람의 강점을 끄집어내는 열쇠이다.

멜빈목사님은 그의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에서 그는 강점들을 함께 모으는 예를 제시했다. LPM 사역의 1년 반이 되었을 때에 목회리더 그룹(MLG)은 함께 모였으며, 그들은 평신도목회자들이 하는 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들을 지도해달라고 했다. 그들은 함께 서로의 제안을 내놓을 정도로 충분한 파터너가 되었다. 거기에서 그들은 미국과 현재 한국 수백교회의 목회에서 사용된 직무 설명서(job description)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P-A-C- E(P-Prayer/기도하라; A-Available/시간내라; C-Contact/접촉하라; E-Example/ 모범이 되라).

그들은 강점을 함께 모았다. 그들이 없었다면 멜빈목사님은 평신도목회자 목양을 마치 '신학교 졸업생' 들과 같이 만들 뻔 했다. 그러나 그가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한 목회보다도 훨씬 못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것이다. 인정하다시피, 이 방법은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서 더 시간과 노력이 동원되었다.

쌍방의 인내가 필요하다. 진실된 파트너십은 단지 시간만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많은 인내가 요구된다. 그리고 인내는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서로가 상담해주는 것은 항상 편안한 경험은 아니다. 당신이 믿고있는 것을 타협하려는 고민은 매우 고통스

러운 것일 수도 있다. 협상하기 위한 고민은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산출한다"(롬 5:4). 이런 모든 고민을 아는 하나님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라고 덧붙이신다.

인내는 쌍방이어야 한다. 이것은 목사와 평신도 양쪽에 대한 새로운 분야이다. 성직자 지배와 평신도 위협은 과거 수세기를 통해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람을 파터너십에 대해 약간 불안하고 약간 놀란 기분을 느낀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마라. 계속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새로운 것을 하시고, 그리고 그는 당신과 함께 한다.

우리는 서로가 인내해야한다. 평신도는 목사들이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쉽게 감출 수 없는 실수를 할 것이다. 목사는 실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덮기 위해 계급을 끌어내려고 한다. 서로의 인내가 열쇠이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들 중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히 13:24절은 "당신의 지도자"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미묘하게 설명한다. 어떤사람의 눈(eye)이 귀(ear)가 하는 일로부터 특별히 다른 것과 같은 방법에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면에서 교회의 몸 안에서 그의 수행을 보아야한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우월감이나 또는 열등감 없이 시행되어야한다.

그레테에서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지도자였던 디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해 돌보는 "하나님의 사역위임"을 받게 될 장로들을 지명하려고 했다 (딤후 1: 7ff). 거기에는 자질의 차이들과 역할의 차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일 뿐이지, 명성과 존경의 위치에 올려지는 것이 아니다.

테살로니가에서 "주안에서 너를 지도하고 너를 훈계하는자" 들이란 그들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는자가 아니라 "너희 중에 열심히 일하는 자" 를 일컫는 것이었다. 그들의 위치는 특권의 하나인데 자리의 특권과 명예의 위치라기보다는 그들과 주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특권이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높은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 때문이다(살전 5: 12, 1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에 우리는 목회에 대한 그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다. 레이 스테드먼(Ray Stedman)은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디자인된 영적인 은사로 당신을 구비시켰으며, 당신을 그런 은사들을 사역하기 위해 그가 당신에게 원하는 바로 그곳에 당신을 배치시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이것은 신나는 가능성들의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전 세계 속에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역사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보다 더 만족하고 성취적인 경험은 없다.”

은사에 대한 토론에서 재능과 은사사이에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레슬리프린(Leslie B. Flyan)은 이런 식으로 구별하였다:

재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편은혜라면, 은사는 믿는 사람들에게 준 특별한 은혜, 또는 선물이다. 재능은 태어날 때 주어진 것이다. 중생때 주어지는 선물과는 대조적으로 재능은 자연적인 능력으로 이해되고 반대로 은사는 영적인 수여이다. 재능은 자연적인 수준에서 교훈, 연예, 영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은사는 구별된 영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믿는자는 성장을 위해서이고 크리스찬 봉사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위해서이다.

영적은사는 세 신약성서 서신서들속에 기록되어있다: 롬12;6-8; 고전 12;4-11,28; 그리고 엡 4;11.

[1] 로마인에게 보낸 바울의 글: 롬 12:6-8: 예언, 봉사, 가르침, 격려, 주는 것, 리더십, 자비

[2] 고린도인에게 편지(12:4-11): 지혜, 지식 믿음, 치료 기적, 예언, 성령의 분별, 방언, 방언의 통역

[3] 고전 12:28; 사도직, 예언, 가르침, 기적, 치료, 돕는 것, 행정, 방언

{4} 에베소서에 바울(엡 4:11):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교사

종종 마지막 은사는 하이퍼네이티드(hyphenated)은사, 목사-교사로서 언급된다.

제24장: 은사의 발견

케넷 킹호른박사(Dr. Kenneth Kinghorn)에 따르면 “결과” 또는 “일하는 것”이라는 단어는 질적인 것(qualitative)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레이 스테드맨(Ray Stedman) 박사에게 있어 “일하는것”이라는 말은 양적인 것(quantitative)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양쪽해석이 다 가능성이 있는 뜻이다. 확실히 양쪽 차이들은 실제 삶에서 일어난다. 다양한 사역에서 우리 은사 활용의 결과는 종종 다르다. 우리의 할 일은 의미 있는 사역 분야에 우리의 은사를 충실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확인해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은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들이 나와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은 우리의 영적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은사 발견은 평신도목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고했다: “영적 은사의 사용은 평신도의 역할이 감축될 때 줄어든다..... 성직자의 역할이 영적 은사에 의해 서술된 목회를 수행하는 것으로 개발될 때에 그런 은사들의 사용은 감소된다; 그래서 평신도의 부분도 그렇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은사들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의 책 [영적인 은사]에서 킹혼 박사(Dr. Kenneth Kinghorn)는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데에 6가지 단계를 제안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6단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확인해보려 한다. 첫째, 그분의 사용을 위한 채널로서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열라. 둘째, 목회에서 크리스찬 봉사를 위해 당신의 갈망을 검토하라. 셋째, 교회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당신이 믿는 필요를 확인하라. 넷째, 봉사하고 사역하는 데에서 당신의 노력의 결과를 평가하라. 다섯째, 그리스도에게 순종으로 이르는 그분,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여섯째, 다른 크리스찬들이 응답들에 예민하라.

첫째, 그분의 사용을 위한 채널로서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알라. 당신의 은사를 발견하는데 첫단계는 태도적인 것이다. 봉사하는 데에 또는 하나님께 사역하는 데에 관련되는 당신의 태도는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 당신이 알맞는 위치를 알기 원하는가? 당신은 정말로 그분께 명예를 드리기 위해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알기 원하는가? 만약 당신의 응답이 “예”라면, 당신은 그 단계로 옮겨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다음단계는 당신의 갈망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목회를 위한 당신의 목표와 당신의 갈망은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마주 앉아서 “하나님을 위해 당신이 가장 성취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루어지기 바라는 3-4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바램은 당신의 은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사람들의 목표와 바램은 일반적으로 이런 목표에 닿는데 필요한 은사들과 관련되어 있다. 당신의 목표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은사는 당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은사이다.

세 번째 단계를 보자. 여기서 주요 단어는 “필요들”이다.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그리고 더 크게 크리스찬의 몸을 둘러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요는 무엇인가? 크리스찬 몸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가? 당신이 당신의 회중에서 보는 가장 큰 필요를 종이에 적어보라. 한번 더 말하지만 그런 필요들에 부응하는데 필요한 은사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라는 것이 강한 가능성이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당신이야말로 당신 자신의 은사를 확인해주는 목회 필요에 더 예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서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인가”라고 물어 보라. 무슨 일이 날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 전도에 대해 엄청나게 강조하기 시작했다. 환대(접대)의 은사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들을 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교제안에 교훈적인 필요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발견하다시피, 어떤 사람이 교회안에 필요들을 검토할 때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은사들을 가장 잘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필요들을 보는 것이다.

제25장: 은사에 관련되는 유의점

영적인 은사에 대해 공부할 때 관련되는 몇 가지 위험이 있다.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은사를 갖고있을 경우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것을 가져야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몸에서 아주 눈에 띄는 은사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히 있는 일이다. 또 다른 위험은 우리의 은사 이해에 대해 너무 빠져서 크리스찬 성숙을 향한 기본 단계(basic steps)를 무시하게되는 경우이다. 그것은 나의 은사에만 너무 많이 관심을 기울여 그리스도와의 매일의 동행에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이다.

또 다른 위험은 나의 은사가 당신의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때이다. 첫째 그 은사는 나의 것도 여러분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셨다. 둘째, 우리는 단지 어떤 은사들이 크리스찬 몸에 있어 더 눈에 띄기에 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전도의 은사에서 일어나는 경우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아주 눈에 잘 띈다. 그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느 누구도 전도의 은사의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그것이 모든 다른 은

사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다.

또 다른 경고가 있는데 영적인 은사에 관련되어있는 것이다. 그들은 정말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에서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다. 은사에 대해 연구하는데서 가장 최악의 일 중의 하나는 우리의 은사들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신 그분을 위한 봉사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은사를 공부하는 전체 목적을 방해하기도 한다. 은사는 그분의 명예를 위하여, 그분의 봉사에서 사용하도록 주어졌다.

은사와 사역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하나님은 사역에서 실행될 수 있는 특수한 은사를 당신에게 주신다. 예를 들어, 환대(친절한 대접)는 은사이다. 당신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친절한데 당신의 사역이다. 당신은 당신의 집에 성경공부를 초청함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당신은 숙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짧은 기간동안이라도 그것을 제공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이웃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기 위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곧 당신의 사역이 될 것인데, 같은 은사(환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당신의 사역은 당신의 은사를 사용하는 단순한 그런 방법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흥미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 12:6, RSV). "working"이라는 말을 주목하라. 그것은 때때로 “활기 띠게 하다”로 번역되었다. 레이 스테트먼(Ray Stedman)에 따르면 이 말은 다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은사가 특수한 경우에 있어 입증되거나 또는 사용함에 의해 생겨지는 힘의 정도이다 영적인 은사의 모든 실행은 각각 같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주어진 같은 멧세지는 같은 결과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는 항상 같은 결과를 산출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 은사의 각 사역에서 얼마만큼 성취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다른 학자는 “일하는 것(working)” 또는 “활기 띠게 하는 것”의 단어의 정의에 대해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한다. 그는 그 단어를 “결과”로 번역한다. 킹혼(Kenneth Kinghorn)은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예를 이렇게 설명한다. 그 은사는 설교, 글쓰기, 그리고 상담과 같은 그런 사역에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세가지 각각은 다른 결과들을 가져온다. 바울에 의해 언급된 “일하는 것” 또는 “활기를 띠게 하는 것”. 예를 들어 설교사역의 결과는 크리스찬 ‘개종’이 될 수 있다. 글쓰기 사역의 결과는 크리스찬 ‘성장’이 될 수 있다. 상담사역의 결과는 크리스찬 ‘일치’가 될 수 있다. 은사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그 은사가 사용될 수 있는 곳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사역들이 있다. 그런 세가지 사역들로부터 결과는 모두 다르다: 개종, 성장, 그리고 일체감.

훈련(training)

A.W 키스트(Kist)에 따르면 “현대 평신도 훈련은.... 지도자와 그의 청중 사이에 사랑의 일방통행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 훈련 또는 평신도 구성(배치)은 훨씬 더 그것 이상의 상호 교류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평신도 훈련의 중심부에는 두가지 가정이 있다: 첫째,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은 그들의 주인(masters)이 아니라 그들의 종(servants)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평신도 목회 훈련에 대해 이야기 할 때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식으로 가르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고 “구비시키는 자들”을 필요로 하는 평신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이런 구비시키는 자들은 대개 목사들인데 그들(평신도)로 하여금 목회에 그들이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목회를 위해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도록 하고, 그 목회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목회를 위해 훈련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현재 평신도목회 훈련 프로그램을 분석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래의 질문들은 여러분의 현재 훈련뿐만 아니라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정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아래 질문에 답을 적어 보라;

평신도 훈련 양케이트

1. 평신도들로 하여금 목회에 “부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2. 은사 발견에 대해 어떤 훈련이 평신도들에게 제공되어왔는가?

3.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들이 가용(available) 될 수 있는가?

4. 모든 평신도들에게 가용될 수 있는 평신도목회 기회들의 총체적인 리스트가 있는가?

5. 평신도는 그들이 동참되는 목회들에 대해 전반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가?

6. 교회안에 있는 평신도 사역들과 제공된 훈련들을 나열해 보라

사역	훈련	훈련기간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7. 목회를 위해 평신도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역들은 무엇인가? 훈련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할수 있는가?

사역	잠재적인 훈련
_____	_____
_____	_____

8. 7번에서 언급된 잠재적 훈련을 시키기위해 해서는 어떤 은사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하는가?

사역	사람
_____	_____
_____	_____

얼마전에 평신도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동안 어떤 목사님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 당황하게되었다. 그는 느끼기를 만약 평신도에 대해 그들이 사역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사역들을 위해 훈련되어야한다면 우리는 곧 목회의 일을 그만두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분의 말을 한참 생각했으며, 왜 내가 말한 것에 대해 그렇게 오해했을까. 그때로부터 나는 세미나의 초점을 바꾸었다. 평신도 목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파트너십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목사와 평신도는 목회에서 파트너이다. 그것이 우리 연구소가 세워진 이유이다; 목회에서 동역자

제26장: 평신도목회훈련에 대한 어려움

교회에서 평신도목회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에 방해될 수 있는 몇 가지 장애들이있다.

장애물 1번: 어떤 목사들은 평신도 목회의 개념(concept)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목사들에 대한 해답:

목사들이여, 우리가 두가지 것에 대해 오해하기 쉽다. “평신도의 해방”(liberation of the laity)은 평신도를 사역에 해방시키는 것이지, 그들을 무질서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 목회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목사들은 그들의 평신도들이 교회의 삶에 있어 불필요하게 주장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평신도 목회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은사를 활용토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목회를 성취하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신의 목회는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구비 시키는것에 따라서 많은 분야에서 증대될 것이다. 목사들은 평신도목회의 개념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평신도에 대한 해답:

평신도들이여, 목사들이 가끔 두려워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어떤 교회들에서 평신도들이 너무 주장적이 되어 목사가 리더십의 은사를 실행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불행한 것이다. 여러분이 확실히 해야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는 평신도 목회에 대한 훈련을 요구하는 것이 당신은 목회에서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당신의 목사가 알도록 하면서 당신의 목사를 위협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목사가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는 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의 목사가 알도록 해야한다.

장애물 2번: 어떤 목사들은 평신도 목회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기에 하다고 느낀다.

목사에 대한 대답:

목사들이여, 이것은 이해가 가는 것이다. 학부나 신학교의 모든 가르침에서 대부분의 우리는 그들의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한 알맞은 훈련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직업적인 성직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목회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니었다. 우리가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 목회 준비를 위해 여러 개의 신학교에 다닌다. 전부다 좋은 기관이고 좋은 학교였으며 함께 했던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훈련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목회를 해가면서 배우고 있다.

목회자들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중에 하나는 정직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특별한 목회를 이루려고 노력 할때에, 그리고 우리가 부적합하다고 느낄때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좋다.

훈련과정을 위해 부적합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전혀 문제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부적합성을 부정하거나 감추려고 한다면 평신도들은 이해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고, 그리고 목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하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

평신도에 대한 대답:

평신도들이여, 여러분은 우리 목사들에 대해 인내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들중에 어떤이들은 목회를 위해 당신을 훈련시키는 방법에서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다. 만약 당신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우리의 실천에서 실패하는 것에 자유롭도록 허락 해준다면 우리는 여러분을 더 잘 훈련시키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대해 인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 여러분을 더 잘 훈련시키는 방법을 정말 배우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세 번째, 어떤 목사들은 평신도목회 훈련은 필요치 않다고 느낀다.

목사들에 대한 대답:

교회갱신이라는 것은 목사가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치않거나 그렇게 할수 없기에 그런 바람과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술의 부족이나 조심스런 선택을 통하여 목사는 평신도에게 그들의 목회를 충분히 실행도록 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 만약 훈련이 필요치 않았다면 그들은 평신도들로 사역에 참여토록하는 기회들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갱신에 대해 목말라함은 목회에 대한 평신도들의 어려움이다. 그것에 대한 책임들을 갖는 것에 대해 실패함보다도 성직자에 의해 더 방해받았다.

평신도-하나님의 전체 백성-는, 목회는 하나님의 전체 백성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성서적 유산의 입장에서 목회에대해 책임을 받아들이고, 성직자는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할수있게 하는 사람(enablers)이 되어야한다. “평신도의 문제”는 사실 평신도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성직자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는 사실 평신도를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평신도에 대한 대답:

평신도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의 앞길에 놓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장애물들의 하나이다. 만약 여러분의 목사가 평신도목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솔직히 말하고, 사실 당신이 할수있는 것은 거의 없다. 나는 여러개의 평신도들 그룹에 초청받아 평신도목회에 대해 세미나를 하였다. 나는 약간 주저함이 계속 있었는데, 왜냐하면 듣는 그들(평신도)은 너무 좋고 가능성을 가지지만 막상 교회에 돌아가서 담임목사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 허탈감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목회를 위한 훈련된 평신도를 보기를 정말로 원하는 목사들을 갖는 평신도들은 사실 행운이다. 그러나 때때로 평신도들은 목회에 포함되는 방법에 대해 격려 받지 못한 입장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만약 당신의 목사가 평신도목회훈련이 필요 없다고 느낀다면 나는 당신에

게 이렇게 격려하겠다: (1)당신의 목사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라; (2) 당신의 관심을 나누기위해 당신의 목사와 만날 약속을 하라; (3) 당신의 목사에 대해 포기하지마라. 우리목사들은 변화될 수 있다; (4) 개혁 운동가가 되지 말라; 목사반대 운동을 하기위해 당신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지말라; (5) 기다림의 영적인 은혜를 배우라.

네 번째, 어떤 평신도들은 평신도목회 훈련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

목사에 대한 대답:

목사들이여, 우리는 평신도들이 “이것이 목회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목사가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 월급을 주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평신도들은 “목사님이 하도록 해!” 그가 봉급을 받잖아“ 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평신도들은 그들이 목회자라고 그들은 목회들을 가지고 있다는 아이디어에 대해 단순히 놀라곤 한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시간을 주라.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라. 그것에 대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과 하라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은 그들 주위에서 작용되고 있는 의미있는 평신도목회를 보도록하라. 이것은 우리 어떤 말로 하는것보다도 그들의 두려움을 더 해결해줄 것이다. 그것을 단순히 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중요한 목회훈련에 당신과 함께 할 사람들을 찾도록하라, 때가 되면 위협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들은 또한 목회자라는 아이디어대해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배울 것이다.

평신도에 대한 대답:

평신도들이여, 당신들중에 어떤이들은 평신도 목회에 대한 토론에 의해 별로 위협을 안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떤이들은 사실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만약 당신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사역에 포함되기를 주저한다는 것을 당신의 목사가 인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아마 과거에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려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는 당신이 사역에 동참되었다가 실망하거나 낙담한 경험을 겪

있을 것이다. 당신의 과거 경험을 통해 평신도 목회는 깜짝 놀라게 하거나 또는 반감을 갖게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다섯번째, 어떤 평신도들은 부적합하다고 느낀다.

목사에 대한 대답:

목사들이여,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기 원하는 목회를 위해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목사들이여, 우리는 첫 번째 설교 할때를 잠시 되돌아볼 수 있다. 우리는 설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훈련은 받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학부에서 4년, 석사과정에서 3년을 훈련받았다. 그러나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 몇 주간은 두려움에 쌓여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많은 평신도들은 다양한 사역들에 대해 놀라게 되는 이유가 더 많은데,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는 되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도움은 별로 받지 못하고 있다. 모든 평신도가 부적당함은 느낀다고 생각지 말라. 어떤이들은 지나친 확신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할수 없다. 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나는 훈련이 필요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당신(목사)은 그것을 나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평신도에 대한 대답:

평신도들이여, 당신이 부적합하게 느끼는 것은 정상적이다. 우리모두 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때에 그런 느낌을 갖는다. 폴 크레델(Paul Cladell)은 그의 책 [세이틴 슬리프 (The Satin Slipper)]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하나님은 굽어진 선으로 똑바로 쓴다.” 내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통해 역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는 말했다고 본다. 당신은 바로 그 분이 당신을 통해 확실히 성취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것은 오히려 그분께 당신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나타내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당신을 평신도목회자로서 효력있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달란트나 부적합의 느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평신도로서 평신도목회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부적합성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의 목사에게 말하라. 당신의 목사로 하여금 당신이 목회에 동참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부적합성을 느끼는지 알게해야 한다.

여섯번째, 어떤 평신도들은 훈련이 불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목사에 대한 대답:

우리는 젊어서 ccc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해본 경험들이 있다. 내가 전도하고 훈련시킨 한 사람은 헌신적이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느 누구에게 말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 방면에서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표현했다. 나는 전도훈련이 그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내가 그에게 그런 훈련을 받으러 같이 가자고 말했을 때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라며 가기 싫어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혹시 다른 교회에 가서 잘 알지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훈련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로 그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믿음을 잘 나누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훈련은 근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런 장애물에 부딪칠 때 목사로서 우리는 어떻게해야 하는가? 어떤 경우에는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고 목회의 현장으로 가도록하는 것이 최선일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의식적으로 인식치 못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어려울 경우도 있다. 평신도가 바램을 표현하거나 훈련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당신은 조직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 있다.

평신도에 대한 대답:

아마도 여러분중 거의 대부분은 이런 장애물을 잘 확인치 못할 것이다.

능동적인 평신도 여러분은 당신이 목회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비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중에 저항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여러분을 저항하는 것은 우리 목사들에게 있어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느낄때 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당신의 아마 맞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목사는 다른 많은 교회 상황에서 겪은 그의 경험과 배운것에 의해 당신을 상당히 도울 수 있다.

제27장: 훈련에서 동역자

우리는 훈련과정에서 담임목사를 도와줄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예를들어, 교회의 부목사가 어떤 측면에서 평신도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데 도와줄 수 있다. 병원방문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금방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역에 대해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에 목사를 도와줄 수 있다. 또 다른 인도자가 상담적인 측면에서 평신도목회자들을 훈련시킬수 있다. 어떻게 내담자를 전문가에게 잘 소개할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창조적인 경청자가 되느냐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다. 성도중의 성공적인 사업자는 재정적으로 여립움을 겪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방법을 평신도사역자들에게 가르칠수 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분야에서 전문가들이며 목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분야에서 더 전문가들이다. 모든 교회는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목사를 도울 수 있는 달란트 있는 평신도들이 있다. 비록 우리는 목사를 구비시키는 자로 말하지만, 더 정확히 말해 그는 구비시키는 것이 완료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은사있는 평신도들은 구비시키는 과정에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구비시키는자를 위한 또 다른 지침은 훈련시키는 과정에 실습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교실에서만이 경험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그렇기에 우리는 실제 삶에서 우리가 참여한 것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훈련이교간에 교실에서의 경험고 실제사역 경험사이에 균형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들면 어떤교회에서 세팀을 평신도목회자로 훈련시켰다. 첫 번째 그룹은 그들이 평신도목회자로서 사역하기 전에 거의 8개월간 훈련시켰다. 두 번째 그룹은 4개월정도 훈련시켰다. 세 번째 그룹은 한달간 훈련 이후 사역이 시작되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과정을 시작했는가?

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번은 평신도목회자 훈련시에 한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렇게 한참동안 같이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 평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쓸 것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현장 경험없이 너무 오랫동안 교실 경험만을 갖게 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동료로서 서로 즐기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목양하는 데에 충분히 몸에 베이도록 하는데는 실패했다. 어떤 훈련프로그램이든지 효과적이 되려면 교실에서의 경험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훈련은 적어도 5가지 독특한 단계가 포함된다. 구비시키는자는 이런 단계들 사이에 균형을 이해해야 한다. 첫번째는 연합이다. 이것은 우리가 훈련시킬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의미있는 평신도목회를 위해 훈련받는 사람은 우리를 그들의 구비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평신도목회훈련은 구비시키는자와 구비되는자 사이에 개인관계성의 결속으로 시작되라는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나누어줌이다. 이것은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이 훈련단계는 ‘교실단계’라고 이름 붙여질수도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지교수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듣기만으로 배우는 사람은 별로 없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운다. 우리는 증인이 될 필요에 대한 설교만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다. 동료들중 하나가 그의 믿음을 나누는 것을 보고 배울수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몇 번이고 보고 또 보면서 배운다.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의 일부분이 된다.

네 번째 단계는 파견이다. 훈련과정에서 임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목사들에게는 하기 어려운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평신도에게 사역

을 맡기는 것은 중요하며 그들에게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도록 해주어야한다. 평신도는 만약 그 사역이 잘 완료되려면 그것은 그들에 의해 완료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

평신도목회에서 대두되는 문제중의 하나는 평신도목회자들의 성숙문제이다. 이것은 내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문제였다. 왜 성도들이 성숙하지 않을까. 성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줄곧 해오던 터에 LPM을 만나면서 이런 문제가 확연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대개 교회에서 훈련시키면 양육된다 라고 생각들 한다. 그리고 성숙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였다. 성숙문제는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훈련과 양육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사실 어쩌면 양육과 성숙은 가까운 이웃사촌이라 할 수도 있다.

어쨌든, ‘훈련과 양육’이라는 용어를 접할 때, 순서를 생각해야 하고, 또 내용을 생각하게 된다. 순서는 당연히 훈련다음에 양육이라고 본다. 그러나 양육 다음에는 또 훈련이 있어야 된다. 그런 교회는 훈련과 양육이 번갈아 가며 제공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훈련은 강하다. 지난 100년 동안 그랬듯이. 그러나 양육은 좀 약하다. 양육이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 나는 어린애기의 양육을 떠올리게 된다. 어린애기는 엄마를 통해 양육된다고 한다. 그것들을 훈련 된다고는 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육이 먼저 와야 된다고도 본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는 양육교재를 개발하는 중이다. 멜빈목사님은 PACE 훈련교재를 개발하셨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양육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다. 왜 그런고하니 평목으로서 돌봄에 대한 개념이나 최소한의 양육과정이 없이 PACE훈련(12시간)을 통해 바로 평목이 되니 성숙면에서 취약점이 많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PACE훈련 이후에도 역시 양육 훈련은 번갈아 가며 필요한데 연구소에서는 소논문, 다이내마이트, 에세이를 통해 제공하고 두가지를 충족시키고 있다. 소논문은 사역에 필요한 행정적인 자료이고 다이내마이트는 훈련자료, 에세이는 양육자료이다.

아무튼 훈련으로는 스킬을 배우고, 양육으로는 성숙되어간다고 본다. 이제 한국교회를 좀더 조명해보자. 성도들이 양육되었는가? 계속질문, 성숙하였는가? 이 두가지질문에는 사실 자신있는 대답을 할 수가 없다. 이유는 양육과 성숙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양육되었다면 충분한 자양분을 섭취했다는 것이고, 성숙되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엡4:13)해야 할 것이다. 양육과 성숙이 원만히 이루어지자면 거기에 걸 맞는 내용, 자료, 그리고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평신도목회훈련의 어려움에 대해 장구하게 얘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물들을 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맞은 사역을 선택하도록 도울수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을 선택할수있는가? 어떤이가 훈련 받기 이전에 그는 그 선택을 해야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은사를 극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을 발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참으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특별한 사역에서 최상의 기능을 하기위해 발견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는경우가 있다. 선택과정을 시작하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들중의 하나는 당신의 은사를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역을 적어보는 것이다. 예를들어 나의 은사가 가르침이라면 나의 은사를 활용할수 있는 사역들은 1. 주일학교 교사 2. 가정성경공부 교사 3. 청소년 캠프 4. 여름성경학교 교사가 될 것이다.

제28장 알맞은 사역을 발견하기

어떤이가 훈련 받기 이전에 그는 그 선택을 해야한다. 어떤 사람이 그의 은사를 극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역을 발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참으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특별한 사역에서 최상의 기능을 하기위해 발견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는경우가 있다. 선택과정을 시작하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들중의 하나는 당신의 은사를 활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역을 적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의 은사가 가르침이라면 나의 은사를 활용할수 있는 사역들은 1. 주일학교 교사 2. 가정성경공부 교사 3. 청소년 캠프 4. 여름성경학교 교

사가 될 것이다.

당신의 사역을 발견하는데 당신을 돕기위해 우리는 팀 브랜차드(Tim Blanchard)의 책 <당신의 영적은사를 발견하기위한 실제적인 지침서>를 볼수있다. 여기에서 팀은 많은 은사들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에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수록해 놓았다. 많은 평신도들이 그들의 은사를 활용할 사역들을 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을수도있다. 당신의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터인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은사가 가장 잘 맞는 사역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알맞는 사역을 발견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역으로하는 것이다. 당신교회안에 있는 모든 자원사역위치들을 정리해보는 것이다: 주일학교부장, 주일학교 재정부, 주일학교 서기, 재직 위원회, 헌금위원, 안내위원, 간호역할, 성경공부인도, 성경공부 모집자. 당신이 이런 리스트를 보면서 이런 목회위치를 채우려면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써보자. 또는 위의 사역들중에 당신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적어보고 그런 은사를 감독하는 사람들과 가라. 어떤 경우에는 당신의 목사일수도 있다. 지도를 받도록 하라.

나의 사역 장소를 발견하는 세미나에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다루어져야 한다: (1) 사역에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2) 사역에대한 그들의 은사를 이해시키고; (3) 교회안에서 자원봉사 위치에 친숙하도록 하고; (4) 그들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 (5) 우리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의 책임자들을 알고; 그리고 (6) 적어도 한가지 사역을 선택하여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는 경험을 시작하도록 한다.

평신도 훈련의 단계들: 평신도훈련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 아래의 단계들이 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훈련시키는데있어 완전은 아니지만 내가 믿기로 유용한 단계들이라 본다. (1) 목회에 부름을 강조하라.(2) 목회를 위해 그들의 은사를 구별해 내도록 도우라. (3) 그들의 은사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목회를 선택하도록 평신도를 돕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발견하라. (4) 주제에 대한 모든 가능한 자료들을 당신의 평신도 사역자들에 보여주라. 예를들어, 만약에 어떤이가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전도에 대해 그들이 알아야 될 좋은 책들이 많이 있다. 만약 어떤이가 도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평신도 목회에 대한 바바라 쿤의 책 "The Whole Lay Ministry Catalog"를 보여줄수도 있다. 그들의 훈련과정에서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다.

(5) 만약 가능하다면 각 새로운 평신도 사역자는 같은 목회에서 사역하고있는 더 경험있는 평신도에게 견습공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 종종 어떤 목회위치에 채워지기를 요청받는 평신도들은 지도감독과 안내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다. 더 경험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함께있으며 지도해주는 것은 이런 평신도목회자에게 더 열매를 맺게해준다. 감리교 초기 감독 프랜시스 아슈베리 (Pioneer Bishop Francis Asbury)는 미국에서 감리교의 시작시절 5,000명의 평신도 설교자를 훈련시켰다고 했다. 한번은 그에게 어떻게 평신도 설교자들을 훈련시켰냐고 누군가가 물었다. 그는 이렇게 응답했다: "나는 그들에게 그 방법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말위에 올라타서 그를 뒤에 태우고 지방을 수십차례 왕복하면서 보여주었다.

(6) 지원그룹 또는 목회팀(support groups or ministry modules)들을 구성하라. "module"라는 용어는 데이빗 메인스가 쓴 "Full Circle"이라는 책에서 빌려온 용어이다. 모듈러라는 것은 단순히 비슷한 목회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모인 사람들의 그룹이다. 사람들을 훈련시키는데에는 두가지 기술이 있다. 하나는 "일시적인 버스"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흥미로 모인 이 그룹은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 단기간동안 같은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다. 그들은 사실 서로에게 이방인으로 존재한다. 내가 말하는 두 번째 테크닉은 '가족'이론이다. 이것은 일단의 그룹에게 서로가 아주 친숙해지는 훈련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 론

평신도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는 실패와 성공의 두가지 이슈가 대두된다. 평신도목회(LPM) 사역을 6년간 해오면서 실패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를 많이 보아왔다.

실패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기에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실패한 후에 다시 되돌리기란 쉽지가 않음으로 미리 준비함으로, 또는 실패의 조짐(잘 안되어 가는 느낌)이 보일 때에 미리 막아야 하는 것이다. 나의 경험을 통해 몇가지를 지적하려 한다.

실패를 막으려면 우선 담임목사님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강한 의지란 이 사역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부동성, 그리고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둘째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LPM 사역에서는 리더그룹(4-8명)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지명되어야 한다. 이 사역이 성공하는 교회들을 보면 반드시 이 사람이 책임자(coordinator)로 있음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프레즈감리교회의 마리에팔머, 세인트존스교회의 위그먼, 펜실베니아교회의 로즈 등등이 이런 경우이다.

셋째는 요즘말로 네트워킹이다. 그러나 쉬운말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회자, 사역자, 전성도, 그리고 지역, 연구소 등과도 긴밀한 대화로 서로의 협력과 자료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때로는 서로 의지와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책임자(top leader, CEO, 담임목사)의 전적인 지원과 지지이다. 어느 기관이든 최고책임자의 지지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 그 이상이 되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을 종종 본다. 결국 담임목사님의 전폭적인 지지이다. 사역은 성도들이 하기에 지원과지지, 그리고 격려는 담임목회자의 책임이다.

부 록 I

평신도리더십(lay-leadership)

평신도목회의 주요 테마 중 하나는 지도자 양성일 것이다. 칼조지(Carl F. George)의 말을 빌리자면 평신도리더십(lay-leadership)개발이겠습니다. 칼조지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교회들을 살펴보니 성장하고 성장치 못하는 경우, 결국은 그 이유가 얼마나 평신도리더십이 개발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리더십이 개발된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교회는 성장치 않는다는 결론이지요.

평신도목회는 우선 지도자(평신도리더)양성이 큰 과제이면서, 또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도자 양성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라고 하면 대개 담임목사님들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임목사님들 자신의 개발에 얼마나 투자하는가를 알아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평신도지도자 양성에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점은 전교인이 지도가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현실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 신자는 지도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지도력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에서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즉,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초준비가 된 사람들을, 예를 들어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부상하지 않고, 초 신자와 같이 소비자 역할(consumer)만 한다면 교회는 힘이 없이 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현대의

모든 목회패러다임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의 모든 목회 노력들이 지도자 양성, 즉 직책 면에서(Office) 지도가 아니라, 기능적인측면(Role)에서 지도자들로(리더자들) 바뀌어지는 내용들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는 확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혹시 또 소비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또 초 신자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아닌지. 교회, 그리고 목회자와 평신도, 또한 현재 그리고 미래 신학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 봅니다.

교회가 수확을 거두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은 아마도 훈련된(준비된, equipped) 평신도 지도자일 것이라고 칼조지는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평신도지도자들을, 평신도지도자 후보생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풀러신학교의 교회성장연구소 칼조지(Carl F. George)는 이렇게 설명한다. 칼조지는 교회성장분석가로서 수백, 수천교회를 돕고있다. 그는 소위 메타처치(Meta-church)라는 용어 사용자로서 유명한데, 메타라는 변화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변화에 대처하는 교회가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 수백 수천교회를 분석한 결과 - 교회가 잘 성장치 못하고 힘이 없는 것은 [평신도지도자:Lay-leadership] 개발의 부족이었다고 단정하였다.

문제는 어떻게 평신도지도자, 다른말로 평신도리더십을 개발하느냐? 그는 이렇게 제시한다: “양육/돌봄으로 평신도 리더십을 개발하라.” 양육하라! 그래서 평신도리더십을 개발해가라! 그러면서 터보시스템을 제시한다.

‘터보(turbo)’라는 말은 터빈(turbine)에서 나온 말로 [연결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연결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선 평신도지도자 양성부족도 있지만, 평신도지도자가 될 후보생들을 발굴, 개발하지 못하는데 있다고도 한다. 터보시스템은 터보그룹, 터보경험, 터보 형태라는 용어를 산출하기도한다.

물론 이 개념은 일반적인 평신도지도자 양성에 필요하지만 또한 LPM 사역에서도 필요하다. 즉, 1) LPM에서 평신도목자(Lay Shepherd); 2) 평

신도목회자(Lay Pastors); 그리고 3) 평신도목회자 후보(Lay Pastors Apprentice)라는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다. 즉, 잠재적인 평신도지도자(potential lay leaders)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평신도목회자(potential lay pastors)도 관심을 갖고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터보시스템이란 잠재적인 평신도지도자, 평신도목회자를 개발하여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 평신도지도자/평신도목회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18장의 이드로는 평신도지도자(이드로 1단계)만 세웠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는 이드로 II(후보자, 견습공) 개념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리더의 개념은 교회성장을 돕는 것이고, 직책을 주는 것이고, 회의 진행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리더란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리더십의 정의로 존 맥스웰이 내린 결론이다.)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비록 비전이 있고, 직함이 있고, 학벌이 좋다하더라도 [리더십]이 없는 것이다.

어떤 일을 혼자 하려면 단지 열심히 일하는 자가 있으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고자 하면, 비전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는 데에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리더십 개발의 전략은 바로 터보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자(견습공) 개발.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케스에 물을 담아 갖다 부으려 했다. 그 다음에는 화재 발생 가능 지역에 모래를 쌓아놓으려 했다. 몇 번의 화재가 발생한 후에 사람들은 자원봉사 소방대를 구성하려 했으며, 결국에는 경보시스템을 갖춘 전문소방대를 운영하였다. 경보기가 울리자마자 소방대는 출동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주 큰 화재는 소방대원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다른 소방서까지 연결되게 되었다. 계속 진행되다가 화재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기 위해 소방 감독관(fire inspectors)을 두게 된다. 즉, 미리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이것을 LPM에 비추어 본다면 교회안에도 이런 잠재적인(가치가 있고 생산적인) 평신도지도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후보자들을 찾느냐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후보자의 출입구를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딤후 2:2와 또 다른 것에서도 볼 수 있는 한 리더가 다른 사람들을 훈련하고 차례로 다른 사람을, 또 차례로.....

모든 교회가 말하는 것이, “우리는 전도하고 사람들을 돌보기 원하는데 충분한 일꾼이 없다” 라는 것이다.

누가 당신의 교회에 새로운 평신도지도자 발굴에 책임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교회안에 이런 일꾼들(지도자)을 예비해놓으셨는데, 당신이 그런 발굴과정에 동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당신의 견습공으로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

그러면 어떻게 견습공(후보자)을 찾을수 있는가? 당신의 새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모집할때에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살펴보자:

첫째, “우리는 지도자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예기들이 있어야 한다. “교회안에 그리고 바깥에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어떻게 평신도지도자가 사역에 투입되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과정이 분명히 설명되어야 한다. 평신도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후보자가 되기 원한다는 징후를 초기에 알아채려야 한다. 주로, 정

규적인 미팅시간 외에 흥미를 갖는 사람들이다. 예를들어 성경공부나 기도회 시간에 미리 오거나 또는 끝나고 당신과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넷째, 가능성 있는 후보자들에게 지도감독, 코치 그리고 격려를 해주어야 한다.

다섯번째,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 당신은 알맞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은 아닐수도 있다. 하나님은 당신보다도 볼봄 받을 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있다.

여기에서 주의 할 점은:

1) 성경과 교리를 가르친다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아는 것/ 이해 하는 것과 순종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2) 위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역의 특권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개념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서로 존경하고 자기 존중이 있게 된다. 엡 4:11-12절이 바로 그런 뜻이다.

3) 모델이 전부는 아니다. 사역의 스타일은 본인(상대방)이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4) 소그룹개발자 그 이상이다, 사실 소그룹이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해결책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훈련되고, 달란트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 받은 리더십에 따라서 성공, 실패한다. 그러나 소그룹을 통해서 이런 것이 가장 잘 개발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소그룹은 사실 평신도지도자를 합법화시키는 하나의 통로/도구(the primary vehicle) 이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지도자’가 되기 원하도록(바라도록)도울 수 있는가? 사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되기 원하고 그들의 리더십 능력을 사용하도록 만들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염적인 열정과 즐거움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동기부여 할 수는 있다. ‘사람들을 인도하는 경험에서 오는 당신의 즐거움은 아주 매력적이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즐거움을 갖고 싶어 하도록(목말라 하도록)하고 만다.’

간단히 말해서 후보자(견습생)가 되려는 욕망(바램)은 리더십을 가르침에 의해서라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붙잡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보자 개발은 관계성에 기초한 과정이다. 후보자 훈련에서 즐거움과 동료의식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예수님이 후견인으로서 초기에 12제자에게 준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들이“그와 함께 있는 것(막3:14)이 있다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것에 넘어서서, 그 사람 안에 [당신과 함께 하고 싶고, 당신과 시간을 보내고, 당신과 함께 무엇을 하고, 당신과 함께 토론하고, 당신과 함께 공통된 흥미를 나누고 싶어하는] 욕망을 길러주는 것이다.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인 존맥스웰(John Maxwell: Injoy의 대표이며, 전 웨슬리안 감리교회 담임목사)은 ‘교회는 돌볼 수 있는 역량(capacity)만큼 성장한다’고 천명했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즉 칼조지의 생각과 합한다면 “교회는 돌보는 평신도지도자(care-giver)가 많이 나타나면 성장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돌보는 역량이 안 갖추어진 교회는 ‘앞문으로 한명 들어오면, 뒷문으로 한명내지 두 명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뒷문을 막아라’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다. 더 나아가 ‘뒷문을 다시 열라(Reopening the back door)’라는 책까지 출간될 예정이다(한국LPM연구소).

또한 존맥스웰 리더십의 정의를 [영향력] 이라고 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가르침에 의해 받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에 의해 받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아는지에 관심 없고, 얼마만큼 돌보는지에 관심있다” 라는 말까지 맥스웰은 하고 있다.

양육/돌봄은 책(교과서)을 놓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돌봄을 통해, 또한 돌봄이 성숙될때 자연스럽게 양육을 서로가 느끼면서, 또 양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또는 무의식속에서 양육의 개념이 스며들어야 한다. 돌봄이 먼저 확실히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한다고 덤비면 그

것은 진정한 양육이 아니요, 학교식의 가르침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가르침이나 충고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고 싶어한다.

돌봄을 통해 평신도지도자가 개발되어 터보시스템을 갖추어 갈 때 교회는 역량(capacity)을 갖춘다고 한다, 두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어떻게 리더십을 전문화 시키는냐. 그것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이다. 훈련 없는 헌신은 곧 멀지 않아 식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터보시스템(이드로 II)을 구체화/현실화시키는냐. 관계성을 기초로 한 돌봄과 양육을 통해 가능해진다!

부록 II

평신도목회 성공전략

다음의 자료는 LPM 창시자 멜빈목사님이 개발하신 12 가지 기반적인 받침, 기둥 또는 블록 이라고 부르는데, 실패를 막으려면 또는 평신도목회를 성공하려면, 또는 성공전략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의미는 [실패를 막으려면] 이다. 거기에다가 저자(서목사)의 경험을 덧붙인 것이다.

평신도목회(LPM)의 성공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야 어느 누가 없겠는가마는 성공하는 교회 못지않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습관화가 되어서인지 ‘성공의 바램(desire)’을 너무 빨리 포기하고, ‘실패의 인정’을 너무 쉽게 해버린다. ‘성공의 열망’에 대한 지속성이 필요하고 ‘실패의 예측’을 너무 쉽게 해버려서는 안 된다. 성공하는 경우는 상황이 좋거나,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공을 할만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성공으로 향하도록 뒤집는 순간이다.

평신도목회가 성공하려면 12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알아야겠지만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늘 확인해봐야 할 체크리스트 자료이기도하다. 이것은 대개 사역이 4, 5년 지나갈 즈음에 빠져리게들 느낀다고 한다. 한국 LPM 사역도 이제 5년이 지나가고 있으니 이 시점에서 확인 차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전략을 살펴보면 사역이 [현재] 잘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잘 되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잘 안된 것은 속히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한다.

“실패”이전에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비전이다. 비전은 [분명함]이 그 열쇠이다. 여러분 교회의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에 대한 평신도목회(lay ministry)를 시작하여, 후에 그것의 강점을 테스트하려면 당신은 이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 다음에 종종 당신의 사역에서 바꿀 것과 침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사용하면 된다.

빌딩과 같이 강한 사역은 첫째, 굳건한 기반위에 세워지고; 둘째, 그것은 좋은 재료로 세워져야 한다. 만약 기반이 시초에 약하거나, 또는 만약 굳건한 기반으로서 시작되긴 했지만 침식되는 초기 단계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사역의 장래에 대해 두려워 할 수 있다. 시작하는 단계에 우리 사역의 기반으로서 이런 12가지 블록들을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이거나, 또한 그들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평가)할 때 사용해야한다.

만약 당신이 이 사역의 시작지점에 있을 때, 당신은 각 블록들에 대해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

1. 우리는 이것을 포함시켜야 할 것인가? 왜?
2.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3.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잘 할 것인가?

당신이 만약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각 블록들에 대해 다음의 질문을 하라. 그것들을 물어보는 것은 당신 사역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데에 생산적인 방법이다.

1. 우리는 이것을 하는가? 왜?
2.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가?
3.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잘하는가?
4.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더 낫게 할 수 있는가?

자, 이제 12가지 기반적인 블록들을 살펴보자. 각각은 몇 개의 “벽돌들,”

즉 건물재료들을 가지고 있다.

1. 비전(VISION)

"비전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망한다." (잠 29:18). 비전이란 "일반적인 안목보다는 뭔가 다른 안목에 의해서 보여진 것"이다. 나는 내 책상 전면 벽에 빌 고다드(Bill Gothard)의 놀라운 정의들중에 하나를 붙여놓고 있다. 이것은 세 마리의 기린이 긴목을 높이 뻗칠수 있는 만큼 뻗치고 있는 그림이다.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이런 정의이다: "내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보는 것." 많은 사람이 리더가 아니고, 또 비전의 사람은 많지 않다. 이것은 종종 리더와 따르는 자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그런 쪼갬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치루어야 할 댓가"이다. 어디에선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일하지 않고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꿈에 불과하고, 반면에 비전없이 일만하는 것은 고역이; 비전과 일은 인류의 희망이다." 자, 이제 이 부분이 기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자.

성서적인 근거와 요청 나는 LPM의 대헌장으로서 뵤전 5:1-4를 애기한다. 이 본문의 작용적(실천적)인 부분은 "너의 책임인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이다. 이것은 성서적인 근거이면서 또한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요청이다. 즉 그들의 백성중에 마지막 한사람까지라도 사랑받고, 돌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적이 모델은 출애굽기 18장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1000명, 100명, 50명, 그리고 10명으로 나누어 각팀에 대해 "능력있는 사람들(able men)" 세웠다. 그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목회적돌봄을 했으며, 그것은 실제로 잘 되었다. 뵤빈목사님의 첫 번째 책, [목회, 혼자할 수 있는가?]의 35-58페이지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성도들의 필요 목회자나 관심있는 평신도가 성도들의 교적부를 검토해보면 목회적돌봄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 수 있다. 희망장로교회에서 2500명중에 500명을 조사해보았는데 능동적에서 소극적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결과들을 발표했을때 재직들은 심각한 필요성을 느꼈

다. 현실적으로 모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작은 교회 큰 교회 양쪽 모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정기적으로 기도받고, 잘 알려져서 괴로움과 고통을 혼자 감당치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서 누군가가 돌봐주고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되기 바라신다. 많은 교회들이 LPM으로 인도된 것은 그들의 필요와 우선권이 검토되었기 때문이다.

기도 기도로써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비전을 분명하게 해 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당신에게 하라고 요청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사역에서 약해지는 것은 희미한 비전이었기 때문이고, 희미한 비전은 기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반대로 강한 사역은 기도로써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더 확대되기도 한 비전에 의해 지지된다. 예수님이 사역에서 왜 그렇게 강했는지는 그가 종종 기도한 것을 보면 전혀 이상할 바 없다. 그러므로 간단한 문제이다: 우리 비전의 분명함과 에너지는 기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였느냐에 달려있다.

지도자들과 공유하라 비전은 공유되어야(나누어야) 한다. LPM사역을 강하게 하는 교회들을 보면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가진 평신도가 목사와 그것을 나누기(공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한 LPM 사역을 하는 교회들은 그것에 대해 비전은 가진 목사가 몇 명의 평신도와 그것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퍼진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원(서클)을 더 크게 했다. 한 두사람의 평신도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교회는 거의 실패한다. 목사 혼자서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혼자 시작한 교회도 역시 실패한다. 이것은 다음의 기본적인 블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2. 주인의식(OWNERSHIP)

“하나님이 이 사역을 우리교회에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성공시켜야 한다.” 누군가가 그 사역을 “소유(own)” 해야 한다. 즉,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의 성공(state)에 대해 책임적이 되어야 한다.

비전을 소유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 모세는 이미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이드로로부터 들었는데, 일을 혼자 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을 돌봄에 있어서도 사실이고, 성도들을 돌보도록 하는 사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사실이다. 우리교회의 2500명중에 LPM 리더 팀 (MLG: Ministry Leadership Group)은 8명으로 되어있는데 LPM의 비전을 나누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인의식의 표시는 무엇인가? 적어도 5가지가 있다:

1.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
2. 모임때 보다도 다른 때에 그것에 대해 생각
3. 집에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 얘기
4.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룸
5. 성공의 기쁨을 느낌

이것은 사람들이 교회안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에 덧붙일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사역들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기도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도록 요청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열정(zeal)은 종종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요청하신 것보다 훨씬 더한 헌신(more commitments)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그분은 초점을 맞추셨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에 한계를 정하셨다: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동네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는 그들의 멧세지 조차도 제한했다. 마태 10장을 읽어보라. LPM 리더십 그룹의 각 멤버는 교회안에서 자신들의 최우선 사역으로 이것을 해야한다.

목사, 당회, 재직회의 의해서 파송되어야 한다 이 목회는 교회 모든 사역들에 기초(basic)가 되므로, 공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이 목회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별도로 구별하는 것은 LPM 리더그룹

의 멤버들이 직업적인 목사에 동역자가 되어 “양무리를 돌보라”는 뱀전 5장의 명령을 성취하는 것이다.

스케줄 된 모임 어느 누구도 모임을 위한 미팅은 좋아하지 않지만 목회사역을 위한 모임은 상쾌한 것이다. 우리의 LPM리더그룹(희망 장로교회)은 한달에 두 번 모이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 화요일 저녁이다. 모임은 네가지 부분을 포함한다: 예배, 교제(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양육, 그리고 사역. 이상적인 것은 매번 모임시마다 네가지 모두 하는 것이고, 다른 모임시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다른 일들로 한두 개를 확장하기도 한다. 가끔은 멤버들 중에 한두 명의 삶 속에서 일어난 개인적인 문제를 듣고, 상담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때에는 사역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여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다 쓸 수도 있다. 만약, 각 모임시에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시간을 두고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예배(대개 아주 간단한데-찬양, 성경 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그룹을 묶는 우리의 삶을 나누고, 목회 사역을 기쁘고 또 생산적이 되게 한다.

3. 구조(DSIGN)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그것을 알맞게 표현 할 형태를 찾아야 한다.” Avery Dulles의 [교회의 모델]에서.

구조란 필요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역의 부분이다. 그는 우리에게 “양 무리를 돌보라”라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기위해 전략을 강조한다. 그분은 위대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을 하기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겼다. 만약 우리의 사람들이 알맞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돌봄을 받도록 하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한 방법을 가질 필요가 있다. 비록 그들이 다르게 명명한다 할지라도 수백교회들이 우리의 평신도목회(LPM) 모델을 채택하거나 적용하고 있다. 이 모델은 나의 첫 번째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에 자세히 나와 있다.

목적과 목표들을 정하라 우리의 설명된 목적은 교인들 속에 모든 가족을 위해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는 당신의 상황에서 당신의 목적은 다르게 불리거나 다르게 설명될 수도 있다. 목표들 중의 하나는 목회적인 마음을 가진 듯이 보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LPM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정보제공 미팅에오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LPM리더십 그룹은 목적에 대한 분명한 진술서를 개발하는 것이다. 두(頭)문자 ‘SAM’은 목표들에 대해 한가지 분명한 것을 말해주는데, 그들은 특수해야하고,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측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Specific, Achievable, and Measurable.

알맞은 구조를 창조하라 출애굽기 18장의 모세모델은 평신도의 목회적 돌봄 사역구조를 위한 근본적인 원리를 준다. 나의 첫 번째 책 10장, “조직을 갖추라”(197페이지 이하)가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의 조직적인 구조가 어떻든지 간에, 골격이 몸에 중요한 것처럼 구조가 당신의 사역에도 중요한 것처럼 보여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모양을 만들고 그것이 움직이도록 하게 하면서 같은 기능을 한다.

일의 설명서를 개발하라 우리는 그것을 “직책 책임서”라고 부른다. 당신은 누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무엇(what)”은 글로 쓰여 질 필요가 있다. 글로서 쓰는 것이 어떻게 다른 인식들을 조화롭게 하고 모호함을 분명히 하고, 기대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미래에 오해를 감축시키는지를 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평신도목회자의 사역 설명서는 아주 분명하다—P. A. C. E. 평신도목회리더그룹 멤버의 할일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역에 포함된 모든 사람의 할일을 분명하게 적는 것이다.

12가지 기본적인 블록위에 세우라 각각은 너무 중요하여 어느 하나라도 무시하게 되면 전체구조가 연약해질 것이다. 모든 것을 함께 취합하여 강한 사역을 위해 하나의 강한 기반이 되도록 하라. 한번에 한개 씩 생각해보고 위에 제안한 질문들을 해보라. 당신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배치시키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배치되었을 때에

그것은거기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4. 부름(CALL)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요 15:16). 평신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사역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우리 직업적인 목회자는 부름 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쉽게 믿는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음으로 뭔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속고 있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성서적인 가르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서 영적인 은사 받음과 신적인 부름을 받아들이라 목회에서 부름 받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는 속에 포함되어 있다. 어떤 교단들은 내 생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목회에로 부름은 세례속에 포함되어 있다.” 엘톤 트라블라드(Elton Trueblood)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했다: “크리스찬이 되면서 목회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용어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목회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로마서 12:4절에서 얘기하는 “우리들의 각각에 대한 것”은 고전 11:7과 27절에, 그리고 또 다시 벰전 4:10절에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되어 있다. 이 본문들의 각각은 영적인 은사들을 다루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크리스찬들은 목회를 위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들 각자로 하여금 우리가 귀인지, 팔인지, 또는 눈인지-목사, 행정가, 또는 가르치는 자- 알게 해준다. 그것은 평신도목회자 자신의 이미지에서 아주 다르게 해주어, 그는 사람들을 목회적으로 돌보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책임감을 갖게 한다.

각 참여자의 소명을 확증하라 평신도목회자가 되기 원하는 이런 목회를 위해 은사 받거나 알맞은 것은 아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이 구비세미나를 다 이수하였다 할지라도 그만두게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며 거절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른 목회적인 사역이 요구되어야 한다.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평신도목회자가 되려는 사람

들을 미리 확인, 입증한 후에 그들만 구비 세미나를 받도록 하기도 한다. 자질은 필수적이며 성서적인 선행과제 이기도 하다. 평신도목회자들이 순수하고 3중적인 부름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 그들 자신, 2) 목회리더, 그리고 3) 교회 리더십. “우리 역시 당신은 평신도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라고 듣는 것은 좋은 일이다. 사적으로, 또 공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역이 어려워질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공공연한 인정과 수용을 제공하라 우리는 이것을 “파송”이라 부른다. 평신도설교자에 대한 요한 웨슬레의 형태는 평신도목회자들에게도 맞는다: 1) 은사; 2) 부름; 3) 훈련; 그리고 파송. “파송”은 어떤 면에서 직업적인 목회자들이 안수식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주일날 예배에 우리는 파송식을 하는데 기도할 때에 장로들이 손을 얹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그것은 이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며 또한 그들을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구별한다는 의미이다.

5. 구비시키는 것(EQUIPPING)

“목회 사역을 위해 성도를 구비시키라.”(엡4:12). 영어성경 NIV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봉사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라.”

구비를 위해 성서적인 초청을 채택하라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구비시키라는 요청은 위의 본문에서 주어졌다. 구비시키는 것은 어떤이로 하여금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사역하도록 해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세가지 구비시키는 것들로 구비되어야할 필요를 아셔야 한다: (1) 사람-엡4:11 & 12; (2) 성령-행 1:8; 그리고 (3) 성경-딤후 3: 16 & 17. 어떤 교회들은 이런 기반적인 블록들 없이 이 사역을 수립하려고 하였는데, 그들의 사람들은 그것을 필요치 않았거나, 그들이 그것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름을 감지하는 사람들은 구비되기 원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주님을 위해 가능한 최상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과정을 계획(디자인)하라 당신은 어떤 주제로 당신의 평신도목회자들이 구비되기를 바라는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목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당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두가지로 그들이 구비될 필요가 있다: (1) **되도록(to be)** 그들을 구비시키는 것; 그리고 **하도록(to do)** 그들을 구비시키는 것. **그들이 무엇인지(what they are)**가 **그들이 하는 것(what they do)** 보다 더 중요하기에 많은 시간을 믿음의 사람 예수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상징시키는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그들의 개인 삶에서 기도의 장소와 성령의 능력을 알 필요가 있다. 예수그리스도와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성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for**) 일하기전에 주님과 **함께(with)** 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프리카 교회지도자 이사야 뮤이타(Isaiah Muiita)는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하지(**reach up**) 앓고는 사람들에게 닿을 수(**reach out**) 없다.” 또 다른 지도자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은 그를 위한 **당신의 사역(ministry for him)**보다도 **그와 함께하는 관계성(relationship with him)**에 더 관심이 있다.”

목회적 원리와 기술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단지 우선권에서 두 번째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인가(**we are**)가 우리가 하는 것 (**we do**)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적인 기술을 가벼이 볼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사실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는 기술적인 면에서 우수하게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목회적 기술에 덧붙여서 그들은 조직적인 구조를 알아야하고, 그들의 경험을 나누기위해 종종 함께 모여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하고, 미래의 구비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의 문제로 그들의 머리가 복잡해질 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는 목회적 돌봄을 주기위해 사람들을 구비시키는 교과서이다. 나는 아직도 책에 나오는 12가지 구비내용으로 수십년간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구비시키는데 있어서 한가지 중요한 원리는 알라바마 몽고메리의 프레즈 감리교회 존마티슨목사(Rev. John Mathison)가 본인의 소책자, [모든 성도가 목회자이다] 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훈련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준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을 하는데 최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이

결정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이 원리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고 있다. 그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놀라운 평신도목회적돌봄 사역을 하고 있다.

구비시키는 자들을 확인할 것 에베소서 4장에 따르면 목사와 교사들은 목회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비시키는 것이다. 딤후 2:2에서 또 다른 실천을 만나게 되는데 목사들은 ‘구비시키는 자들이 되도록’ 사람들을 구비시키는 것이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으리라.” 우리교회 안에는 목회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구비시키는(가르치는)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우리교회(멜빈)는 목양하라고 부름받은 느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목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을 구비시키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을 적어도 두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구비세미나의 부분이 되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듣는 것, 병자들에 대한 목양, 신뢰성, 가족 삶, 문제 해결등에 대한 강의에 전문가들을 불러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비시키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한 가지 생각은 훈련받는 이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경우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현재 사역하고 있는 평신도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경험과 현장의 질문들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구비시키라 이것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이 될 수도 있다. 한시간에 할수도 있고, 반나절에 할수도, 종일 할 수도, 또는 주말에 수양관과 같은데서 할수도 있다. 형태는 책, 오디오와 비디오테이프, 잡지의 글 등의 자료제공을 위한 특별한 크래스로 부터 개인의 집에서까지 다양한 모양을 가질수 있다. 또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크래스, 워크숍, 세미나, 또는 특별한 주제 모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은 그들의 목회적 기술과 영적무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당신교회안에서 시행되는 예배, 조직적인 성경공부, 설교강의 그리고 다른 특별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그들의 목회적 마음을 강화시킬 것이다.

6. 책임(ACCOUNTABILITY)

“그것은 완료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검열된 것이다” 라고 국제구비사업 창시자인 게리스웨틴(Dr. Gary Sweetin)이 말했다.

ELM(목회를 위해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것/Equipping Lay Ministry)의 창시자 선드랜드(Ronald H. Sunderland)는 이렇게 쓰고 있다: “감독이나 지도감독은 평신도목회의 건강에는 필수적이다. 감독이 소홀해지면 그들의 목회에 대한 평신도의 적극적 헌신이 사라진다.” 책임은 목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세가지 주요방법들로 한다: 월간 보고서, “목회지도감독,” 그리고 목회나누는 시간.

보고서를 제공하고 보고서와 관련된 정책 LPM 리더그룹은 보고서와 관련해서 무엇을 할것인지-그것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책-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이 보고서 제출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이며 중요하기에 반드시 목회의 한부분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보고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만드는 데에 충실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책임감을 받아드리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목회가 어떻게 되어가는 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서에 대하여 응답해주는 것(feedback)은 중요하다. 만약 사람들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전혀 피드백이 없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졌는지, 또는 누군가가 혹시 그것을 읽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응답이 없으면 보고서는 다시 내지 않을 것이다.

목회지도감독 각 평신도목회자는 어떤 평신도목회자(소위, ‘목자’)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관심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그녀) 안에 있는 것이다. 두번째 관심이 지도감독이다. “목회지도감독(pastoral supervision)”이라는 용어는 오하이오에 있는 감리교 연합신학대학교(UTS/United Theological Seminary)의 케넛폴리박사(Dr. Kenneth Pohly)에 의해 만들어졌다. 역할은 나의 첫 번째 책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95-102 페이지에 잘 설명해 놓았다. 단순한 형태속에서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목적으로 평신도목회자를 만날 수 있다: “당신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얘기해보세요!” 이것은 책임의 순간이다. 그러나 “지도감독” 하기위해 그 사람을 지도감독하는 대신에, 그들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하게 하는 것이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완수한 것’을 또는 ‘하지 않은 것’을 안다. 그들이 이야기를 끝마칠 즈음에, 그들은 자신을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자와 평신도목회자 양쪽을 위해 편안한 시간이며, 대개 확증과 기도로 끝날 수 있다.

소그룹에서 목회에 대해 나누기 우리의 평신도목회자들은 한달에 한번 모여서 예배, 구비, 목회정보, 교제와 나눔의 기회를 갖는다. 우리는 그것을 “평신도목회교제”라고 부른다. 나눔의 시간에 5에서 10명씩 소그룹으로 모여 서로 서로 그들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기쁨들을 서로 이야기한다. 그들은 그것을 책임의 시간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다. 서로가 이야기하는 행동은 가장 효과적인 것 중의 하나이고, 동시에 뭔가 책임이 있는 즐거운 시간이다.

7. 확증(AFFIRMATION)

"등허리를 두드려 주면서 하는 격려와 감사의 말은 영(spirit)에 불을 붙이는 것이다."

확증, 믿어주고, 칭찬하고, 명예를 주고, 인정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그 마음속에 수립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며, 공공연하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수성을 위해서 평신도목회자들을 확증하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 어떤 사람을 목회에서 잘하였다고 확증하는 것-애정적인 영으로 하는 것, 관대하게 한 행동, 그들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성장하는 것, 민감함과 기술로 어려움 상황을 다룬 것-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나 자매에 대해 진실을 선언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한사람이나 그룹을 확증하는 것은 성서적이다. 롬 13:7은 우리에게 요청한다: “모든 자에게 줄것을 주되....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명예를 줄자가 있으면 명예를 주라.” 궁극적인 확증은 장래에 예수님에 의해서 받게될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 25:23). 확증은, 만약 우리가 뻔전 5:4절을 문자적으로 취한다면 선물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너는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물론 그것은 이전 명령을 완수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라.” 우리는 사적이든지, 또는 공적인 확증을 억누르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알맞은 말, 선물, 행동으로 사람들을 확증하는데 창조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적인 인정을 하라 이것은 목회와 그 목회를 하는 개인 양쪽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그것이 시행될 수 있는 방법들은 교회주보에 글, 사진을 실음으로서, 그리고 강단에서의 광고와 또 포스터를 통해서이다. 목회 리더그룹(MLG)은 명예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명예를 알맞게 주기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한다.

연중 목회축하와 인정행사를 계획하라 목회는 그들이 목회를 더 축하할 필요를 지도자들이 깨닫기 전까지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 목회의 축하를 해야할 것을 그들이 깨닫기 이전에 수년동안 계속되어진다. 희망장로 교회에서 우리는 연간 소위 “목회축하 디너” 기회를 갖는다. 이것은 평신도목회자와 그들의 배우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자, 음악, 상품, 그리고 평신도목회자들과 그들의 목회적 돌봄을 받고있는 사람들의 간증으로 꾸며지는 축제이다. 그것은 확증해 주는 것이 평신도목회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수년동안 사역해온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른 이유들로 인식(표창)하기도 한다. 우리는 “사랑의 서클”이라는 이름으로 둥글게 서서 손에 손 잡고 노래와 기도하면서 마치게 된다.

목회지도감독 목회지도감독을 할때에 감독자의 질문(요즘 사역 어때요?)에 대한 응답은 평신도목회자가 해야 하는 활동과 태도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확증은 감독자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는 이것을 잊지 말

아야 한다.

일대일의 확증 어떤 사람의 진실한 목회를 인정하는 메모, 카드, 또는 편지들은 확증을 하는데 탁월한 방법들이다. 목회지도자, 목사, 또는 부교역자의 전화는 그 사람의 영(spirit)속에 많은 기쁨과 따뜻함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은 별로 시간이 걸리는 일은 아니지만 작은 존재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는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것이 되는 것이다.

8. 지원(SUPPORT)

“많은 사람들은 우리목사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을 할 수 있다....목사의 할 일은 목회를 위해 이런 사람들을 구비시키고, 행정과 모범을 통해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Samuel Southard, [Comprehensive Pastoral Care]

우리 직업적인 목사들은 일을 위해 사람들을 불러 높이 메달아 놓고 말라 버리게 하는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지원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것을 할(지원)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역을 하는 평신도들은 그들이 필요시에 도움과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도움의 “벽돌들”은 어떻게 필요한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는 지에 대한 아이디어들이다.

스텝과 리더그룹의 가용성 평신도목회자들은 그것에 혼자 책임지려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목회적 돌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들은 양무리의 돌봄에 있어 동역하는 자원봉사자들, 즉 *목회에서 동역자(Partners in Ministry)*가 되는 것이다. 목사, 부교역자들은 평신도들이 동역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교역자팀)은 문제들을 다루고, 질문에 응답해 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들은 세가지 방법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어떤 경우이든지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것; (2)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한다는 것; (3) 문제가 발생시 돕는다는 것. 봉급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은 봉급을 받지 않는 평목들에게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구비시키라 그들의 사역에서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구비 기회들이 제공 (가용)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원이 되는 것이다. 그들은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사역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기도동지를 구성하라 희망과 의지는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 기도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나는 수영 캠프에 며칠동안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buddy(동료)" 시스템을 사용했다. 수영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buddy"를 가지고 있다. 기도지원을 위해서도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 서로를 지원하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교회는 두달마다 새로운 기도동지를 지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새로운 경험을 하게하고, 또 기도경험을 신선하게 해준다.

목회지도감독 우리는 이것을 이전에 다른 적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사용될 필요가 있기에 살펴보려는데 그것은 평신도목회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강한 지원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의 목회적돌봄의 짐을 지는데 있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도 감독자(supervisor)'란 그들의 사람들에게 헌신되어야 하고, 그들의 약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충실해야 한다는 뜻이다.

9. 교제(FELLOWSHIP)

"사역을 창조하는 공동체는 나눔과, 성장, 그리고 갱신에 있어서 함께해야 (must come together)한다."

만약 같은 사역에 동참된 사람들이 자주 함께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그들의 삶은 놀라운 방법에서 묶어질 것이다. 묶어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계속하게 하고, 충실함(성실함)을 생산할 것이다. 그들의 믿음에 덧붙여서, 그들은 공통점에서 그들의 사역을 갖는다. 이것을 제공하는 것

은 목회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모든 사역자들은 **사역**으로부터 **공동체**로, 그 다음에 **공동체**로부터 **사역**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움직임은 다음과 같은 도표에서 더 분명하게 보여진다.

사명→공동체→사명→공동체

우리교회의 평신도목회자들은 한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모이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주로 저녁에 모이는데 5가지가 포함된다: (1) **예배**-찬송 부르고 성경본문을 가지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2) **사역뉴스**-광고, 정책 변경 등등; (3) **구비시키는 것**-구비세미나에 사용되는 기본 자료 검토(note: 기본적인 것은 종종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회기술과 원리들에 대한 비디오테이프, 듣는 것과 다른 기술들에 대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배우는 것; (4) **나눔**- 몇 명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사역이 어떻게 되어가는 지를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어려움과 즐거움"). 이것은 평신도목회자들에게 있어 가장 흥미있고, 가장 가치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5) **교제**-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마치는데, 그 이후에 다과/음료수 시간은 꼭 중요하다.

사교적인 행사를 계획하라 여기서서는 창조성이 열쇠이다. 연간 소풍, 크리스마스 파티, 또는 사역이 재미있게 되고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사역에서 자신의 헌신하는 것 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together) 것을 알기 바란다. 크리스찬 교제의 독특성은 요일 1:3절에서 보여진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10.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목회는 종종 있는 대화(verbal)나 글로 된(printed) 접촉이 없이는 강해질 수 없다. 당신은 이런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는가: “광고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소년에게 윙크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그것을 하는지 모른다.” 목회러더그룹(MLG)은 그

들이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목회에 대한 목적, 목표, 필요성, 그리고 성취들을 알리거나 글로 적어 보내지 않으면 그 사역은 번성할 수가 없다.

월간소식지 내가 아는 대부분의 평신도목회들봄 사역들은 정기적으로 또는 매월 “소식지(뉴스레터)”를 발간한다. 우리는 "Keeping-PACE"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고 있다. 뉴스레터의 목적은 사역에 동참된 모든 사람에게 글로 쓰여진 의미있는 접촉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내용은 (1) **격려**, (2) **구비시키는 것**, (3) 그리고 **정보제공** 이다. 우리의 뉴스레터는 A/4 사이즈 양면이다. 어떤 교회들은 더 길게 발간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몇 십장씩 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작은 일이지만 큰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만약 그것이 간단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것이지만 그것이 두껍다면 “나중에” 읽겠다며 옆으로 제쳐놓는다. 오히려 당장 읽도록 하는 것이 나으며, “걸어총”의 받침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내가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이다.

교회신문에 글을 쓴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어떤 종류이든지 월간지를 발간한다. 목회지도자들, 교역자들, 평신도목회자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글을 쓰도록 하면 될 것이다. 회중들에게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지를 알리는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1) 회중들을 사역에로 부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 평신도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것인데, 그들은 그것에 대해 알고 그것을 좋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편지 당신은 가끔 목회에서 어떤 이정표나 어떤 특별한 행사를 강조하기 원할수 도 있다. 목사나 평신도지도자에게 의해 보내지는 편지는 이것에 대해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평신도목회자가 더(more) 필요할 경우에는, 선택된 사람들이나 전 성도에게 편지 보내는 노력과 비용에 대해 보증을 해 줄 것이다.

예배시간 개인적인 간증 만약 당신의 교회가 평신도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또는 가끔 예배시에 간증할 기회가 있다면, 가끔 평신도목회자들이

사역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 만약 당신의 교회에서 이런 기회들이 없었다면, 그것을 시작할 수도 있다. 간증은 세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1) 왜 내가 그것을 하는지; (2) 왜 내가 그것을 하는지; 그리고 (3) 나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또는 나를 위해 이목회가 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교회들, 그리고 연구소와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하라 LPM을 하는 교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신의 사역과 당신을 신선하게 해줄 것이며, 또는 그들도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소식지, 강사, 자료 등을 교환하면서 할 수 있다. 연구소(본부)와 계속 연락하는 것도 또한 혜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혼자 하는 것 보다 오히려 서로가 연락하며 공유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이다.

11. 평가(EVALUATION)

“목회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려 시간을 갖는 것은 그것을 계속 전진하게 해 줄 것이다.”

사역이 한참을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당신이 계획한대로 시행 되었는지, 당신이 기대한 만큼 시행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이다. 평가라는 것은 당신의 사역이 가능한 효과적이 되도록 하기 위한 당신의 목적들에 비추어서 당신의 사역을 모니터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지를 알 필요가 있다:

1. 우리는 우리가 하기로 발표한 것을 하고 있는가?
2.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가?
3. 우리가 사용하기로 계획한 방법과 도구들을 사용하는가?
4.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인가?

평가라는 것은 목회의 현 상황을 측량해볼 수 있는 진술된 목표, 목적들에 비추어서 해보는 것이다. 만약 이런 것들이 결코 쓰여지지 않았다면,

당신은 평가하기 전에 그런 것을 먼저 해야 한다.

목회평가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라 이것은 이런 기술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는 당신이 잘 아는 기관이나 연구소등으로부터 평가서를 적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식은 나의 첫 번째 책에 수록되어 있다. 다른 것은 또한 연구소를 통해 구할 수가 있다. 당신 자신의 것을 디자인하려면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는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이런 정보를 알려줄 질문들을 정리해봐야 한다. 당신은 적어도 1년에 한번은 해봐야 한다.

목회개선을 위해 결과들을 활용하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돌아온 양식들(forms)을 얻은 후에 시작된다. 그들은 해석되고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당신 사역의 강한 부분은 더 강하게, 약한 부분은 강하게 만들 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사역한 것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거의 70% 효과적 이었다. 질문들에 대한 응답에서 어떤 평신도목회자들은 그들의 약속을 정규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들은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확신이 없었으며, 어떤 이들은 아주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추가적인 구비세미나를 하였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혜택(장려금)을 주었다.

12. 유지(MAINTENANCE)

이것은 날마다(day-by-day) 사무실과 행정적인 잡무들이다. 이런 주제가 LPM 컨퍼런스에서 다루어질 때, 이 주제에 대해 강의를 한 강사가 말했다: “오는 정말 힘든 주제를 강의했다.” 사역에서 장단이 맞고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유지에는 마법이 없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TV를 고객에게 파는 것과, 그것을 수리하는 것 사이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세일즈맨은 최전방에 위치하는 사람이다. 수선 전문가는 무대 뒤의 사람이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한다. 유지가 되지 않으면 목회는 조만간에 깨어질 것이다.

필수적인 사무실 업무를 하라 기록하고, 진행되는 보고서, 뉴스레터 발송과 같은 많은 것들이 사무실의 필수 일들이다.

양무리를 정규적으로 확인하라 목양하는 그룹의 사이즈는 줄어들 것인데 사람들은 이사 가고, 다른 교회로 가거나 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무리들을 정규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목양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예를들어, 어떤 평신도목회자는 처음에 6명을 돌보았는데 한참 지내자 2명이 되었다. 한 사람이 떠났을 때, 다른 사람이 할당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이런 유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료들을 제공하라 또 다른 무대 뒤의 업무는 워킹, 구비시키는 세미나, 교제모임, 그리고 다른 행사들을 위해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다. 보고양식들을 만들어 그것들이 평신도목회자들의 손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 외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

구조, 정책, 그리고 참여자들을 검토하고 수시로 확인하라 이것은 목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할 일이다. 만약 사역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지려면 그것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이런 요청은 일이 진행되는 것, 정책을 최상으로 하는 것, 사명선언서를 재검토 하는 것, 문제에 대해 해결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낙담되어 있는 평신도목회자들을 상담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정하거나 또는 사역을 그만둘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런 12가지 기본적인 블록들은 시작지점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수년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다. 우리는 18개월에 걸쳐 LPM을 창조했으며 그 다음에 6개월에 걸쳐 5명의 평신도목회자들로 시험프로젝트 사역을 하게하여 그것이 잘되는지, 그것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유지했다. 지난 수년을 돌아보며 이런 12가지가 분명히 작용했으며, 몇가지는 상처가 입은 다음에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바라건데, 이런 기본적인 블록들의 근본적인 본질은 그들의 사역이 처음에 옳게 시작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역 과정에서 “실패와 잘못”의 낭비로부터 많은 것을 구해줄 것이다.

참고도서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1984 & 2000
- 헨드릭크레머/유동식, 평신도신학. 서울: 기독교서회, 1962.
-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목회. 서울: 두란노서원, 1999
- 멜빈/서병채,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서울: 한국평신도목회연구소, 2000
- _____,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 서울: 평신도목회연구소, 2001
- 로버트슬로컴/서병채, 평신도목회의 극대화 서울: 평신도목회연구소, 2002
- 짐갈로우/서병채, 목회에서 동역자 서울: LPM연구소, 2003
- 머린윌슨/서병채, 평신도목회에서 모빌라이제이션 서울: LPM연구소, 2003
- 케넷/서병채, 뒷문을 다시열라 서울: LPM연구소, 2004
- _____, 교회안의 갈등과 문제 서울: LPM연구소, 2005
- 수멀러우/서병채, 구비시키신 교회 서울: LPM연구소, 2006
- 그레그옥텐/송광택,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0
- 하워드스나이드/이강천,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 김점옥, 평신도사역자를 키우라 서울: 기독교신문사, 1998.

Alan Nelson (2002). *Embracing Brokenness*. Colorado: Navpress.

_____. (2007). *Me to We*. Colorado: Group Publishers.

Alan Nelson & Stand Toler. (1999). *Five Star Church*. California: Regal Books.

Al Ries. (2005). *Focu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Al Ries & Laura Ries. (2002). *The Fall of Advertising & The Rise of PR*.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Anderson, Leith. (1992).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Minneapolis, Minnesota: Bethany House Publishers.

Andy Stanley. (2003). *Next Generation Leader*. Oregon: Multomah Publishers.

Andy Stanley, Reggie Joiner & Lane Jones. (2004). *Seven Practices of Effective Ministry*. Oregon: Multomah Publishers.

Arnold, William V. (1982). *Introduction to Pastoral Care*. Philadelphia, PA: Westminster Press.

Aubrey Malphurs. (2005). *Advanced Strategic Planning*. Grand Rapids: Baker Books.

Banks, Robert & Julia. (1998). *The Church Comes Home*.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Barna, George. (1998). *The Second Coming of the Church*. Nashville: Word Publishing.

_____. (1992). *The Power of Vision*.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_____. (1993). *Turn-around churches*. Regal Books.

_____. (1997). *Leaders on Leadership*. Regal Books.

Becker, Palmer. (1993). *Called to Equip*. Scottsdale, Pennsylvania: Herald Press.

Bill Easum. (2000). *Leadership on the Otherside*. Nashville: Abingdon Press.

Bill Easum & Dave Travis. (2003). *Beyond the Box*. Colorado: Group Publishers

Bill Hamon. (2002). *The Day of the Saints*. PA: Destiny

Image.

Bill, Hull. (1988). *The Disciple-Making Pastor*. N.J.: Fleming H. Revell.

Bob Buford. (1997). *Game Pla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Butt, Howard. (1978). *At the edge of hope: Christian laity in Paradox*. New York: Seabury Press.

Campbell, Alastair V. (1981). *Rediscovering Pastoral Care*.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Christensen, Michael J. (2000). *Equipping the Saints*. Nashville: Abingdon Press.

Collins, Gray R. (1980). *The Joy of Caring*. Waco, TX: Word Books.

Damazio, Frank. (1997). *Lay Pastor Training Manual*. Portland, Oregon: City Bible Publishing.

Dan Kimball. (2007). *They Like Jesus But Not the Church*. Grand Rapids: Zondervan.

Darrell L. Guder. (1998). *Missional Church*. Grand Rapids: W.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Detwiler, Diane Zapp. (1992). *Lay Caregiving*.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Diehl, William E. (1996). *Ministry in Daily Life*. Alban Institute.

Drucker, Peter F. (1999).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NY: HarperCollins Publishers.

Eddie Gibbs & Ryan Bolger. *Emerging Church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Edgar H. Shein. (2004).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CA: Jossey-Bass.

Edge, Findley B. (1985). *The Doctrine of the Laity*. Nashville, Tennessee: Convention Press.

Fechut, Oscar E. (1974). *Everyone a Minister*. St. Louis: Concordia.

- Francis O. Ayres. (1987). *The Ministry of the Laity*. Illinois: Division of Lay Life in UMC
- Frank R. Tillapaugh. (1988). *Unleashing Your Potential*. CA: Regal Books.
- Garlow, James L. (1998). *Partners in Ministry*. Kansas City, Missouri: Beacon Hill Press.
- Gary L. McIntosh. (1999). *One Doesn't Fit All*. Michigan: Fleming H. Revell.
- . (2000). *Staff Your Church for Growth*. Michigan: Baker Books.
- Gary Sweeten. (1975). *The Development of a Systematic Human Relations Training Model for Evangelical Christians*. (Ed.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incinnati.
- George, Carl F. (1994). *The Coming Church Revolution*. Grand Rapids, Michigan: Fleming H. Revell.
- . (1992).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Grand Rapids, Michigan: Fleming H. Revell.
- Gerald Foley. (1984). *Empowering the laity*. Kansas city: Sheep and word.
- Grantham, Rudolph E. (1980). *Lay Shepherding*.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 Greenfield, Guy. (2001). *The Wounded Minister*.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 Hall, Eddy and Morsch, Gary. (1985). *The Lay Ministry Revolution*.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s.
- Hamilton, Myrlene L. (1994). *Being the Body of Christ*.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 Hendrik Kraemer. (1958). *A Theology of the Laity*. PA: Westminster Press.
- Haugk, Kenneth C. (1988). *Antagonists in the Church*.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 . (1984). *Christian Caregiving*.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_____. (1992). *Reopening the Back Door*. St. Louis, Missouri: Tebunah Ministries.

Henry & Richard Balckaby. (2001). *Spiritual Leadership*. Nashville: Broadman & Homan Publishers.

Heusser, D. B. (1980). *Helping Church Workers Succeed*.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Howard Grims. (1962). *The Rebirth of the Laity*. Nashville: Abingdon Press.

Isaiah Berlin. (1953). *The Hedgehog and The Fox*. Chicago: Ivan R. Dee Publishers

James D. Anderson & Ezra Earl Jones. (1986). *Ministry of the Laity*.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James H. Furr, Mike Bonem & Jim Herrington. (2000). *Leading Congregational Change Workbook*. California: Jossy-Bass Publishers.

James M. Kouzes. Barry Z. Posner. (2002). *Leadership Challenge*. CA: Jossey-Bass

Jerry File. (2006). *The Equipping Ministry of the Pastor*. Washington: Pleasant Word.

Jim Collins. (2001). *Good to Great*.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Jim Collins & Jerry I. Porras. (2002). *Built to Last*.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Joel Arthur Barker. (1992). *Future Edge*. New York: William Marrow and Company, Inc.

John Patton. (1993). *Pastoral Care in Context*.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Joseph Nightingale. (1807). *A Portraiture of Methodism being an impartial View of the Rise, Progress, Doctrine, Discipline, and Manners of the Wesleyan Methodist*.

London: C. Stower.

- Kaemer, Hendrik. (1958). *A Theology of Laity*. London: Lutterworth Press.
- Ken Blanchard, Speneer Johnson. (2003). *The One Minute Manager*.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 Kenneth Chafin. (1966). *Help! I am a Layman*. Texas: Word Books.
- Kevin G. Ford. (2007). *Transforming Church*. Illinois: Tyndall House Publishers.
- Kotter, John P. (1996). *Leading Change*. Boston, Massachusett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Lakeland, Paul. (2002). *The Liberation of the Laity*. New York: Continuum.
- Mallory, Sue. (2001). *The Equipping Churc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 Mark Hanby. (2005). *The Ministry of the Saints*. Philadelphia: Destiny Image Publishers.
- Mathison, John E. (1996). *Every Member in Ministry*. Nashville, Tennessee: Discipleship Resources.
- Marlene Wilson. (2004). *Creating a Volunteer-Friendly Church Culture*. Colorado: Group Publishers.
- .(2004). *How to Energize Your Volunteer Ministry*.
- .(2004). *Volunteer Encouragement, Evaluation*.
- Max DePree. (1992). *Leadership Jazz*. New York: Brantam Dell Publishing.
- Maxwell, John C. (2001). *Developing the Leadership Within You*.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 McKay, William J. (1992). *Me, an Evangelists?* St. Louis, Mo: Stephen Ministries.
- Mead, Loren B. (1996). *Five Challenges*. Washington: Alban Institute.
- _____. (1993). *More than Numbers*. Washington: Alban Institute.

- _____. (1991). *The Once and Future Church*. Alban Institute.
- _____. (1994). *Transforming Congregations for the Future*. Alban Institute.
- Menking, Stanley J. (1984). *Helping Laity Help Other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 Michael Frost & Alan Hirsch. (2003). *The Shaping of Things to come*.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
- Miller, Keith. (1965). *The Taste of New Wine*. Waco, Texas: Word Books.
- Neil Broun. (1971). *Laity Mobilized*. Grand Rapids: WBE Publishing Company.
- Ogden, Greg. (1990). *The New Reformation*.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 _____. (2003). *Unfinished Business*. Zondervan.
- Olsen, Charles M. (1995). *Transforming Church Boards*. Alban Institute.
- Parrott, Leslie. (1991). *Motivating Volunteers in the Local Church*. Kansas City, Missouri: Nazarene Publishing House.
- Patricia Page. (1993). *All God's People are Ministers*. Minneapolis: Augsburg Fortress.
- Pattison, Mansell. (1977). *Pastor and Parish: A System Approach*. Philadelphia: Fortress Press.
- Peel, Donald. (1980). *The Ministry of Listening*. Toronto, Canada: Anglican Book Center.
- Peter F. Drucker. (1989). *The New Realities*. New York: Harper & Row.
- Peter M. Senge. (1999). *The Dance of Change*. New York: Currency & Doubleday Publishers.
- Peter M. Senge. (2006). *The Fifth Discipline*. New York: Currency & Doubleday Publishers.
- Phillips, Roy D. (1999). *Letting Go*. Washington: Alban

Institute.

Poly, Kenneth H. (1977). *Pastoral Supervision*. Houston: The institute of Religion.

Richard Koch. (1998). *The 80/20 Principle*. New York: Currency Doubleday Publishers.

Robert E Quinn. (1996). *Deep Change*. San Francisco: Jossey-Bass press.

Robert Fritz. (1984). *The Path of Least Resistance*. New York: Fawcets Books.

Robert K. Greenleaf. (2002). *Servant Leadership*. New Jersey: Paulist Press.

Robert H. Thompson. (2008). *The Offsite*. San Francisco: Jossey-Bass.

Ron Myer. (2006). *Fivefold Ministry*. Philadelphia: House Publications.

Ronald Heifetz & Marty Linsky. (2002). *Leadership on the Lin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Rowland Forman, Jeff Jones & Bruce Miller. (2004). *The Leadership Baton*. Michigan: Zondervan Publishers.

Roy M. Oswald, James M. Heath, Ann W. Heath. (2003). *Beginning Ministry Together*. Washington: Alban Institute

Rupert E. Davis. (1989). *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Nashville: Abingdon Press.

Ryan, Juanita. (1984). *Standing By*. Wheaton: Tyndale House.

Rendle, Gilbert R. (1998). *Leading Change in the Congregation*. Alban Institute.

Schaller, Lyle E. (1993). *Strategies for Change*. Nashville: Abingdon Press.

Slocum, Robert E. (1990). *Maximize your Ministry*. Colorado Springs, Colorado: NAVPRESS..

Sofield, Loughlan. (2000). *Collaboration*, Notre Dame, Indiana: Ave Maria Press.

- South, Samuel. (1975). *Comprehensive Pastoral Care*. Valley Forge, PA: Judson Press.
- (1982). *Training Church Members for Pastoral Care*. Valley Forge.
- Stanley Menking & Barbard Wendland. (1993). *God's Partners*. Valley Forge: Judson Press
- Stanley E. Ott. (2002). *Twelve Dynamics Shift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Stedman, Ray C. (1979). *Body Life*. Ventura, CA: Regal Books.
- Steere, David A. (1989). *The Supervision of Pastoral Care*.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Press.
- Steinbron, Melvin J. (1987). *Can the pastor do it alone?*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 _____. (1997). *Lay-Driven Church*. Ventura, California: Regal Books.
- Steven R. Covey. (1990). *Principle-Centered Leadership*. New York: FP Press.
- Stevens, Paul R. (1999). *The Other Six Day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_____. *Liberating the Laity*. Vancouver: Regent College Publishing.
- Stevens, Paul R. and Phil Collins. (1993). *The Equipping Pastor*. Washington: Alban Institute Publication.
- Stone, Howard W. (1983). *The Caring Church*. San Francisco: Harper and Row.
- Stott, Joh R.W. (1968). *One people: Lay people and clergy in God church*. IL: IV Press.
- Thomas G. Bandy. (1999). *Christian Chaos*. Nashville: Abingdon Press.
- Thomas G. Bandy. (2000). *Coaching Change*. Nashville: Abingdon Press.

- Thomas H. Davenport, John C. Beck. (2001). *The Attention Economy*.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Thomas J. Peter and Robert H. Waterman. (2004). *In Search of Excellent*. New York: HaperCollins Publishers.
- Tim, Hansel. (1987). *Holy Sweet*. TX: Word Books.
- Travilla, Carol. (1990). *Caring without Wearing*. Chandler, AZ: Bart.
- Trueblood, Elton. (1952). *You Other Vocation*. NY: Harper & Row.
- _____. (1967). *The Incendiary Fellowship*. NY: Harper & Row.
- Trueblood, Roy W. & Jackie B. (1999). *Partners in Ministry*. Nashville: Abingdon Press.
- Ver Straten, Charles A. (1983). *How to start Lay Pastoring Ministries*.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 Verna Dozier. (1988). *The Calling of the Laity*. Washington: Alban Institute
- Victor E. Frankle. (2006). *Man's search for meaning*. Boston: Beacon Press.
- Wager, C. Peter. (1984). *Leading your church to growth*. Ventura, CA: Regal Books.
- Will Mancini. (2008). *Church Unique*. San Francisco: Jossey-Bass.
- William Bridges. (2003). *Managing Transitions*. MA: Da Capo Press.
- William, Easum. (1983). *Dancing with Dinosaurs*. Nashville: Discipleship Resources.
- , (1995). *Sacred Cows make Gourmet Burgers*. Nashville: Abingdon Press.
- William J. Rademacher. (1996). *Lay Ministry*.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 William K. McElvaney. *The People of God in Ministry*.

Nashville: Abingdon.

Wilson, Earl D. (1984). *Loving Enough to Care*. Portland, OR: Multnomah Press.

Wilson, Marlene. (1983). *How to Mobilize Church Volunteers*.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Yang Tan, Siang. (1991). *Lay Counseling*.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Yohn, Rick. (1982). *Discover Your Spiritual Gift and Use It*.

Yves Congar. (1965). *Lay People in the Church*. Maryland: The Newman Press.

Wheaton: Tyndale House.

Zabriskie, Stewart C. (1995). *Total Ministry*. Washington: Alban Institute.



서병채 (저자)

성결대학교 (B.A)

캐나다 McMaster University (M.Div)

감리교신학대학원 (Th.M)

미국 Graduate Theological Foundation (Ph.D)

미국 Yale University (Divinity, postdoc., 2006)

영국 Oxford University (Wycliffe, postdoc., 2012)

영국 Cambridge University (ICE, 2018)

나가랜드 PACE신학교 총장 (2015-2020)

케냐 학교법인 Blue Nile Melvin 이사 (2021-)

케냐 멜빈대학교 총장 (2021-)

역/저서

목회 혼자 할 수 있는가?

교회를 움직이는 평신도

평신도목회의 극대화

목회에서 동역자

평신도목회에서 모빌라이제이션

뒷문을 다시열라

평신도목회의 개념과 신학

구비시키는 교회

평신도목회 실천론

Me to We

독특한 교회

Pastoral Care

창조적인 삶

미래교회와 패러다임